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32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5월 20일(음력 4월 26일) 수요일(주간)



한일불교문화교류단 나눔의집서 '참회'

"2차대전 중 한국 여성분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정말로 미안합니다. 과거사에 대해 참회합니다."

일본 불교계 대표단이 5월 13일 과거사를 참회하는 내용을 새긴 기념비를 여주 신륵사에 세우고, 종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참회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할머니들은 이날 일본 스님들이 찾아와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자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스님들은 할머니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뒤,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박옥연(91) 할머니의 방을 찾아 건강을 기원했다.(사진 왼쪽) 이날 나눔의집 방문에는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니찌유 스님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2면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서 · 불교용품 필요하세요?

'현불샵' 14일 오픈… 클릭 한 번이면 OK

불교용품을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신개념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불교계 대표신문 '현대불교신문사'는 1STEP 인터넷 쇼핑몰 '현불샵(www.HyunbulShop.com)'을 5월 14일 선보였다.

'현불샵'은 향로, 목탁 등 '불교용품 코너'와 불교도서 6000여종 등 '불교서적 코너'는 물론 뒤주, 도자기 등을 판매하는 '일반용품 코너' 등을 갖춘 불교 토털 쇼핑몰.

현불샵은 주요 카테고리로 정리된 상품들을 상품검색 기능 등을 통해 품목과 가격별로 편하게 검색하도록 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쇼핑몰 이용 고객을 위해 회원 가입 후 상품 구입 시 1%가 마일리지로 적립되도록 하고 있다. 마일리지는 1000원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며, 3만원 이상 적립 시 배송비 무료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신용카드 및 온라인 입금 등으로 손쉽게 이용가능하며, 제주도와 일부 산간벽지를 제외한 전국 어디든지 3일내로 배송된다.

'현불샵'은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연동돼 상품 구매와 더불어 불교관련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다. '붓다뉴스'를 통해 각종 교계 소식과 해외 불교상품보기 등 다양한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쇼핑몰 이용자들의 의견제안 수렴을 위한 1:1 문의 게시판도 마련했다.

현불샵 OPEN으로 불자들의 신행문화 활성화와 불교상품 브랜드 개발 및 상품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02)2004-8200 노덕현 기자

법구경

깨달은 이는
죽음과 고통을 능히 정복해
불멸의 길을 발견할 것이다.

'교육선지식' 용봉 스님을 배운다

6월 5일 열반 18주기 추모제 시작으로 선양사업 활발

故 용봉 스님(1918~1991, 속명 이재복)은 태고종 대종사의 법계에 오른 선지식임은 물론 대전 보문학원을 설립한 근대 교육 선구자요, 문학가다. 관련기사 7면

지난해 불자들의 공분을 샀던 종교편향을 비롯해 불교계가 처한 난제에 대한 해답은 인재불사다. 용봉 스님은 1945년 해방 이후 어지러운 사회를 극복 ·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불교의 자비이념 실현과 불교이념에 입각한 인재양성을 중시한 불교 교육의 선각자다.

인재불사가 새삼 주목 받는 지금, 열반 18주기를 맞은 용봉 스님의 유훈 선양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눈길을 끈다.

'용봉 대종사 금당 이재복 선생 추모사업회'(회장 송하섭)와 용봉문도회(회장 원법)는 6월 5일 2시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舊 대전시민회관)에서 추모제를 개최한다.

추모제는 추모전집 봉정식, 추모학술대회, 추모전시회 순으로 봉행된다.

용봉 스님 추모전집은 스님의 설법과 강의, 문학작품, 대장경강화 등을 수록했다. 전집은 △제1권 '빈 배엔 달빛만 가득하고'(불교강화 녹취집) △제2권 '보배는 그대 안에 있네'(대장경강해자료집1) △제3권 '미움도 사랑도 벗으라네'(대장경강해자료집2) △제4권 '말을 타면 발을 쉬어야지'(대장경강해자료집3) △제5권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가네'(대장경강해자료집4) △제6권 '부처 속에는 부처가 없네'(대장경강해자료집5) △제7권 '침묵 속의 끝없는 길이여'(문학집) △제8권 '아직도 그윽한 님의 향기'(추모, 유품집)의 전 8권으로 구성됐다.

용봉 스님의 맏상좌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용봉 스님은 약관에 불문에 귀의해 학승으로 명성을 얻고, 세속을 떠나지 않으며 중생교화의 대승불교 정신을 몸소 실천한 분"이라며 "하화중생의 보살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을 선택해 평생 중등교육에 헌신한 선지식"이라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도 축사에서 "용봉 대종사는 산간불교를 현대화, 대중화, 생활화해야 한다는 불교적 사명을 깊이 인식한 분"이라며 "대종사의 말씀과 시들이 대중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문고 출신인 동국대 오영교 총장도 축사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 교장이던 금당 선생님은 불교교화사업에 매진한 분"이라고 추모했다.

추모학술대회에는 동방불교대학원 윤영우 학장과 충남대 김방룡 교수, 광주대 이은봉 교수가 발표할 예정이다.

추모전시회는 용봉문도회장 원법 스님(대전 보은정사, 태고종 원로의원)의 작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용봉 스님의 법제자인 원법 스님은 용봉 스님의 문학작품집 <정사녹초(靜思錄抄)>에 수록된 130여 편의 작품을 3년 여에 걸쳐 손수 서예로 표현했다.

원법 스님은 "용봉 대종사의 작품 중 '갑사대종반안기' 등은 일제가 갑사 대종을 전쟁물자로 쓰기 위해 강제 반출하려던 것을 대종사께서 탁발을 통해 모은 비용으로 도로 찾아 갑사에 봉안한 내력을 기록한 의미 있는 글"이라며 "'갑사대종반안기'는 용봉 대종사의 애국심 뿐만 아니라 대종사의 자제인 이동영 교수(우송정보대)가 갑사 종각의 편액에 쓰인 글을 한자 한자 옮겨 적은 효심 어린 대작"이라 말했다.

송하섭 회장은 "이번 추모전집 간행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용봉 대종사 선양사업을 펼칠 계획"이라며 "금당학술재단을 설립해 금당 선생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042)533-3909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社告 라오스 공생청소년센터 건립을 위한

희망Dream 꿈 드림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나는 공생청소년센터 간다! 우리 거기서 만나!"

불교전통이 살아 숨쉬는 동남아시아의 숨은 보배 라오스. 순수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라오스에는 절대 빈곤에 기본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아이들 74%가 영양 부족으로 학교조차 가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등록금이 없어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단법인 지구촌공생회와 본지는 '공생청소년센터(GoodHands YouthCenter Laos)' 후원 캠페인 '희망Dream 꿈드림'을 전개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라오스 싸이타니구 지역 3000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세요.

- 주 최 : (사)지구촌공생회, 현대불교신문사
- 주 관 : (사)지구촌공생회
- 기 간 : 2009년 5월 13일 ~ 8월 3개월간
- 모 금 액 : 3000만원 목표(1구좌 1만원)
- 후원계좌 : 농협) 170341-51-015696 (사)지구촌공생회
- 문 의 : 지구촌공생회 02)455-9596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0



선지식을 찾아서 ▶12 일장 스님



인터뷰 ▶8 범각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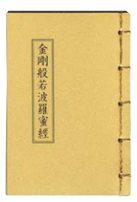
강의실 ▶23 오강남 교수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올곧은 마음으로 참된 공양물만을 만드는
능인향당
향 · 조각 · 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맞은편 02-730-6888 직영매장)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봉사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기축년(운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054)655-1011 · 011-336-4665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향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생전예수재와 함께하는
법보종찰 해인사의 제 4차 1029일 천도법회
현생의 고통이 전생 빚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생 빚을 갚고 현생에 지은 보시공덕으로 내생의 복밭을 가꾸는 참회와 축원 대법회.



6월 22일!! 해인사 가는 날
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법보종찰 해인사만의 특별한 법회가 시작됩니다.

동참 계좌 농협 843174-51-009176(예금주 해인사)
지금 곧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善覺

■ 입 재 : 2009년 6월 22일 오전 10시
■ 장 소 : 해인사 대적광전
■ 법회집전 : 세민 큰스님(現 조계사 주지 스님 / 前, 해인사 주지스님) 이후 매 큰 49재때마다 세민 큰스님이 직접 집전하고 제방 선지식들의 법문과 해인사 200여 대중 스님들의 축원이 계속됩니다.
■ 문의전화 : 055)934-3105.3106 / 팩스 055)934-3107번 (해인사 종합접수실)

생전 예수재의 내력과 원력

부처님의 대공덕주인 '빔비사라' 왕은 명부를 체험한 후에 다시 깨어나 전생을 참회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생전예수재를 무려 59번이나 열어 그 공덕으로 도솔천에 환생하였다고 합니다. 중국 양무제 역시 매년 봉행하여 인연도리를 널리 알렸다고 합니다. 이에 해인사에서는 해인사 前주지스님이시자 現 서울 조계사 주지스님으로 계시는 세민 큰스님이 직접 집전하고 200여명 해인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생전예수재와 제4차 1029일 천도법회를 함께 봉행합니다. 나와 조상, 그리고 자손만대로 이어지는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의 발원이 담긴 생전예수재와 제4차 1029일 천도법회를 통해 전생 인연법문을 듣고 이 목숨 다할 때까지 수행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4차 1029일 천도법회에 동참하시는 신도님들께는 3차에 걸친 생전 예수재를 무료로 봉행해 드리며 법회 기간 내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불교적 삶 살면 행복도 따라와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바라고 그 삶을 위해 성공을 필수로 생각한다. 흔히들 성공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좋은 학교, 직장, 인맥과 배경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삶은 보통 사람들 보다는 순탄하고 행복할 것 같기만 하다. 과연 그들은 행복하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까?

美 하버드 의대 정신과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최근 1937년부터 조사해온 하버드생들의 인생사례 연구결과를 밝혔다. 이들의 출발은 순탄했으나 50세가 지나는 무렵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마약과 술에 빠져 단명한 이도 적지 않았다.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교수는 행복의 필수 요소를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7가지로 추렸다. 이 생애연구를 통해 성공적이며 행복한 삶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로움(小欲知足), 인간관계(인연화합), 사랑(자비)으로써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은 2009년 2월 <타임>지에서도 소개됐다.

美 미시간대 사회학자이자 보건전문가인 닐 크라우스는 1997년 교회 신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연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처지를 탓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도움을 받는 쪽보다 주는 쪽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흔히들 불교적 삶이라 하면 청빈하고 무소유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하지만 불교적 삶을 추구할 때 그 성공과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정신적 풍요는 조계사 시민선방, 안국선원, 한마음선원 공생실천과정 등 여러 사찰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의 월례 행사인 '참여불교 리더스포럼'과 불교인재개발원 등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와 사회발전을 교육시키는 단체들에서 경험할 수 있다. 불자들은 인생의 성공이 수행과 자기계발의 중도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불교계는 불자들에게 연속된 경쟁의 삶 속에서 행복과 성공을 거머쥐는 열쇠를 더욱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일불교교류 30년 '화합비' 세워

제30차 한일불교대회 "참회로 시작한 진정성이 대화합의 시작"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한 조선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의 고향 여주에 일본 측의 참회가 새겨진 기원비가 세워지는 등 여느 해보다 뜻 깊었던 한일불교대회가 원만히 회향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지관)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5월 12~14일 여주 신륵사 등에서 제30차 한일불교대회를 개최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2일 서울 워커힐호텔 환영만찬으로 시작해 일본 측 참가자 120여 명을 포함해 한일 양국의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일본 불교계 대표자들은 13일 신륵사(주지 세영)에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세웠다.

일본 승려들은 신륵사에 세워진 기원비에 "불행한 일이 여러 번 있었고 특히 근세에 있어서는 일본이 한국민에게 다대(多大)한 고통을 끼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반성과 참회의 염(念)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라고 새겼다.



5월 13일 여주 신륵사에서 열린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서 한일 불교계 대표자들은 '인류화합공생기원비'를 제막했다.

기원비는 높이 3m에 폭 70cm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人類和合共生祈願碑(인류화합공생기원비)'라는 비명을 새기고, 뒷면에 일한불교교류협의회장인 미야바야시 쇼겐(宮林昭彦) 스님이 직접 작성한 글을 국한문 혼용과 일본어로 새겼다.

기념비 제막식에 앞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대법회에서 지관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참회로부터 시작한 진정성만이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녹여버릴 수 있는 참 교류이며 대화합의 시작"이라며 "일본 불교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침략에 대해 참괴(慙愧)의 마음을 일관되게 공표해온 미야바야시 쇼겐 회장 스님의 대장부적인 결단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행사 후 기자간담회에서 "1945년 이후 한일 양국 간 많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양국 민족간 앙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60여 년동안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양국 관계를 불교도들이 부처님 법에 의지해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기념비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쇼겐 스님은 "한일 양국의 발전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해자·피해자라는 인식을 버리고 너와 내가 하나라는 정신으로 화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0년째인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977년 1차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주제를 정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우호 증대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해 왔다.

같은 날, 이천 미란다호텔에서 열린 학술세미나는 '인류화합의 실성(實成)을 지향하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학술세미나에서 한일 불교계는 "무력전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세계공영의 실견(實見)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 임종의례…'

조계종 포교연구실 연찬회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동성)은 5월 21일 오후 2시 한국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제32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고 <불교 임종의례와 상례 지침서> 편찬의 방향을 논의한다.

종책연찬회는 유재철 교수(동국대 대학원 장례비즈니스학과)의 사회로 강동구 겸임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의 주제발표 '불교 임종의례의 정의와 내용'을 통해 △임종의례의 정의 △표준 임종의례 제시 △불교 임종의례 지침서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한다.

순남숙 원장(한국생활문화연구원)은 △우리나라 불교 전통상례 △우리나라 유교식 전통상례 △의례준칙에서의 상례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불교상례 등 '불교 상례의 의미와 절차'를 주제발표한다.

이상언 기자



우송 스님 신흥사 주지 임명장 받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5월 15일 설악산 신흥사 주지에 당선된 우송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관 스님은 "본말사 대중스님들의 화합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우송 스님은 7일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산중총회에서 신임 주지로 선출됐다. 조동섭 기자

남북불교계 반출문화재 환수 협의

문화재환수위 5월 19~23일 평양 방문

남북관계 경색으로 민간단체의 방북이 중단된 가운데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문화재환수위원회(위원장 백창기, 이하 환수위)가 해외반출문화재 반환 협의차 평양 방문을 예정해 눈길을 끈다.

환수위는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초청으로 해외반출문화재 반환운동 경과 공유 및 향후 과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5월 19~23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15일 밝혔다.

방북단은 문화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과 이상근 중앙신도회 사무총장, 부두완 서울시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됐다.

환수위는 방북 기간 동안 북측과 함께 북관대첩비를 참배하고 해외반출문화재 반환을 위한 남북공동법회 및 성명 채택, 민족문화재반환 남북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혜문 스님은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문화재환수 협의를 위해 남북불교계가 만나 협의한다는 점에 이번 방북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수위는 2008년 8월 방북 이후 지금까지 남북간 합의에 다른 문화재 반환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조동섭 기자

東大 25일 이사회

새 이사장 정련 스님 유력

실형이 선고된 영배 스님이 이사장직 사퇴불가를 천명해, 표류하던 동국대 이사회가 새 국면을 맞았다.

동국대 이사회(이사장 영배)는 5월 25일 오후 3시 제244차 이사회를 열어 새 이사장 선출건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사장 영배 스님은 최근 몇몇 이사스님을 만나 이사장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배 스님이 이사직까지 사퇴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차기 이사장으로는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상임이사 교체 여부 등 이사스님 간에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최종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제244차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선출건 외에도 2008학년도 결산보고와 불교학술원 원장 임용 등의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사장 영배 스님은 3월 13일 제243차 이사회의에서 '종도와 학교 구성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사장 사퇴를 거부했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법계 종헌 개정안' 입법예고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법계제도 정착을 위한 '법계관련 종헌 및 종법령 개정안'을 5월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계법 상의 법계품수 자격연한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종헌 종법상 승랍·연령·법계를 자격기준으로 적용하는 각급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조항을 법계·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출가자가 3급 중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승랍 10년 이상 3급 고시 합격에서 승랍 5년 3급 고시 합격한 자로 완화된다. 또한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은 기존의 승랍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2급 승가고시는 승랍 20년 이상에서 승랍 10년 이상으로 낮춰 진다. (02)2011-1710

조동섭 기자

'학인 경전 암송·설법대회' 개최

전국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각 강원의 명예를 건 경전 암송과 설법대회가 열린다.

중앙승가대학교 28대 총학생회(회장 혜명)는 5월 21~22일 중앙승가대 학내에서 학인 교류와 화합을 위한 '전국 학인 경전 암송·설법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불교진흥회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후원하는 이번 암송·설법대회는 <금강경>과 <육조단경>이 각각 예선과 본선 주제로 진행된다. 총상금 1000만원.
(031)980-7892 노덕현 기자

세계불교 법왕청 초대법왕

일붕 서경보 존자 탄신 96주년 봉축 및 원적 13주기 추모대제 만등불사

세계인류평화와 남북평화 통일 성취를 기원하시고 온 중생을 제도하신 일붕존자 !
귀의 삼보하옵고,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존하의 법체청안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저희들의 대스승이시며 세계불교법왕청 설립과 초대법왕을 역임하신,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창종주 일붕 서경보존자님의 탄신%주년을 봉축하며, 원적 13주기를 추모하는 추모대제 및 만등불사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일붕존자님과 인연이 있는 문도 및 종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하시어 일붕존자님의 사상을 기리면서 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기 2553년 5월

다 음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6월 1일 (음 5. 9)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봉황산 일붕사(一鵬寺)
◆ 연락 및 문의처 1) 서울총무원 ☎ 02)998-8161~2 / 전송 02)998-8384
2) 의령일붕사 ☎ 055)572-7777
3) 문 도 회 ☎ 02)777-0901
4) 각교구종무원 및 일붕관계단체
홈페이지 http://ilbung.org

◆ 증 명 : 붕해 , 무찰, 인왕, 지산, 혜륭, 혜철
◆ 고 문 : 금봉, 명종, 청송, 원각, 송은, 수암, 지공, 혜천, 김원각, 법운, 지공, 동봉, 정암, 법광, 법열, 혜지, 덕산, 천강, 청원, 동원, 삼중, 의천, 의륜, 보광, 법정, 룡담, 용화, 천법, 청하, 월호, 탄공, 정각, 도철, 정송, 법륜, 무공, 화란,의범,찰스메르시에카(미국)
◆ 대 회 장 : 도 기(일붕문도회장)
◆ 봉행위원장 : 화 엄(총무원장)
◆ 집행위원장 : 혜 운(일붕사 주지)
◆ 봉행부위원장 : 법성, 삼주
◆ 집행부위원장 : 서병열
◆ 추진위원장 : 경원
◆ 추진부위원장 : 최혜숙, 정금조, 배맹자
◆ 기획위원장 : 용암
◆ 지도위원장 : 도안
◆ 지 도 위 원 : 일명, 경담, 혜광, 혜원
◆ 진행위원장 : 석성
◆ 경호위원장 : 정철
◆ 각교구동원위원장 : 보해, 동청, 도혜, 광은, 보광, 해동, 진경, 용주, 지운, 혜성, 석성, 경운
◆ 분과위원장 : 총무분과-용운 / 의전분과-서혜성 / 재무분과-혜일 / 봉사분과-지언
경호분과-진송 / 홍보분과-고봉 / 섭외분과-법해
◆ 분과부위원장 : 의전분과-진율 / 홍보분과-자혜

일붕존자 원적 13주기 추모대제 봉행위원회

"전통사찰 수행 환경을 보호해주세요"

옥천 대성사엔 환경부 연구소가, 서울 대성사엔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이…

환경을 보호해야 할 환경부와 전통문화와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문화관광체육부가 오히려 전통사찰 인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옥천 대성사(전통사찰 58호, 주지 혜철)는 최근 인근에 추진중인 환경부 연구소 건립문제로 발칵 뒤집혔다. 대웅전 35m 부근에 환경부 산하 금강물환경연구소(소장 천세억) 2층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5월 6일 "대웅전 뒤편에서 굉음이 계속해서 들려 법회조차 열 수 없다"며 "항의차 방문한 옥천군청 건축과는 전통사찰이지만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이 아니므로 건축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더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광부에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문의하니 전통사찰심의위원회 심의와 주민공청회 등으로 지역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들었다. 전통사찰에서 500미터 이내의 땅 주인들이 '참 좋은 법'이라고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에 동의를 해주겠는가"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충청북도 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법주사 주지),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5월 11일 청주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공사 즉각 중단 △훼손 산림 복구 △옥천군수 공식사과 등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을 시 총궐기 하겠다는 강력대응 의사를 밝혔다.


옥천 대성사 인근 금강물환경연구소 공사현장.


서울 대성사 인근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립에 반대하는 서초사암련 스님과 신도들이 15일 문광부 앞에서 항의법회를 열고 있다.

전통사찰의 500m 내 건축계획을 사전심의토록 한 역사문화보존구역은 지자체장이 지역주민의 반대를 고려, 지정을 꺼리기 때문에 900여 전통사찰 중 지정된 곳이 전무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제도를 역이용한 개발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문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해 12월부터 천년고찰인 서울 대성사(전통사찰 22-1호, 주지 법안)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지점에 6344㎡에 달하는 예술의전당 공연연습장 건립을 추진해 불교계 원성을 사고 있다.

대성사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사실보다 더 놀라운 점은 서울시청이 2007년 9월 13일 대성사가 보유한 목불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 제92호)을 이동 가능한 동산문화재로 평가, 기존 보호구역이던 필지를 해제한 것. 문화재보호법(문화재 반경 500m내 건설공사 규제)을 피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통사찰이지만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대성사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다.

서울 대성사 측은 "당시 많은 사찰 중 문화재 재평가는 대성사가 유일했다. 대성사 인근을 개발하기 위한 표적 변경"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기존에도 야외공연장으로 인해 교통난과 법회시 소음 등 수행환경이 침해당했다. 밤늦게까지 울리는 공연 소음은 9시 취침해 3시부터 기상하는 승가 생활에 치명적이다"며 "우면산 터널로 인해 지하주차장이 불가능해 공연연습장이 건설되면 사찰 피해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대성사와 서초사암연합회와 신도들,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100여 명은 3월 27일 서초구청에서, 5월 15일 문광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고 공사현장에서도 법회를 열고 있지만 공사는 여전히 강행중이다.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사찰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장치는 거의 없다. 도심사찰 활성화와 지역환경 개발로 사찰 수행환경과 지역재산권 분쟁은 날로 증가하는 반면, 불교계는 개별 사찰에서 대응하는 실정이다. 사찰 수행환경과 불교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종단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노덕현 기자**

사람·생명·평화의 길 찾으니…

오체투지순례단, 21일 명동성당~조계사

'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 수경 스님과 문규현 신부 등이 진행하는 오체투지 순례가 서울에서 펼쳐진다.

오체투지순례단은 5월 16일 오전 11시 남태령 서울 경계에 도착, 관문 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데 이어 21일 명동성당에서 조계사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오체투지 순례'를 봉행한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명동성당을 출발해 서울시청광장과 청계광장을 거쳐 조계사까지 진행되며, 오후 5시 조계사에서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시국법회에서는 오체투지순례단 소개 및 지난 과정에 대한 소감과 임진각까지의 각오, 빈부격차 등 사회현안에 대한 참회와 성찰의 장이 마련된다. 또 前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의 시국법어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총무 김인국 신부의 생명평화를 위한 시국선언문도 낭독된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 우리가 지켜요"

경남파라미타 문화재지킴이 발대식

경남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 문화재를 가꾸며 보호하는 '경남파라미타청소년 문화재 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회장 원정)는 5월 16일 창원중앙중학교 체육관에서 문화재지킴이단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파라미타청소년문화재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창원, 마산, 진해, 합천 지역 청소년 500여 명으로 구성된 지킴이단은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주변 정화활동, 모니터링, 홍보, 도색 · 잡초제거 등 시설물 관리, 화재 감시 등에 적극 참여한다.

발대식은 식전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단주 만들기, 컵등 만들기, 인경, 인트로 댄스, 풍물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경상남도교육감의 축하메시지 낭독으로 시작된 본 행사에서는 표창장 수여, 위촉장 수여, 총회장 인사, 내빈 격려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원정 스님은 격려사에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선조들의 소중한 얼을 이어 창의적으로 전승하라"고 당부했다.

김두찬 회장(김해 삼계중 교장)은 "청소년들의 문화가 현대와 전통을 잇는 바람직한 청소년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 강조했다.

발대식에 이어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에서 간부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찰음식문화체험 연수도 1박 2일간 진행됐다. **이상언 기자**

'골인~!' 축구로 영그는 '종교 화합'

4대 종단 성직자 축구 대회 열려… 가톨릭팀 우승

초여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축구를 통해 종교화합을 다졌다.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5월 11일 과천 관문체육공원에서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축구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각 종교간 상호 친목을 위해 2005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4개 팀 선수단 중 불교팀은 조계사 등 스님들로, 개신교는 순번에 따라 성공회 신부님들이 참가했다. 가톨릭은 서울대교구 신부님들이, 원불교는 중앙총부 교무님들로 각각 구성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경기에 앞서 "이번 축구대회로 지역과 종교간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평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인사 승가대학, 한신대학교 등 각 종단 대학에서 대회가 열리면 종교간 상호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원불교팀과 축구 경기 중인 불교팀의 스님.

지난 대회 우승팀인 불교팀은 준우승 팀인 원불교팀을 만나 선전했으나, 2대 0으로 석패했다. 뜨거운 열기에도 경기 중 거친 몸싸움과 태클 등은 드물었으며 상호존중과 이해 속에 진행됐다. 참가 선수단은 대회 중 점심시간에는 채식 도시락부터 피자까지 각 종교 교리에 맞는 다양한 음식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경기에서 가톨릭팀이 원불교팀을 2대 1로 꺾고 우승했으며, 3 · 4위전에서 불교팀이 개신교팀을 2대 1로 누르고 3위를 차지했다. 이날 받은 상금은 노숙자 무료급식 등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매장문화재 조사 전담 창구 생겨

문화재청 대전에 고객지원센터 개관

매장문화재 조사업무와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창구가 마련돼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발굴 · 보존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5월 12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문화재센터 3층에서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는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소규모 발굴비용 국가지원 제도, 법령 및 용어해설, 제출서류양식 제공 등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지원한다.

또 매장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민원을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분쟁사안에 대해서는 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센터 개관으로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라는 인식개선은 물론 그간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정보 불균형에서 비롯된 각종 오해와 불만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중앙·지방 종무원 체육대회 열려

조계종 5월 29일 대전서 개최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5월 29일 오전 10시 대전 남선공원 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중앙 · 지방 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중앙과 본 · 말사 재가 종무원 200여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대회는 재가종무원들을 위로 및 격려하고 중앙과 본말사 종무원 상호간의 교류와 화합을 통해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총무원 총무부 관계자는 "이번 체육대회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동섭 기자**



“정조 효심 깃든 유적지 보존하라”

범국민연합 ‘대국민 호소문’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발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서린 세계 유일의 효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라.”

뒤주 속에서 죽어간 아버지 사도세자를 향한 정조대왕(1752~1800)의 효성은 남달랐다. 대왕은 사도세자를 위해 용주사를 중창했다. 직접 시묘하지 못함을 죄스러워하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부친 능(융릉)을 참배했고, 붕어해서도 건릉에 묻히기 전 시묘를 위해 융릉보다 낮은 곳에 첫 무덤을 정했다.

정조대왕의 효심의 상징이라 불리는 대왕의 첫 무덤 터는 2007년 융릉 남쪽 아래에서 확인됐다. 인근에서는 정자각 터와 재실(齋室, 묘제를 지내기 위해 지은 건물) 터가 잇따라 발견됐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가 융 · 건릉(사적 제206호)을 비롯한 용주사 일대에 대규모 주택단지(태안 제3지구) 건설을 강행하면서, 정조대왕의 효심 어린 유적지들은 훼손을 피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국민호소문’과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이 발표되는 등 대한주택공사가 진행 중인 택지개발 계획을 폐지하고 효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융건릉봉향회 이흥철 고문이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맨 오른쪽은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화성 용주사(주지 정호) 등 46개 단체로 구성된 정조효행유적지보존범국민연합(이하 범국민연합)은 5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조효행유적지 보존 100만인 서명 동참 대국민 호소문’과 ‘대통령에 올리는 상소문’ 등을 발표했다.

범국민연합 민학기 고문변호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수원 화성도 융 · 건릉이 있어 세워졌을 만큼 융 · 건릉-용주사 일대의 문화유적으로서의 가치는 크다”며 “조선시대부터 해방후까지 능일대 10리가 왕실소유이며 국유지였다. 국가가 운영하는 한국주택공사는 당연한 의무를 실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 고문변호사는 “문화재청이 왕릉과 무관한 전문가로 사적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택지개발 강행에) 절차상 문제가 있는 만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합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명박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주요과제로 채택됐던 효 문화유적지 보존이 주택공사의 기업이익 보호에 밀렸다”며 “금년 7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앞둔 융 · 건릉-용주사 일원이 아파트 건설공사로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국민연합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구원할 유일한 가치가 효(孝)”라며 “모든 국민이 효행유적지 보존을 위한 서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범국민연합은 △세계 유일의 효 문화유적지인 융 · 건릉-용주사 일원의 보존 △융 · 건릉-용주사 일대의 효 역사문화공원과 전통 효 문화마을을 조성할 것 등을 촉구 · 결의했다.

이어 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지구촌공생회 대표)을 비롯해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만섭 前 국회의장 등이 고문으로 있는 한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대표회장 최성규)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 불국사 주지)도 5월 6일 양산 통도사에서 열린 제4회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융 · 건릉 일원 정조 효행유적지 보존을 결의했다.

한편,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조선왕릉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에서 ‘등재권고’로 평가했음을 최종 확인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조동섭 기자

임원전진대회

대불청 23~24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웅정, 이하 대불청)는 5월 23~24일 경주 위덕대와 포항에서 전국임원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진대회에서 대불청은 불교청년문화변혁, 문화 포교 역량강화 등에 주력한다.

박상희 자문위원의 ‘문화포교의 필요성’ 강의를 통해 문화 포교 방향, 불교청년문화변혁과 문화포교역량을 논의한다. 또 6월 27~28일 개최되는 전국불교청년대회 율동경연대회를 대비해 권미아 문화포교위원장의 율동배우기 시간이 마련됐다.

한편 전국임원전진대회에서는 정기 이사회, 전국불교청년대회 진행 사전 점검 및 답사가 진행된다.

이상언 기자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 품수식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은 5월 14일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불교상담심리사 2급 자격 품수식을 봉행했다.

자격 품수식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포교부장 계성 스님, 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 등 사부대중 40여 명이 참가했다.

혜총 스님은 격려사에서 “부처님께서 45년간 하신 전법활동은 곧 상담활동”이라며 “상담자로서의 활동은 쉽지 않겠지만 세세생생 부처님 법을 널리 알리는 보시의 삶을 서원하라”고 당부했다.

계성 스님은 “어려운 상담사의 길에는 문수보살의 지혜, 관세음보살의 자비, 보현보살의 행원, 지장보살의 대원이 함께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2급 자격 품수식을 받은 22명의 불교상담사는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전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불교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상언 기자

‘생명 · 생태’ 주제 여름강좌

불광사 ‘불광 숲 학교’도 마련



우희종 교수의 강연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쇠고기 파동에 이어 돼지인플루엔자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심각한 생명파괴와 변종바이러스, 핵전쟁,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으로 모든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가 생명과 생태를 주제로 여름강좌를 준비했다.

강의는 근대과학에서 보는 생명과 연기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불교 생명관을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생명과 관련된 사회 현안을 예리하게 접근 시도하고 있는 우희종 교수(서울대 치의과대)가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 30분 지도한다. 강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생명과학과 생명 △연기적 사유와 생태적 사고 △삶의 문제로서의 생명-깨달음의 구조 △불교와 존재 등으로 구성됐다.

불광사는 또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하는 ‘불광 숲 학교’ 프로그램을 5월 22일부터 6월 26일 매주 금요일 실시한다.

△에코맘, 자연으로의 회귀-생태적 삶과 생명생태교육에 대한 언 △일자산, 들풀에서 줍는 과학 △석촌호수 나무 느끼기 △아이와 엄마가 공유하는 올림픽 공원 숲에서 놀자! △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 △청량산 숲 보기, 읽기, 담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강의는 정미경 불광 생태전임강사(숲해설가)와 이세걸 사무국장(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며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불광사 관계자는 “도시에서 살면서 자연을 접하기 힘든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생태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계획하게 됐다”며 “생명과 자연, 생태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02)417-2551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정토회 수련**=정토회는 5월 27~31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수련회를 실시한다. 성인 누구나 참가가능하고 수련중에는 묵언, 1일 2식, 휴대전화 반입불가 등의 엄격한 수련규칙을 지켜야 한다. 참가비 15만원 선착순 50명 접수. (054)571-6031

●**대흥사 차문화 템플스테이**=한국 차문화의 다성 초의 선사의 숨결이 어려 있는 해남 대흥사에서 5월 31일까지 ‘차문화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1박2일간 차를 수확하고 차를 직접 만들어 스님과 다담을 나눌 수 있다. (061)534-5502

●**도봉사 3000배 정진법회**=도봉산 도봉사는 ‘참 나를 찾는 여행 3000배 철야기도 정진법회’를 5월 23일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4시 30분까지 진행한다. 이날 정진은 불력회 회장 박종린(덕암) 법사가 집전한다. (02)954-5381

●**우또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푸른 솔숲과 황토방 선원 강릉 담마선원은 5월 23~29일 우또다나 사야도 초청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좌선, 행선, 일상관찰 수행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2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 (033)644-1686

‘템플스테이 여행자 보험’ 가입

법륜사, 중앙대 마가 스님 강좌 수강생에 혜택

수강신청 10초 만에 마감되는 대학 강좌가 있다.

바로 중앙대학교 최고 인기강의인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의 ‘내 마음 바로보기’ 마음공부 교양강좌. 마가 스님의 특별한 마음수련법은 종교를 막론해 20대 젊은이들의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주는 강의로 올해도 단연 최고 강좌다. 수강생 전원은 5주차까지 스님의 지도로 명상 · 참선을 하고 2박3일간 템플스테이를 체험한다. 올해도 400여 명이나 수업을 신청해 경기 법륜사(주지 현암)는 4월 24일~ 5월 24일 체험자들로 만원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는데 있어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륜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안전을 위한 ‘템플스테이 여행자 보험’을 40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체결해 템플스테이를 보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했다.

현암 스님은 “금전적인 지출이 있지만 참가자들의 안전보장이 더 중요해 체결하게 됐다”며 “템플스테이를 더욱 널리 알려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가 스님은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에게 여행자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참가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더욱 발전된 템플스테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언 기자

음악천재 모짜르트, 의학적으론?

니르바나필 24일 ‘음악, 법의학자 만나다’

음악회가 진화되고 있다. 듣고 감상하는 음악회에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거듭나 의학과 음악이 만났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5월 24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공연 ‘음악, 법의학자를 만나다-모차르트’에서 음악과 의학을 접목하는 실험적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공연에서 법의학계의 권위자 문국진 박사(前 고려대 의대 교수)는 ‘신동’이라는 찬사로도 부족할 만큼의 조숙한 천재였던 모차르트의 음악과 그의 생로병사를 소개한다. 첫 주제인 ‘귀의 기형이 만든 천재’에서는 150cm의 작은 키에 곰보, 근시, 주먹코, 외이(外耳) 였던 모차르트가 장애를 극복하고 천재가 된 사연을 소개한다.

둘째 주제는 ‘천재 모차르트와 아버지’, 셋째 주제는 일상생활에서 이성의 분뇨에 심취해 배설물을 보거나 냄새를 맡으며 쾌감을 느끼는 분변음욕증(糞便淫慾症, scatoltgy)이 있었던 모차르트와 악처 이야기가 전개된다. 마지막에는 150여개의 추측과 학설이 난무하는 그의 사인 등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생로병사와 함께 음악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케스트라 관계자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영감과 음악적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고 말했다. (02)718-4599

이상언 기자

韓 · 中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한국불교 최초 제2회 중국 선종 육조제

귀의 삼보하옵고

본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에서는 세계 선불교 중흥조라 할 수 있는 육조 혜능 대사의 선불교 사상을 재조명하고 한국불교 전래의 역사성을 바로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 육조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수계, 전법품수는 물론 불교학문과 전통의례, 의식 등 제반 불교문화 교류를 갖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 12월 30일 중국 육조사에서는 육조 혜능 대사의 선불교 사상을 홍포 세계적 통불교를 위해 천년만에 제1회 육조제를 재현했습니다. 이에 양국불교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제2회 육조제를 한국에서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참으로 부처님 크나크신 법혜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에 미친 육조 혜능 대사의 영향은 한국불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에 한국불교계 각 종단 종정예하 고승대덕 큰스님은 물론 모든 불자는 초발심의 자세로 한국 육조제에 임해야 할것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이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길 한국불교계 모두의 동참 발원으로 기원드립니다.

◆ 주 관 _ 중국광동 육조사
◆ 주 최 _ 한국 육조제 봉행위원회
◆ 일 시 _ 2009(불기 2553)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
◆ 장 소 _ 서울 올림픽 공원 내 올림픽 홀

행사 및 일정

1. 5월 20일 • 중국 육조사 대원 방장 스님외 200여 대표단 입국
   • 환영법회를 겸한 한중 불교문화교류협회 창립을 위한 조인식
   • 중국 방문단에 한국측 봉행위 환영패 증정, 환영행사 및 만찬
2. 5월 21일 • 9시 30분 동국대학교 학술대회 (예정)
   • 14시 한국 육조제 봉행 (올림픽 공원내 올림픽홀)
   • 육조선사 건당식 (법원, 가사, 바루) / 건강식은 행사 당일 또는 익일 희망자 추천 접수, 이력서 준비 후 전화요망.
3. 5월 22일 • 부산 환영 법회
4. 5월 23일 • 부산 육조선원 개원 현판식

참여단체 및 후원단체 (무순)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사)대한불교조계종 국제불교 교류연맹,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CBS 108TV 연합불교방송, 승왕청, 법왕청, 세계불교고승연합, 대한불교범종단원로지도자연합호국국사단, 일붕신문사, 중국숭산소림사한국문화원, (사)탱화누리불교연대, 불교TV 등 다수 단체

◆ 연락처 : 종로문화원 – 전화 02)720-6363 / 팩스 02)720-6340. 011-285-680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70번지 동일빌딩 603호 (서울 종로사무소)
용 화 사 – 전화 033)761-2556 / 팩스 033)761-3200

한국 육조제 봉행위원회 위원장 석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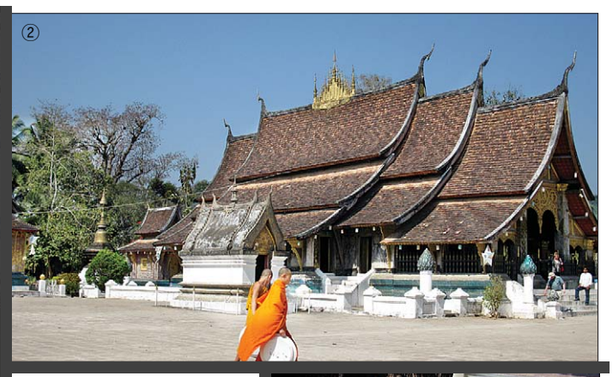


특별기고
윤소암의
미얀마 라오스 문화기행 ⑤ <끝>

사회주의로 단절된 전통문화 사원이 이어

세계문화유산 루앙프라방 보호 위해 버스·트럭 운행 '안돼'
最古 왓위수나랏 · 最大 왓씨앙통 사원 한 폭 수채화 같아











① 루앙프라방 왕궁박물관.
② 루앙프라방 왕실사원 왓씨앙통.
③ 야시장의 채식뷔페.
④ 루앙프라방의 라오스불교 전통 기술학교사원.
⑤ 루앙프라방의 새벽시장.

#지리산 닮은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

버스를 타고 1시간이 지나자 라오스 북부마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천년전부터 살아온 타이족과 최근에 정착한 흐몽족 부락으로 흙과 나무로 지었다. 전통 라오스를 체험하는 홈스테이도 가능하다고 한다. 산길을 횡단한지 5시간 만에 산간 도시 루앙프라방에 도착했다. 문경새재나 강원도 진부령, 지리산 횡단보다 험하고 좁은 길이다. 터미널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다. 루앙프라방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친환경 문화도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버스나 트럭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서양인 그룹과 큰 뚝뚝이를 타고 중심가로 이동했다.

길거리 벼룩시장에 야시장을 준비하는 노천가게가 하나둘씩 자리잡기 시작한다. 강변의 게스트하우스는 벌써 만원이다. 작고 깨끗한 목조집도 예상외로 비싸 한동안 싸고 깨끗한 숙소 찾기 씨름을 계속했다. 골목집 끝에 겨우 싱글룸을 구해 내려다보니 바로 앞집이 사원이 아닌가.

겨우 인구 3만의 루앙프라방은 옛 수도로서 고즈넉한 풍취와 우아한 자연을 갖고 있으며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에 세계 각국의 음식문화가 발달된 라오스 최고의 관광 휴양 도시다.

며칠 머무른 후의 감상이지만 이곳은 동남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화도시의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저녁에는 매콩강변을 산책했다. 낮에는 덥다가 매우 서늘하다. 강폭이 넓어서 건너편이 아득하다. 야시장을 구경하다가 한 켠에 채식 뷔페라는 깃발을 만났다. 밥과 반찬, 과일, 국수 등 20여 가지 채식음식이 일금 870원 정도, 나이먹은 서양인 여행자들이 줄지어 사 먹는다.

라오스 녹차와 라오스 커피, 면직물등을 조금 구입했다. 라오스 면직물과 실크제품은 질이 좋고 색깔이 화려하며 값 또한 저렴하다. 게스트 하우스와 호텔 주위로 사우나와 마사지 센터가 여러곳 있어 심신이 피로한 여행객들을 위로해 준다. 나도 몇 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 발마사지를 즐겨 받는다. 참고로 자유분방한 태국과 달리 라오스는 불교와 사회주의 영향으로 매춘과 마약, 음주가무 등을 엄격히 통제한다. 밤 11시 이후에는 상점, 식당의 문을 닫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2차 3차 술자리와 나이트는 허용되지 않아 재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25시 가게가 오픈돼있어 술을 사다가 방에서 먹을 수는 있다.

#루앙프라방 백배 즐기기

이 도시는 작으므로 도보나 자전거가 제격이다. 구 시가지는 큰 차량이 다니지 않아서 소음과 공해가 없는 천연 무공해 지역이다. 불란서 식민지 시절의 건축물이 남아있는데 박물관이 된 왕궁, 구 세관건물, 고급 저택, 초등학교 건물 등이다.

먼저 왓씨앙무안을 참배했다. 예쁜 화단과 꽃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 절은 몇 개의 부속사원을 거느리고 있는 절로서 유네스코와 뉴질랜드의 지원으로 1975년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단절된 라오스 전통문화의 기술을 배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금 떨어진 승려기술학교의 마당에서 20대 승려들 7~8명이 나무를 조각하거나 종각 위에서 북을 치는 모습을 봤다. 배낭에 남아있던 볼펜과 사탕을 털어서 주니까 고맙다고 연신 머리를 숙인다. 내가 한국불교의 선생이라고 했더니 반갑게 여기는 눈치다.

100여 명의 청소년 승려들이 건축과 조각, 불화, 불상 주조 등 주로 불교전통문화를 한가지씩 배운다.

루앙프라방은 양쪽에 매콩강과 칸강을 끼고 가운데 시가지가 형성돼 있어 길쭉한 구조다. 그래서 사원이 매콩강쪽과 칸강쪽에 나뉘어져 있다. 매콩강이 넓고 완만한 모양이라면 칸강은 수심이 깊고 언덕이 높은 모양새로 장엄하다. 한국에도 이런 아름다운 강변이 있을까 하고 거듭 탄성을 발하였다.

왓위수나랏은 이곳의 가장 오래된 절이다. 1531년에 창건된 이 절은 1887년 중국의 침략으로 불탔으나 10년 후 재건됐다. 15세기의 불상과 연꽃탑이 남아있다.

왓씨앙통은 루앙프라방의 대표사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1560년 세타티랏왕이 건립한 왕실사원으로 전형적인 라오스 건축의 특징을 갖고 있다. 지붕이 급경사를 이루는 크고 장엄한 형태이다. 법당 옆의 정원에서 바라보는 매콩강은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련한 추억의 한 장면 같다.

법당문과 내부는 금박으로 조각되고 생명의 나무로 모자이크돼있다. 동쪽문 안쪽에는 왕족의 납골당이 있는데 목조 나가의 왕코브라가 이끄는 거대한 반야용선이 보관돼 있고 금박벽화가 찬란한 빛을 비춘다.

그 외 왓롱쿤, 왓 씨앙마엔, 왓롬펫 사원 등이 번화가를 벗어난 곳에 자리잡고 있다.

푸씨는 작은 산언덕에 자리한 전망대 같은 곳으로 석양이 아름답다. 불탑과 왓탑푸씨 동굴사당이 있으며 왓파풋타밧유적이 있는데 14세기 파야센타이왕이 부처님의 발자국 유적에 사원을 세웠다.

건너편의 왕궁박물관은 왓씨앙통과 함께 관광코스의 압권이다. 1904년 사사방봉 왕궁으로 1959년 왕자가 계승했으나 1975년 좌파혁명으로 왕실가족이 모두 유배,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하늘로 치솟은 야자수문을 통과해 구경한 왕과 왕비의 거실 침실 접견실, 잘 보관된 도자기 그릇, 가구 유물들, 인도 캄보디아 라오스의 희귀한 불교공예, 금불상 등을 보면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라오스의 고난과 제행무상을 느끼게 했다.

서구식민지와 포탄세례, 오랜 가난에도 여기 사람들은 궁색하거나 불행해 보이지 않고 낙천적이고 여유롭게 보인다. 깊은 신앙심과 유순한 국민성 덕분일 것이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되 운명을 극복할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보인다.

저녁 벼룩시장에서 안동소주 맛과 똑같은 증류소주 라오라오맛을 봤다. 또 막걸리 비슷한 달작 지근한 술도 있어 작은 잔으로 시음했다.

#안동소주 맛과 같은 증류주 라오라오의 향기

뜨거운 기후에 샤프란 색깔의 강렬한 승복이 어울리듯이 뜨거운 날씨에 도수 40℃의 소주가 필요한가 싶었다. 그런데 해가 지면 가을 날씨처럼 일교차가 급격히 떨어지고 새벽녘에는 잠바를 걸쳐야 한다. 한기가 도는 밤중, 새벽에 소주가 혹 필요약일 것이다.

루앙프라방의 아침시장은 한번은 볼만한 명물, 왕궁박물관 뒤편으로 좌우로 펼친 길바닥시장은 없는 것이 없는 만물시장, 식량 야채 육류 생선 과일 등이 푸짐하고 이름 모를 약초와 버섯이 그득하다. 생강이 이 지역 특산물인지 국산생강의 열배나 엄청나게 커서 경탄했다. 누들쌀국수로 아침요기를 때우고 강가에 나가 배를 한번 타볼 요량이었으나 웬걸, 시간표를 보니까 단거리는 없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 며칠 걸리는 코스뿐이다. 저녁 버스로 떠나므로 맞지 않았다.

전통음악 CD를 구하려고 묻고 물어서 시내 구시장을 한바퀴 돌았으나 현대 DVD만 있을 뿐 전통음악 CD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어제 방문한 왕궁박물관에 다시 가서 비싸게 구입했다. 귀국한 후 들어보니 문명의 오염과는 거리가 먼 순수한 라오스인의 노래와 악기가 마치 범패를 듣는 듯한 느리고 화평한 음악이어서 여러 개를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선물했다.

참고로 여기에서도 동굴탐사, 코끼리트래킹, 레프팅, 홈스테이, 산악자전거 여행의 투어가 많다.

저녁 6시에 출발한 만원버스는 다음 날 새벽 4시에 중국 운남성으로 통하는 우돔싸이에 정차, 아침 8시에 국경도시 훼이싸이에 도착했다. 산길만 12시간 총 14시간의 지루한 TV의 소음에 한숨도 못 잤다. 간단한 출입관리소의 여권 비자 심사에 이어 5분 만에 태국의 치앙콩강 언덕에 배가 닿았다.

여기서 골든 삼각지는 지척, 역시 태국은 부자 냄새가 물씬나는 동네로 모든 것이 쾌적해서 여행자 천국이다.

시인, 동아시아불교문화연구소장

영천만불사 방생법회 & 팔공산 갓바위 기도회

성불하십시오. 아름다운사찰 영천만불사 용천지에서 방생법회행사와 신비한 갓바위 부처님을 뵙는 행사로 불교기업체인 한국영농조합의 후원으로 단돈 10,000에 준비 하였습니다.

최신형관광버스왕복+아침 · 점심공양+방생법회+팔공산 ₩10,000

▶출발일 및 장소 : 원하시는 날짜와 원하시는 장소에 출발가능(30명이상)
▶오전8시출발~차내에서 찰밥으로 아침식사~협찬사(30분간)~영천만불사도착~ 방생법회행사 및 사찰답사~점심공양~팔공산 갓바위
◈만불사 방생법회 코스와 에도 경주감포·충주호·동해추암.. 등 다른지역 방생행사도 가능합니다.





~불교삼사순례~

동학사 · 갑사 · 계퇴사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동학사~중식~갑사~계퇴사~도착

송광사 · 선암사 · 쌍계사



₩25,000원 매주토요일 출발
오전8시출발~차내조식~송광사~중식~선암사~쌍계사~도착

(주)SK투어 불교사업단 ☎1644-9446

해 외 WORLD

이치란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의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참가기

'더 이상 전쟁 없기를' 방콕선언 발표

유엔이 지정한 '웨삭의 날(UN Day of Vesak)' 국제대회 행사가 5월 4~6일 개최됐다. 전통적으로 남방불교권에서는 음력 4월 보름날을 '웨삭의 날'이라고 해서 부처님 탄생, 성도와 열반을 동시에 기리고 있다. 1998년 11월 스리랑카에서 열린 '국제불교총회'에서 전 세계 모든 불교도들이 함께 매년 양력 5월 보름날(음력 4월 15일)을 '웨삭의 날'로 기념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유엔에 제출, 유엔총회에서 가결됐다.

2004년부터 해마다 열린 유엔 '웨삭의 날'은 1~4회는 태국에서, 5회는 베트남에서 개최됐다. 이번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행사는 다시 태국에서 개최됐으며 77개국에서 1200여 명의 대표와 태국 국내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대규모 행사였다. 한국은 진월 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채널에서 50여 명이 참가했다.

첫날인 4일은 나콘파톰 주(州)의 붓다몬톤(Buddhamonthon) 대강당에서 태국 승가 원로회의 의장 썸뎃 프라 붓다차르야(Somder Phra Buddhacharya, President of the Executive Committe for Supreme Patriarch of Tahiland) 부(副) 승왕과 태국공주 부총리 등과 외교사절 등 5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태국 승가 부(副) 승왕의 법어와 각국 대표들의 메시지 낭독의 순으로 개회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메시지는 진월 스님이 대독했다. 이곳 붓다몬톤(불국정토)은 1957년 40 헥타르의 넓은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15.87m의 서있는 대불을 세워 웨삭의 날 행사 등 대형불교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5일 두 번째 날은 마하줄라롱컨불교대학교 캠퍼스에서 '지구촌의 위기에 대한 불교적 접근(Buddhist Approach to Global Crisis)'이란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포럼에서는 △환경위기 △경제위기 △정치적 분쟁과 평화발전을 불교적 시각으로 접근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세계불교대학연합회 워크샵(IABU) △공통불교 텍스트프로젝트 △불교 전자 정보와 네트워크로 진지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진월 스님은 환경적위기에 대한 불교적 접근 분과에서 '생태학적 이해와 10계(戒)의 실천'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으며, 총무원 사회부 홍민석 행정관은 세계 각국 불교계 대표들에게 조계종을 홍보하는데 동분서주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회 유엔 웨삭의 날' 대회에 참가한 이치란 위원.

셋째 날인 5월 6일에는 UN 방콕 센터에서 태국 총리 아비싯 베자지바(H.E. Prime Minister Abhist Vejjajiva),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총장,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유네스코와 각국 대통령 수상들의 축사 및 메시지가 낭독됐다.

폐회식에서는 각국 대표단들은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를(No more War)!'의 방콕 선언문을 통해 △윤리 · 사회적 정의 △협력과 근면 △순결함과 나눔의 가치 등을 실현할 것을 선언하고 붓다몬톤에서 세계평화기원 촛불행사를 봉행했다.

이번 웨삭의 날 국제대회는 지구촌의 환경, 경제, 정치적 위기와 평화발전에 대한 불교적 모색과 대안을 제시한 60여 명의 세계적 석학들의 두툼한 세 권의 논문집 결실의 성과를 올렸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유엔 웨삭의 날 행사는 일본과 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

중국 불교 전래 시기 진시황 때?

중국 한(漢)대에 불교가 전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통설을 깨는 학설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5월 1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陝西)성 고고학연구소의 한웨이(韓偉) 연구원은 '불교의 중국 유입시기는 진시황 시대'를 통해 "중국에 불교가 유입된 시기는 한(漢)대가 아니라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시황(秦始皇)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사마천이 지은 역사서인 <사기>의 진시황 시대 기록에 진부더스(禁不得祠)란 표현이 나온다"며 "여기서 '부더스'란 불교 사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불교의 발전사를 볼 때 인도의 아소카 왕이 기원전 4세기에 인도를 통일했고 8개 국가에 사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면서 "당시는 중국에서 전국시대 중반이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수행하듯 아픈 이웃에 의술 베풀어

선재마을의료회 10주년… 3만여 명에 자비 의료행 펼쳐

재가불자 의료단체인 '한국불교 선재마을의료회(회장 이강훈, 이하 선재마을의료회)'가 10주년을 맞이했다.

매주 일요일 서울 봉은사, 부천 석왕사, 수요일에는 서울역에서 10년 동안 3만 여 이웃에게 자비 의료행을 펼쳐온 선재마을의료회가 5월 24일 10주년 행사를 갖는다.

10년간 순수 신행활동으로 시작된 회원들에게 청진기와 주사는 죽비와 목탁이었고 진료소는 수행공간이며, 진료는 곧 법회였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정기 봉사활동 외에도 지방 사찰의 대중스님,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수해지역, 몽골, 중국 등으로 국내 · 외 순회진료까지 그들의 의료봉사활동 영역은 무한지대다.

선재마을의료회가 진료봉사를 시작한 것은 전 국민이 IMF로 실의의 나락에 빠져 있던 1999년. 80여 의사 · 간호사 · 약사들은 부처님 법 실현에 뜻을 모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이웃을 위해 강남 봉은사에서 의료보시를 시작했다. 2001년 4월에는 서울역 노숙자들을 위해 진료소를 만들고, 2003년 7월 부천 석왕사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료 진료소를 개원하는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보살펴왔다.


선재마을의료회의 지역 순회 진료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의료버스 지원으로 버스에 장착된 치과와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체어 및 초음파기, 엑스레이기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질 높은 의료봉사를 하게 됐다.

최근에는 외국인노동자 진료에 주력하고 있다. 선재마을의료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2~3차 진료를 책임지고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 탐방 진료도 계획 중이다.

순회진료를 받았던 동학사 스님은 "욕심과 독선으로 자기 밥그릇 채우기 급급한 우리 사회가 그나마 평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은 선재마을의료회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따뜻한 손길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마을 살림꾼인 여오숙 부회장은 "10여 년을 함께해온 의사선생님, 약사님, 간호사님, 일반 자원봉사자님, 학생들은 서로에게 큰 힘이 돼 주고 있다"며 "처음에는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좋은 분들을 통해 나를 키워 가는 '인생 공부'를 하고 있다. 무료 진료를 받고 만족하는 환자들의 모습을 볼 때면 감사한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02)549-1709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소년가장돕기 10년

먹거리나누기협 등 행사

국내최대 민간 먹거리나눔운동기구인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김재열, 배태진, 이경림)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와 5월 4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시행 10주년을 맞아 후원아동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충남 아산, 전남 신안, 경남 마산, 전북 익산 등 전국각지에서 모인 후원아동 135명을 비롯한 총 208명의 가족들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진 뒤 에버랜드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는 대오 스님, 김재열·배태진·이경림 공동대표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후원변호사도 참석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소년소녀가장돕기운동은 1999년 12월 첫 후원금을 전달한 이래 현재까지 참여회원 연인원 3328명, 후원아동 연인원 2273명에 이르고 있다. (02)734-5004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자비의 쌀 첫 지급

치료비 지원신청자 중 미 선정자 17명 수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5월 12일 2009년 신규 사업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치료비 지원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자비의 쌀 나누기' 전달식을 처음 진행했다.

자비의 쌀 나누기 사업은 생명나눔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20kg의 쌀 1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서 일면 스님은 "많은 분들이 성의껏 지원해 모인 금액이니 주는 분들의 성의를 봐서 감사히 받아주길 바란다"며 "빠른 시일내에 치료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다"고 환우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달식은 200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획위원회의 '자비의 손길 행사'에서 지원한 100만원과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자발적으로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으로 모은 쌀 아홉 가마(80kg)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3월부터 6월 치료비 지원신청자중 미선정자 17명이 쌀을 전달 받았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은 '4월 선정환자 지원금 전달식'도 가졌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니르바나오케스트라, 봉은사 방생모임 마야회 등과의 연대 · 특별지원, 4월 정기지원 등으로 모인 총 3240만원의 치료비를 13명의 환자에게 지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치료실 활용 협약

단양복지관 · 교육청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전해두)은 4월 29일 충청북도단양교육청(교육장 정가흥)과 치료실 공동활용 협약식을 갖고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놀이치료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단양교육청은 언어 · 놀이치료에 필요한 3000여 만원 상당의 교재 · 교구를 대여하고, 복지관은 3개의 치료실을 단양교육청의 치료교육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지군에서의 치료교육 요구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협약식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의 치료교육센터로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단양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최첨단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복지관 계절학교 운영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사회 공동 활용에 힘쓴바 있다. (043)421-2828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취 임 법 회

대한불교진각종에서는 "이웃 사회와 함께하는 참회 · 수행 그리고 회향"의 정신을 모아 제28대 혜정 통리원장 취임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불기2553(2009)년 5월 26일(화요일) 오후 2시
(행사시작 30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진선여자중 · 고등학교 내 회당기념관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13번지 Tel. 02-567-6853)
| 문의 : Tel. 02)913-0751~4(내선 113-116) Fax. 02)913-0755

대한불교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 봉행위원회에서는 축하의 뜻으로 전해주시는 화환을 대신하여 '자비의 쌀'을 모아 우리이웃의 다문화 가정과 위기가정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하여 주신 쌀은 동참자의 이름을 담아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문의 : 송파농협 하나로마트 세곡점 02)445-8123

종도모집 안 내

대한불교 선밀종

밀로서 점수하고 선으로 돈수를 하며 대중불교를 지향하는 본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중진 간부스님 및 사부대중을 모십니다

종단사업부 직원모집(대구지역)
경리, 웹디자인, 음료영업 관련업무 : 0명

식품사업부 대리점 모집
국제 / 국내 특허제품 다수 보유. 건강식품 및 음료사업 유 경험자
문의 : 053)311-2675. 2676 / 010-3134-8484

"출판 사업부"에서는 출판을 원하시는 종도스님 및 사부대중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495-1번지 (2-3층)
대 한 불 교 선 밀 종 총 무 원
전화 053)311-2677 / 010-3134-8484

"완성불교보다 대중 속에서 함께 호흡해야"

근대 불교교육 선각자 용봉 스님… 비구 · 대처 갈등에 화해 앞장서

"불교신앙 교리의 핵심인 자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행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 진정한 광명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 불교는 모든 애욕과 세간을 버린 무여열반(無餘涅槃)의 완성불교보다는 인간의 생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세속 대중 속에 뛰어들어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자세 정립이 시급합니다."

근대 불교교육의 선각자 용봉(龍峰) 대종사 금당(錦塘) 이재복 선생(1918~1991). 용봉 스님은 일생동안 불교, 교육, 문학 분야에서 빛나는 업적을 이룬 선지식이다.

1918년 충남 공주 계룡에서 출생한 스님은 생후 6개월에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보통학교와 중등교육을 받았다. 스님은 15세(1932년)에 공주 갑사에서 이혼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 후 마곡사 대승사 대원암 봉선사 금용사 등에서 보림하며 불연(佛緣)을 더했다.

18세(1935년)에 한국불교계 일본시찰단에 참여했던 용봉 스님은 21세에 불교 성극단을 조직해 일본 순회공연을 펼치는 등 불교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22세(1939년)에 박대륜 스님의 법제자가 된 용봉 스님은 혜화전문학교(現 동국대)에서 박한영 권상로 김동화 교수에게 수학했다. 24세(1941년)에는 육당 최남선 선생의 서재에 머물며 정인보, 이광수 등 석학 문호들과 교류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되던 1945년, 용봉 스님은 충남불교청년회를 조직하고 마곡사 등에서 도내 사찰 주지 및 승려대회를 통해 대전 · 충청지역 중등사학의 효시인 보문중학교 설립을 주도했다.

29세(1946년)에 보문중학교 교장 서리를 하던 스님은 이후 34년간 교육 일선에서 인재양성에 힘쓰다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장을 끝으로 입적에 들었다. 스님의 세수 74세(1991년) 되던 해였다.

용봉 스님은 대전시 교장단 회장, 충남도교육회 회장, 대한교육연합회 회장 등 교직단체의 지도자로도 활동했을 뿐 아니라, 충남지역 문학활동의 초석을 다지며 충남문인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교육을 통한 인재불사는 물론 다방면에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1950~1960년대 한국불교가 비구 · 대처간의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용봉 스님은 분규수습을 위한 불교재건 10인 위원, 비상종회 교화분과위원장 등에 선임돼 불교계의 화해와 융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매주 일요일 법회를 열어 출가자의 본분 중의 하나인 교화에도 쉼이 없었다.

용봉 스님이 평생 불교와 교육, 문학에 헌신한 결과는 20여 개의 법문(강의) 테이프, 3000여 회의 설법 자료, 시 등 문학작품 300여 점, 1만 여 매의 자료 카드 등 방대한 양으로 6월 5일 봉정될 추모전집에 오롯이 수록돼 있다.

"불교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승단 자체도 부처님 당시의 원시불교 때에는 출가자 중심이었으나 이젠 하화중생의 대승행에 앞장서는 재가불교에 역점을 둬야 합니다."

용봉 스님이 입적한지 18년이 지났다. 스님의 육성이 아직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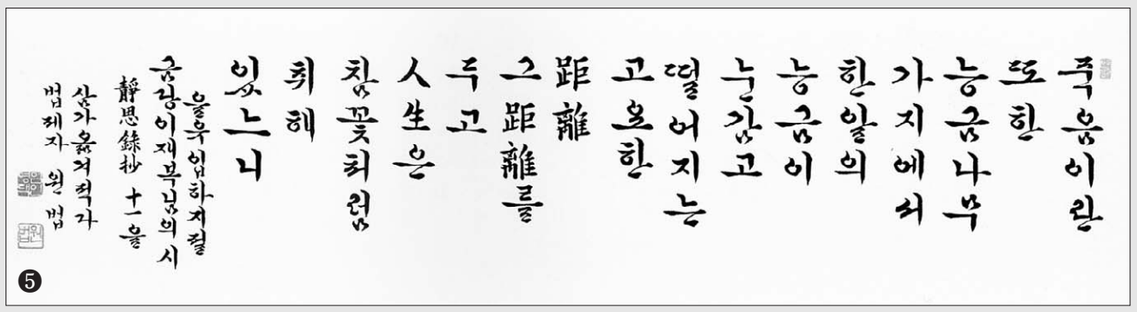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❶ 미당 서정주 선생(가운데)과 함께. 오른쪽이 용봉 스님.
❷ 역경원 부원장 시절.
❸ 일본 사찰 순례시.
❹ 부처님오신날 보문고에서 연설하고 있는 용봉 스님.
❺ 대전 보은정사 원법 스님이 쓴 용봉 스님의 문학작품. 원법 스님의 글씨는 6월 5~11일 대전 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전시된다.

"고려, 동아시아 불교 번영 선도"

불교학연구회서 최병헌 명예교수 주장

"고려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송 · 요와 불전 교류를 활발히 하며, 대장경을 조판하는 등 동북아 불교문화를 이끌었다."

10~12세기 동아시아불교사상에서 고려의 위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에서 "고려가 동아시아 불교문화의 번영을 선도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가 5월 9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최병헌 명예교수(서울대)는 기조강연 '동아시아불교사상의 고려불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명예교수는 10~12세기 불교문화 교류의 주류를 찾는데 있어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불교문화 교류와 불전의 수집간행 등에 주목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 스님은 송에 가서 황제와 황태후를 비롯한 문무대신들을 만났고, 여러 사찰을 방문해 50여 종파의 고승들과 교류했다. 요와 일본과는 직접 교류는 안했으나 서신 등 간접적으로 교류했다"고 말했다.

의천 스님은 중국 일본과의 왕성한 교류를 바탕으로 불전 간행 예정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펴냈다.

최 명예교수는 "의천 스님이 고려에서 소장하고 간행한 불교전적들을 수출함으로써 송 · 요 · 일본 등 동아시아 불교의 매개자로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최병헌 명예교수는 "송과 요 사이 불전 등 서적반출이 금지됐던 상황에서 전개된 의천 스님의 국제적인 활동은 한 · 중 · 일 삼국간의 불교교류의 중심축 역할을 한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동아시아 불교권에 대한 연구가 한국 학자들이 소외된 채 일본 학자들 주도로 진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동아시아 불교권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고 고려불교를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동섭 기자

한국명상치료학회 5차 정기학술대회 개최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5월 2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제5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명상에 기반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임승택 교수(경북대)가 '현대 심리치료의 sati 해석과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자경 교수(이화여대)가 '명상과 인지치료' △인경 스님(동방대학원대)이 '수용과 전념치료(ACT)에서의 명상작업'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영숙 교수(이화여대) 안성두 교수(금강대) 임용자 교수(대전대) 우제선 · 황옥자 교수(동국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2236-5306

조동섭 ·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학술대회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는 5월 23일 오전 10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선과 근대불교'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비구니 본공 선사와 선풍진작'(하춘생), '근대선학원의 개혁 인식 연구'(김경집), '박중빈의 불교개혁과 선사상'(김방룡), '고암 선사의 생애와 사상'(진월 스님) 등이 발표된다.

조동섭 기자

'종교와…' 학술대회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5월 22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 307호에서 '종교와 아동교육'을 주제로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종교를 통한 아동기의 올바른 인간형성 방안을 탐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여러 종교의 아동교육에 대한 주제발표와 논찬이 이어진다. (02) 2260-3835

조동섭 기자

최면사 · 퇴마사 1:1 실전교육

빙의치유
●영을 직접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업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모를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모를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교육비용 : 200만원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귀신씌인 나무의 실체」편 출연"

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

성 봉 사 최면사 ·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일주문



통일부 포럼서 남북교류 발제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 법혜 스님은 4월 28일 통일부 '상생공영포럼'에서 남북긴장 완화와 종교교류를 제안했다.



원로코미디언 배삼룡 위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아 5월 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폐렴에 걸려 2년 체납 치료비도 못내고 있는 배삼룡씨를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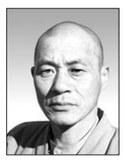
월정사 오대산 천년의 숲 걷기대회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5월 23일 9시부터 제6회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따라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생 모집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 스님은 제4기 호스피스 자원봉사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5월 26일부터 7월16일까지. (02)723-5101



'낙동강 수륙 고혼 천도 방생' 법회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5월 30일 토요일에 제2회 '낙동강 수륙 고혼천도 방생' 대법회와 산사음악회를 봉행한다. (053)616-8080



일산노인복지관 검정고시반 개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장 능인 스님은 어르신들을 위해 초등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중입검정고시 준비반을 개설한다. (031)919-8677



불교미래사회硏 박원순 초청 포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 초청으로 5월 22일 오후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강연한다. (02)725-4277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소기념세미나

동국대 불교대학 부학장 김호성 교수는 5월 23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일본불교사연구소 개소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02)2260-3123



한국위빠사나선원 이전

한국위빠사나선원장 묘원 법사는 6월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청호불교문화원 다동 3층으로 선원을 이전한다. (02)512-5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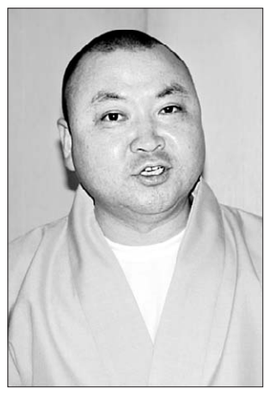


캄보디아 승왕 보좌관 임명

前 도선사 교무과장 장연수(50)씨는 캄보디아 사상 최초로 외국인 승왕 보좌관에 임명됐다. 2006년 캄보디아 은장공로훈장을 받은 바 있다.

"서산 대사 등 의승 국가적 제향 마땅"

서산 대사 선양사업 계획 밝힌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서산 대사를 비롯해 호국에 앞장섰던 5000여 순국 무명 의승의 제향은 국가적으로 거행돼야 마땅합니다."

한국불교의 중심도량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사진)은 5월 12일 인사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서산 대사 선양사업을 펼칠 계획을 밝혔다.

해남 대흥사는 서산 대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5월 22일 대흥사 일원에서 제489주기 서산대제 및 학술 공청회와 제15회 나라사랑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흥사는 서산 대사의 업적을 조명해, 호국사상을 계승 · 발전시키고자 매년 문화학술행사로 서산대제 및 나라사상 글쓰기 대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열리는 서산대제는 '서산대사의 제례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겠다'는 범각 스님의 원력에 따라 '서산대제는 국가적 제향으로 봉행돼야 한다'를 주제로 학술공청회가 준비됐다.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열리던 나라사랑글짓기 대회도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전국대회로 격상시켰다.

학술공청회에는 주제발표 '서산의 승군활동과 조선후기 추념사업(황인규 동국대 교수)'과 '서산대제의 국가적 제향으로의 전승 문제(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에 이어 종합토론에는 최연식 목포대 교수, 박희승 조계종 기획실 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공청회에는 정조 등 임금이 내린 사액제문(賜額祭文)과 대제의식 순서를 기록한 표충사향례홀기(表忠寺享禮笏記)가 최초로 공개된다.

스님은 "서산 대사가 주장자 대신 칼을 쥐고 전쟁터에 나선 것은 부모, 스승을 비롯한 일반 백성(시주)들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면서 "서산 대사가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각 스님은 "조선시대에 표충사에서 봉행하던 제향에는 왕이 직접 제문을 지어 보낼 정도로 왕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서 "서산 대사와 함께 동시대에 활약했던 이순신 장군의 제향이 전국 70여 곳에서 열리는 것과 비교해봐도 서산 대사의 제향 규모나 위상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3~24일 대흥사 특별무대에서는 전국의 50여 개 단체, 5000여 차인이 참석하는 제2회 대한민국차인대회 및 제18회 초의문화제가 열린다. (061)534-5502

조동섭 기자

"현대적인 복원 이제부터 시작"

전통 탑비 장엄양식 복원한 김경호 회장



전통 탑비(塔碑: 부도와 함께 세워지는 비석) 장엄양식이 사경(寫經) 전문가에 의해 800년만에 현대적으로 복원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47 · 사진) 회장은 최근 경기도 양주 오봉산 석굴암에서 열반한 초안(1926~ 1998) 선사 탑비 복원작업을 완료했다. 김 회장은 비문에 들어갈 글과 문양을 사경으로 복원했으며, 남은 일은 석공이 그대로 돌에 옮기기만 하면 된다.

현존하는 전통 탑비 가운데 백미는 1085년에 세워진 '법천사 지광 국사 현묘탑비'에서 볼 수 있다. 비신의 테두리와 윗부분에 극락세계를 상징한 그림과 아름다운 무늬를 담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을 거치면서 상징은 도식화됐고 1150년대 이후에는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경호 회장은 "불교가 융성했던 옛날 국사나 왕사 등의 탑비는 지금처럼 비신(碑身: 비석의 몸체)에 행장을 기록한 글만 새겨진 게 아니다"면서 "800여 년만에 전통 양식을 되살렸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제부터 현대적인 복원을 시작하겠다"고 발원했다.

이번에 김 회장이 시경한 탑비는 옛날 양식을 살렸을 뿐 아니라 <아미타경>에 표현된 극락세계를 묘사했다. 전통 비신에서 다뤄지지 않은 악기와 보수, 꽃비 등을 보완하고 가릉빈가 도상과 봉황의 위치 등을 재정립했다. 특히 인공위성, 유람선, 케이블카, 스포츠카, 노트북, 아파트, 휴대전화, 폭죽 등 현시대의 상징물까지 반영했다.

김 회장은 "조상들의 뛰어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이 시대 명품 비석의 전형 양식을 수립코자 했다"면서 "이후 건립될 선사, 율사, 강백 탑비의 전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도와주세요

생명나눔 5월 환우 한기용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2009년 '5월의 환우'로 뇌내출혈로 사지가 마비된 한기용(50 · 남)씨를 선정했다.

한씨는 고물상 한켠에 마련된 3평 남짓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대학진학을 앞둔 두 아들과 살며,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려고 피땀을 흘려 일 해왔다.

고물을 모아 근근이 생활을 연명하던 2008년 여름, 한씨는 갑자기 뇌내출혈로 쓰러지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한씨는 급히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마비로 아직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만도 1200만원.

한씨는 사지마비뿐만 아니라 마비증세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큰 괴로움을 겪고 있다. 구강과 인두 근육에 전기자극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투약을 하고 있으며, 관절 운동 및 스트레칭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씨의 두 아들은 7년 전 어머니가 가출한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실히 자라났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큰 아들은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 간병을 하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고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한씨가 다시 일어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02)734-8050 후원계좌 :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나은 기자

정우 스님, 아름다운동행에 5000만원 전달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5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 총무원장)에 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금을 비롯해 약4억10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나은기자

봉은사, 중앙승가대에 상반기 장학금 전달



서울 봉은사(주지 명진)는 5월 14일 중앙승가대에서 2009년 상반기 장학금 6870만원을 전달했다. 봉은사는 2007년부터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에게 매년 1억5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조동섭기자

중앙승가대 총동문회 한라산 등반



중앙승가대 총동문회(회장 정념)는 5월 4~6일 한라산 등반 모임을 가졌다.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승가대 동문들이 단합된 도움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조동섭기자

'동성 스님 선화 표현전' 뉴욕서 열려



5월 10일 뉴욕 플러싱센터에서 '동성 스님 동글고 밝은 빛 선화 표현전'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동부승가회 회장 도범 스님, 뉴욕불교사원연합회 회장원영 스님 등 미동부지역 스님 500여 명이 동참했다. 조동섭기자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어버이날 경로잔치



대전 서구노인복지관(관장 장곡)은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이해 5월 7일 경로잔치를 봉행했다. 가기산 서구청장, 대한노인회 권병기 지회장, 이재선 국회의원 등을 비롯해 400여 어르신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제 47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 일 시 : 불기 2553년 6월 6일(토) 14:00 ~ 7일(일) 13:30 (1박 2일)
▶ 장 소 : 속리산 유스타운(충북 보은 소재) / 예상인원 : 600명
▶ 참가비 :

구분	미리접수	당일접수	학인 스님, 포교사 등	제주도, 군종병	해외 거주자
회비 (원)	60,000	70,000	40,000	30,000	무 료

※ 기타 다양한 할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강의내용

강의 1 신나는 율동
강의 2 마음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강의 3 나누는 기쁨
강의 4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1
A반 - 경력 4~5년 이상 (분반수업)
B반 - 경력 2~3년 이하
강의 5 모닥불 놀이와 촛불발원
강의 6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주의집중게임
강의 7 나누는 기쁨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 2
마음을 나누는 조별프로그램
1. 세줄다리기
2. 오자미던지기
3. 긴줄넘기
4. 조별 복불복
불교학교 프로그램
5. 요요꾸미기-법륜돌리기
6. 핀,브로치 만들기-사랑나누기
7. 부채꾸미기-바람,공기나누기
8. 대장경 인경-진리나누기
9. 풍경만들기-행복한 소리나누기
수행 프로그램
10. 자비명상
11. 부모은중경 독경 -부모님께 상장쓰기
30분 강의
12. 자연을 나눠요
강의 8 찬불가 율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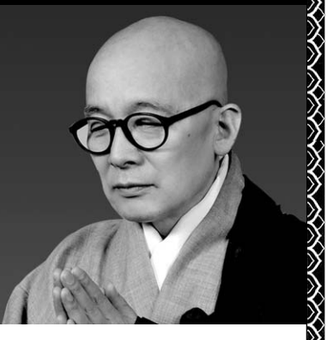
사단법인 동련
WWW.DONGRYUN.NET
문의(051)864-4569~70
FAX(051)864-4665

낙태.유산 무보시 동참 위령재

아가야! 미안하다...
세상몰라 저지른 일~~~
지금 참회합니다.

10,800원의 행복 (참회와 가벼움)
- 이행사는 10년만에 하는 단 한 번의 특별행사입니다. 꼭 동참 하세요.

당 사찰은 10년간 낙태, 유산된 태아의 슬픈 넋을 위로 하기위해 매년 4회 이상 49재 형식으로 위령제를 봉행 해오던 곳입니다. 2009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생명경시에 대한 경종과 참회의 계기와 낙태유산 경험자의 마음의 무거운 빚을 덜어 드리고저 특별행사를 마련케 되었습니다. 1번의 참회에 100원의 정성으로 108번 참회를 통하여 10,800원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신 분은 무보시도 가능합니다) 이 행사는 그간 금전적인 시간적인 이유로 못한 분을 위해 전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자비의 정신, 불살생의 정신, 실천의 정신을 기리며...
벽운사 주지 지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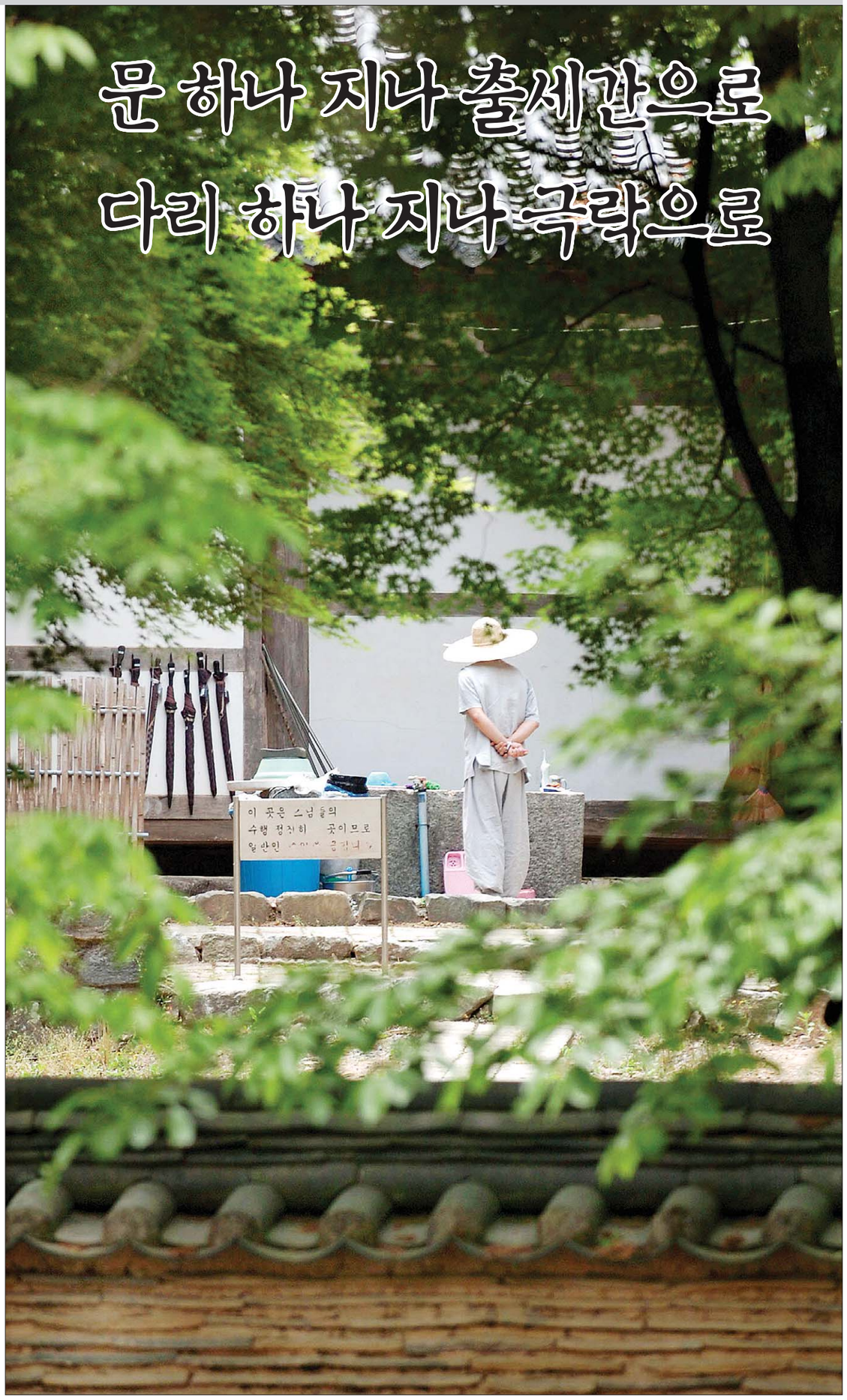


초종교적 위령재 봉행
▶대 상 : 낙태 · 유산 경험자 남녀 종교불문(타종교도 존중합니다)
▶형 식 : 49재 천도의식(우리말 대중형식으로 스님들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준비물 : 1번 참회에 100원 108참회=10800원뿐 / 분유, 배냇저고리, 장난감 등(위령제 후 전국 미혼모 시설 등에 전량 기부)
▶일 정 : 입재_ 2009년 5월 6일 오전 10시 30분, 회향_ 2009년 6월 24일
▶신 청 : 전화 및 내방,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산건봉사포교원 벽운사 www.bwjisan.com ☎02)979-0108, 02)971-1544



극락 속의 마곡사



해탈문을 지난다.
'문(門)' 하나를 지나는 것으로 출세간(出世間)이다.
이어 선 천왕문을 지나 명부전이다.
돌담의 기와 사이로 노란 들꽃이 피어나고,
지장보살 앞에 선 백발의 할머니는 조용히 절을 한다.
마곡사다.

극락교를 건넌다.
'다리(橋)' 하나를 건너 극락으로 간다.
대광보전 빛바랜 단청이 봄 햇살에 드러나고, 예불 준비하는 행자는 종종 걸음으로 법당에 든다.
비로자나불 손가락 끝에는 단단한 행자의 눈빛이 걸리고, 중생 닮은 석탑은 예불소리 맞춰 합장한다.

건너왔던 극락교를 다시 건너간다.
다시 극락이다.
몇 걸음도 안 되는 다리 하나가 시방(十方)을 모두 극락으로 만들고,
배고픈 청솔모 한 마리는 극락으로 내려와 고픈 배를 채운다.

선원 마당에 스님들이 모여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다.
한 스님은 다른 스님의 발끝을 보면서 웃고,
발끝을 밟힌 스님은 발끝의 시선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웃고,
뒷짐 진 스님은 법당 앞의 석탑처럼 홀로 남는다.
불어온 바람이 담장 위에 꽃씨를 뿌리고 지나간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마곡사는…
643년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는 설도 있고, 840년 체징 스님이 창건했다고도 전한다. 창건 이후에는 847년 사굴산문의 개창자인 범일 스님, 고려의 도선, 지눌, 조선 시대의 각순 스님 등에 의해 중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곡사 창건 이후 가람은 그 역사에 있어 희지천을 사이에 두고 교화 가람 지역과 수행 가람 지역, 즉 북원과 남원으로 나뉜 특징을 가지며, 선교 양종 대본산으로서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만수무강하세요”

통도사 자비원 · 대광명사 등서 다채로운 보은 행사 이어져

5월 8일 제37회 어버이날을 맞아 부산 · 경남지역 사찰 및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버이날의 뜻을 되새기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졌다.

대광명사(주지 목종)는 5월 11일 오후 2시 극락보전에서 경로잔치 한마당을 열고, 신도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위해 흥겨운 잔치를 마련했다. 엄옥자 경기민요연구소의 민요공연, 해운대달맞이민속보존회 사물놀이 공연, 고전무용, 대광명사 합장단 공연, 신도 가요메들리, 주지 목종 스님의 노래선물 등으로 2시간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주지 목종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외롭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아 잠시나마 위안을 드리고자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잔치를 개최했다”며 “현재 대광명사 부설기관인 참마음노인방문요양센터의 독거노인 돕기 사업과 더불어 사회적인 효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5월 8~9일 양일간 제6회 용호장승축제의 일환으로 장수잔치 및 어르신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첫날 오후 1시 장승제를 시작으로 제9회 장수잔치에서는 지역 내 칠순, 팔순, 구순을 맞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흥겨운 잔치한마당을 벌였다. 둘째 날에는 제14회 어르신 효 큰잔치를 마련하는 등 이틀간 주민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사)통도사 자비원(대표 정우)은 5월 8일 오전 11시부터 어버이날 기념식을 갖고, 점심공양 및 경로잔치를 벌였다. 경로잔치는 통도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들의 재롱잔치, 풍물패, 학춤, 각설이 타령, 인기 가수 공연, 직원 장기자랑, 어르신 노래자랑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오근섭 양산시장, 후원자, 봉사자 및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불교계에서 어버이날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의 공양, 용호복지관의 칠순 팔순 구순 어르신께 큰 절 올리기, 대광명사의 경로잔치 한마당 모습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범산)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5월 7일 제1회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오전 10시부터 길놀이, 경로잔치, 축하공연, 점심공양 등 신명나는 놀이마당이 펼쳐졌다.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관장 혜총)는 5월 7일 오전 11시부터 제14회 사랑의 효 큰잔치를 열었다.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축하공연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지하철서 만나는 ‘나를 찾는 지혜’

풍경소리부산경남지부 창립 10주년 전시

부처님 가르침을 작가의 글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전하는 포교매체 (사)풍경소리부산경남지부(대표)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산지하철 및 기차역에서 대대적인 전시회를 마련한다.

이번 전시회는 부산경남의 공공장소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문화 포교 행사라는 의미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기극복의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더욱 뜻 깊다.

출품작은 지난 10년간 풍경소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님께 명상의 시간을 드립니다’와 ‘나를 찾는 지혜’라는 주제로 발행한 포스터들 가운데 선정해 특별 전시된다.

부산지하철은 4월 20~26일 동래역(1호선)을 시작으로 27일~5월 3일 중앙동역(1호선), 4~10일 괴정역(1호선), 11~17일 못골역(2호선), 18~24일 호포역(2호선), 25~31일 수정역(2호선), 6월 1~14일 개금역(2호선), 15~28일 미남역(3호선), 29일~7월 5일 거제역(3호선), 6~19일 동백역(2호선), 20일~8월 2일 남양산역(2호선), 3~16일 양산역(2호선), 17~30일 남천역(2호선)에서 1~2주간 릴레이 전시된다.

부산 · 경남 기차역은 6월 15~21일 울산역, 22~28일 구포역, 29일~7월 5일 화명역, 6~12일 삼랑진역에서 각각 1주씩 마련된다.

박지원 기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 디딤돌 되기를”

혜원정사 6월 13~14일 혜원문화축제 개최

신록이 짙어가는 6월의 한여름 밤, 산사에서 신명나는 희망의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혜원정사(주지 원허)는 6월 13~14일 양일간 혜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나누는 기쁨, 하나 된 축제’를 슬로건으로 제12회 혜원 백일장을 비롯해 성우원생과 함께하는 피자파티, 차 문화 체험 행사,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혜원음악회까지 예년에 비해 문화와 나눔의 양과 질 모두 풍성해졌다.

제12회 혜원 백일장은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혜원정사 만불전 및 예식장 강당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전국 초 · 중 · 고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여하는 대상과 부산광역시장상, 부산시교육감상 등을 시상한다.



혜원문화축제가 6월 13~14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혜원 백일장 모습.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혜원정사 육화전에서는 성우원 원생을 초청해 피자 파티 및 법회, 율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4일 오전 10시부터 혜원정사 경내 일원에서 다인회 초청 차 문화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차밭 견학 및 차 따기, 차 덖음 시연, 각 다인회별 차 시연회, 조선 · 신라 · 고려시대별 다례 시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오후 6시부터 제8회 혜원음악회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1부 혜원합창단 공연 및 선재어린이집 재롱잔치를 시작으로 2부에는 인기가수 박현빈, 정수라, 그룹 캔 등이 출연해 혜원문화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주지 원허 스님은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의 상처가 치유되려면 우리가 그들을 보듬어 줘야하는데, 이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회향하는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번 축제 때 울려 퍼질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는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 존자

‘부산 푸루나’ 김진성 회장

“청소년들 불교와 친해질 방법 찾고파”

“교장선생님께서는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중에 어느 그룹이 더 좋으세요?” “둘 다는 안 되죠? 소녀시대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허허허.”

매주 월요일 전교 조례시간이면 어김없이 단상에 올라 땡볕 아래서 전교생을 잠재우던 근엄하고 무서운 교장선생님이 아니다. 생기발랄한 여고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바르게 키우는 친근한 아빠 같은 이분은 바로 학산여자고등학교장이자 교육경영인불자회 ‘부산 푸루나’ 김진성 회장(사진)이다.



30년쯤 거슬러 올라간 1978년 동아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줄곧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지도한 김진성 회장은 지금까지 키워낸 제자만도 2000여 명에 이른다. 30년 경력의 ‘교육베테랑’답게 넉넉한 미소에서 아버지와 같은 자상한 리더십이 묻어나온다.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때와 많이 달라요. 대중문화를 접하는 나이가 빨라지다 보니 저마다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한 편이죠. 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년 전 김진성 회장과 같은 고민을 안은 교육 관리자 및 전문직 불자들이 모여 ‘부산 푸루나’를 창단했다. ‘푸루나’란 설법존자라 불리는 ‘부루나 존자’에서 따온 이름으로 정년퇴임한 불자 교장들이 교단에서 쌓은 교육애와 불심을 바탕으로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2007년 6월 1일 서울에서 창립해 현재 부산, 인천 등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청소년 포교의 비전과 불교교육정책 제시, 불교자료집 개발 등에 나서고 있으며, 그가 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지부는 등록회원만 18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부산의 교육전문직인 교장, 교감선생님들을 비롯해 교육관리직에 종사하는 장학사와 장학관님들이 180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2개월마다 짝수 달에는 부산시내 주요사찰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홀수 달에는 임원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시면 좋겠지요.”

학산여자고등학교의 교훈은 ‘성실’ ‘현숙’ ‘자비’로 이 여섯 글자 안에는 “남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며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 참된 지혜를 연구하고 행해 마음을 밝히라”고 했던 스님이셨던 선친의 교육 원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불교’하면 할머니 종교, 혹은 어려운 종교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불교는 자기성찰의 종교이다 보니 다른 종교에 비해 대외활동이나 포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극적인 편이어서 청소년을 가르치는 불자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아쉽죠.”

그래서 김진성 교장은 학교 내 파라미타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교내에 부처님을 모신 법당도 늘 개방하고 있다. 물론 성서연구반도 운영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원하는 종교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어떠한 종교든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열린 방침 덕분이다.

“불교는 일찍 만날수록 좋습니다. 불교와 절로 어린이 · 청소년들이 친숙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무언가가 절실합니다. 그걸 찾으면서 제 남은 생을 회향하고 싶습니다.”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세상의 모든 부모가 내 부모인 것을…

고창복지관 · 송광정심원 어버이날 잔치 '풍성'

어버이날을 맞아 전북지역 교계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가 잇따라 열렸다.

고창군노인복지관(운영위원장 법만 · 선운사 주지)은 5월 6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이하 예총) 고창지부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마련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하루를 제공했다.

'복운 예술문화사랑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여진 이날 행사는 고창군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박현규 고창군의회의장, 한국예총 고창지부 박세근 회장을 비롯해 500여 지역 어르신이 참석했다,

탈놀이, 톱 연주, 판소리, 국악공연 등 전통공연과 가요, 품바공연, 노래자랑 등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노인인권 침해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연극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공연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 관장 무공스님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오신 어버이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복지관 직원들이 자식의 입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 소양면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송광정심원(이사장 도영 · 원장 우용호)은 5월 8일 시설 내 문화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정심원 가족, 완산벌 연예 자원봉사단 조계준 단장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부모님의 은혜와 감사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을 담은 이날 행사에서는 정심원에서 생활중인 생활인 230명 가운데 60세 이상 어르신 60여 명에게 정심원 가족들이 일일이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원생들의 흥겨운 장기자랑, 다과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도영 스님은 "효의 실천은 인간성 회복의 길이고, 인간성숙의 길이고 인간완성 성불의 길임을 깨우쳐야 하며 남의 부모를 자기부모 같이 봐야 참 보살"이라며 "정심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버이들을 살아있는 부처님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성심껏 보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심원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30명이 생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송광정심원(위), 고창복지관(아래)에서 열린 어버이날 행사.

"인재양성에 불교 미래 있어"

증심사 대원장학회 24명에 장학금

광주 지역 한 전통사찰이 지역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의 대표적 사찰인 증심사(주지 지장)는 5월 2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불교인재 24명에게 장학금 1500만원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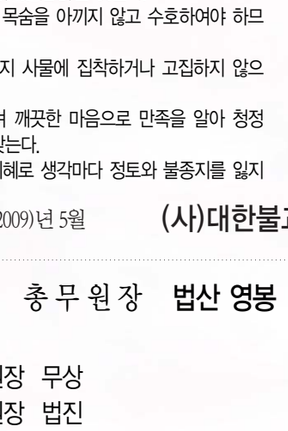
장학금을 받은 불자학생들이 학업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지역인재를 돕기 위해 증심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대원장학회는 지역인재 및 불교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08년 9월 이사장에 지장 스님, 이사로 진화 스님(前 증심사 주지), 강원영 거사림회 회장, 오을임 조선대 교수, 이종남 증심사신도회장 등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교육불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불교계는 많은 인재양성을 해야 불교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학금을 받은 대불련 광주지부장 오경민(조선대 3학년)군을 비롯한 대학생 10명에게는 각 100만원, 이지은(동아여고 3학년)양 등 고등학생 9명에게는 각각 50만원, 문정인(종립 정광중 3)군을 비롯한 중학생에겐 장학금 10만원씩이 전달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봉행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원행)는 5월 13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3년 기축년 하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일원 스님은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계본으로 십중대계와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정진할 것을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법회에는 100여 스님이 동참했으며 남원 실상사에서는 30여 명의 스님이 별도로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민중항쟁 희생자 넋 기려

5·18추모 법회 ·음악회

광주 지역 불교계가 제29주기 5 · 18 민중항쟁을 기념해 다양한 추모행사를 열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5월 16일 광주 원각사 앞마당에서 5 · 18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포교사단, 자비신행회, 육화포럼, 등 지역불교계가 동참하는 법회에는 김효석 오월의빛 이사장의 추모강연과 이화실내악단 등의 추모문화제가 펼쳐졌다. 법회에 이어서는 원각사를 출발해 금남로, 舊 도청까지 추모 제등행진이 이어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은 17일 '제2회 망월동구묘역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2009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광주 선덕사 주지 행법 스님과 조연옥 시인의 시낭송 등이 펼쳐졌다. 조동섭 기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손은순씨 효부상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지역 불자가 큰 효행으로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효부상을 수상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광주 무각사 신도인 손은순(54 · 사진) 불자. 손은순 불자는 5월 8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국무총리를 대신한 광주광역시 박광태 시장으로부터 '효부상'을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 생명나눔광주전남지역본부 주명오 사무국장

"장기 후원 확보로 재원 만들 것"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다시한번 전국민의 주목을 받은 단체가 있다. 바로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일면)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기도 한 생명나눔실천회는 빛고을 광주에서도 널리 알려진 단체다.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활동 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생명나눔의 중심에서 실무팀을 이끄는 이가 주명오 사무국장(사진)이다.



광주생명나눔은 1998년 영조스님을 초대 본부장으로 창립돼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민간단체 보조공모사업 27곳에 선정돼 백혈병 환자 치료비 지원, 장기기증 및 혈소판 헌혈공여사업, 헌혈은행 등 복지사업 등을 전개해 왔다. 2003년, 2004년, 2007년, 2008년 광주광역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우수시민단체상을 비롯해 2005 광주MBC 희망대상 우수상, 전남대 올해의 후원단체상을 연이어 수상한 광주의 우수 시민단체이기도 하다.

또한 매년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음악회와 캠페인, 생명나눔의 집을 개설해 어려운 이웃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사상을 전하는 전법단체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4대 본부장 현지 스님(원효사 주지) 취임으로 한단계 재도약하는 계기를 마련중이다.

주명오 국장은 새로운 광주생명나눔을 만드는 큰 책무를 갖고 지난 3월 업무를 시작했다.

주 국장이 부임한 후로 광주생명나눔 사무실과 활동에는 작은 변화들이 있었다. 사무실 환경 개선과 후원자 확보가 그것.

"향후 기업과 단체 후원자 모집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단체의 기부금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자 모집과 다양화는 일반 시민사회단체의 숙원사업에 해당한다. 광주생명나눔이 어렵지 않게 후원자 모집을 확장하는 비결은 주 국장의 폭넓은 인맥과 사회활동 때문이다.

주명오 국장은 공무원과 교직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행정통이다. 특히 광주대 교직원 노동조합 위원장까지 지내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삭발투쟁을 하며 살아왔다. 그가 힘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의 삶으로 변화한 것은 바로 불교와의 만남이다.

"원래 어려서부터 어머님과 할머니가 절에 다니시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어른이 돼 스님들의 수행하는 과정과 세상을 바라보는 불교의 가치관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야말로 '절사람'이 됐지요."

주명오 국장은 "캠페인의 다양화, 홍보도구의 부족, 홍보의 새 아이템 개발, 나눔의집 추가 개설, 자원봉사자 교육 등 아직도 광주생명나눔이 가야할 길은 많이 남았습니다."

광주생명나눔은 주 국장의 리더십에 따라 캠페인을 위한 홍보동영상과 책자가 제작중이며, 나눔의 집도 5곳이나 추가 개설되고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 아카데미'도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생명나눔의 지난 10년의 알찬 내용들을 더욱 보강해, 앞으로 10년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설립 10년차를 맞은 광주생명나눔의 주명오 국장의 각오에서 올곧은 불교활동가의 모습을 발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불자의 기도방법



종정 무학 송천

1)부처님을 생각하고
2)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3)승가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잘못된 나의 업장을 소멸하게하여 주십시오.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업을 기도로 소멸코자 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제불보살님께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자신의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팔부신장과 제석천왕이 가피를 베풀어 발원을 이루어 준다.

예불할 때 준수해야 될 10가지 정성스런 마음

1)모든 중생에게 대자대비한 마음을 항상 일으켜 손해를 더하지 않고 안락을 주는 마음으로 무손해심(無損解心)을 갖는다.
2)신심이 안정되어 중생에게 대비의 마음을 일으켜 번뇌하는 사람의 고통을 구제하여 주는 마음으로 무핍뇌심(無逼惱心)을 갖는다.
3)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법을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수호하여야 하므로 낙수호심(樂守護心)을 갖는다.
4)지혜로 모든 법을 관찰하여 한 가지 사물에 집착하거나 고집하지 않으므로 무집착심(無執着心)을 갖는다.
5)세간에 섞여도 물든 법에서 떠나며 깨끗한 마음으로 만족을 알아 청정한 마음이니 기정의심(氣淨義心)을 갖는다.
6)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며 모든 지혜로 생각마다 정토와 불종지를 잃지 않음으로 무망실심(無妄實心)을 갖는다.
7)일체 중생을 공경하고 자만심을 내지 않으니 무하열심(無下悅心)을 갖는다.
8)세상 사람들의 말에 집착하지 않고 무상보리도를 바르게 믿어 유혹됨이 없는 안정된 마음이니 생결정심(生結淨心)을 갖는다. 9)갖가지 선근의 마음을 일으키며 일체 번뇌와 잡념을 떠나게 하니 무잡념심(無雜念心)을 갖는다.
10)부처님의 상호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이 무념의 상태에서 부처님을 염(念)하니 기수염심(旣隨念心)을 갖는다. 요컨대 염불이란 아미타불의 이름을 입으로 소리내어 부르고 혹은 마음 속으로 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염불은 부처님의 서원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바르고 결정적인 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염불수행을 열심히 하여 공덕을 쌓으면 반드시 극락정토에 나게 된다. 염불공덕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무한한 공덕을 짓고 자기죄업을 없애는 길인 것입니다. 불자들이여,부지런히 자기수행을 통해서 최고의 인격을 갖춘 자각(自覺)된 자기완성을 이뤄야 됩니다.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사람이 사람되게 함이요 자기를 자기답게 이루는 참 자아(自我)를 찾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불은 한 나무 가지에서 나온 것입니다.기도도 예불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가장 순수하고 가장 정성스런 마음인 순일무잡(純一無雜) 해야 됩니다. 모든 이가 일시에 해탈성불하고 모든 나라가 불국정토가 되는 날까지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합시다.

불기2553(2009)년 5월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종 정 무학 송천 총무원장 법산 영봉

대 승 정 덕인
승정원장 무중 승정부원장 무상
원로원장 월서 원로부원장 법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부의장 학성, 학철
중앙종회 사무총장 현우 사정원장 법천 포교원장 학산
포교부원장 학동 교육원장 법성 복지원장 법영
문화원장 덕일 문화부원장 보성 수선원장 도공
고시원장 법일 비구니원장 효경 지명 비구니부원장 정명, 정연
종정예하 예경실장 학림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행

교구원장
1. 서울교구원장 : 서원암 반야지 2.부산교구원장 : 반야사 일도
3.대구교구원장 : 범룡사 정산 4.울산교구원장 : 도성암 덕일
5.대전교구원장 : 원광사 정인 6.강원교구원장 : 지명정사 지명
7.경기교구원장 : 홍련암 홍련 8.충북교구원장 : 관음사 정명
9.충남교구원장 : 구암사 무중 10.전북교구원장 : 삼불사 정안
11.경북교구원장 : 정암사 정암 12.경남교구원장 : 금강암 정행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단은 정부로부터 서기 2007년 1월 29일자로 종교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받은 종단으로써,법인등록 고유번호는 [314-82-12041]이며, 종교법인으로 활동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종단임을 자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전국에 승려, 법사, 창건주, 재가불자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호,전법하며 본 종단 각종 행사에 적극 협조 할 수 있는 애종심(愛宗心)을 갖고 계신 분을 찾습니다.

1. 입종자격 : * 사찰을 운영하시는 참신한 승려, 법사, 포교사, 창건주, 불가에 뜻이 있는 분
* 불교대학교 또는 일반대학교 졸업자는 본 종에서 특별대우로 입종함
2. 구비서류 : 법복(가사 + 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자필 이력서 1통
3. 교부서류 : 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 승려증, 법사증, 본 종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 년말 기부증서
(승려로써 출가를 원하는 분은 소정의 서류심사와 총무원장의 인가에 의해서 출가가 가능합니다)

■ 총본산(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 (일성사) ■ 문의전화 : 042) 935-2279, 524-2149, 011-406-8538

(사)대한불교 금강종 법인 이사장 겸 총무원장 법산 영봉

'참회 수행 회향' 종단 운영 키워드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 5월 26일 취임

지난 4월 진각종 제28대 통리원장에 선출된 혜정 정사가 종단 운영의 키워드로 참회와 수행, 회향을 제시했다.

5월 26일 취임을 앞둔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11일 서울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 이원, 심인, 삼밀수행으로 이어지는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지혜를 참회와 수행, 회향의 문화로 대중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혜정 정사.

신행의 바탕이 되는 참회는 창종시기 참회원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혜정 통리원장은 "참회는 연기 인과의 자성적 실천을 뜻한다"며 "불교적 예(禮)의 가치를 대중화하는 공존과 화합, 상생문화의 사회적 시작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수행은 삼밀의 실천이다. '내 것'이라는 정신과 물질을 나누는 희사(喜捨)와 신(身) 구(口) 의(意) 행위를 바르게 하는 삼밀(三密)의 실천법을 통해 자주 자립과 통일의 염원하게 된다.

혜정 신임 원장은 "수행을 통해 수행과 삶이 하나된 종단 정체성, 수행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회향은 희사 정신의 사회화다.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바램 없는 자비실천이 회향"이라며 "진각복지 실천을 통해 나눔의 문화를 생성해 이웃과 함께하는 종단문화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참회와 수행, 회향의 중점 키워드는 수행과 포교, 복지 등 분야별 다양한 종책으로 이어졌다.

혜정 원장은 종단 수행 체계의 학제간 연구를 시도하는 한편, 종단 내 교법을 정비해 각 교구청에서 분기별 1회 이상 법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행의 대중화도 혜정 통리원장이 중점적으로 챙기는 부분이다.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수행자의 근기와 환경을 감안해 수행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즐기는 수행법의 체계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나눔과 회향의 실천을 위한 복지는 △지역복지 △문화복지 △민족복지의 3개 중점영역으로 나눠 통합적인 불교복지의 장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복지재단의 업무를 세분화해 열린 복지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복안도 소개됐다.

혜정 통리원장은 "7~8월 경 21세기형 혜민서 기능의 '진각혜민서'를 개원하게 된다"며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진각혜민서가 개원하면 한국불교사회복지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 강조했다.

포교 강화를 위해 혜정 신임 통리원장은 (가칭)교화전법위원회를 설치해 포교기법을 연구 · 체계화하고 전국 심인당의 홍보까지 힘쓸 예정이다.

또 2010년 완공 예정인 진각문화전승원에서는 회당 대종사의 유물전시실을 마련하고, 특수한 진언 수행처를 제공하는 한편, 국제 템플스테이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혜정 통리원장은 "종단의 혁신과 종책에 대한 고민은 종단 발전의 도모와 새로운 비전을 담는 과정"이라며 "승단의 화합과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하고, 신교도의 수행과 문화를 공유 · 확장해 교화와 포교로 사회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혜정 신임 원장이 강조하는 것은 공심(公心)이다.

"종단의 혁신은 개인적인 원(願)을 합의를 통해 집단의 원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개인적인 원들은 가장 마지막에 더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중 이웃사회와 함께하는 참회와 수행, 그리고 회향의 문화를 이뤄 분별 없는 상생의 삶을 이끌겠습니다."

한편, 제28대 통리원장 혜정 정사의 취임법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진선여중 · 고내 회당기념관에서 봉행된다. (02)913-0751 조동섭 기자

만공 스님 홍가사 수덕사로 '귀향'

태고종 백운 스님 기증

근현대 한국 선종의 거인 만공(滿空, 1871~1946) 대선사가 수하던 가사가 덕숭총림 수덕사로 돌아왔다.

하안거 결제 다음 날인 5월 10일, 수덕사 대웅전에서는 만공 스님의 가사 기증식이 열렸다.

기증자인 태고종 강원교구 종무원장 백운 스님(춘천 석왕사 주지)은 은사인 동산(東山, 1914~2009) 스님으로부터 1995년 만공 스님의 홍가사를 받아 소장해오다 이날 수덕사에 가사를 전달했다.


기증자인 백운 스님(오른쪽)과 설정 스님이 만공 스님이 생전에 수한 17조 홍가사를 펼쳐보이고 있다.

기증된 가사는 일월광과 사천왕이 박음질된 17조 홍가사로, 만공 스님으로부터 받은 동산 스님이 그 상좌인 백운 스님에 전한 것이다. 동산 스님은 만공 스님의 법제자인 보월 스님의 전법제자로 덕숭산 정혜사 주지소임을 볼 때 만공 스님을 직접 모시고 살았으며 이때 가사를 전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수덕사 근역성보관 관장 정암 스님은 일월광을 새긴 금빛 연경사와 가사 재질로 볼 때 1930~1940년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백운 스님은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한 만공 스님의 가사가 덕숭산으로 돌아가 광대무변한 선풍을 드날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동산 스님의 49재를 앞두고 이렇게 기증증식을 갖게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에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은 "만공 선사의 가사가 덕숭산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본귀환처(本歸還處)'와 같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환영했다.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도 "고이 간직한 만공 스님의 가사를 수덕사로 돌려준 의미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증된 가사는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인수했으며, 전시설비를 마치는대로 관람객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근역성보관에는 수하지는 않고 간직했던 것으로 전해지는 만공 스님의 25조 금란가사가 전시돼 있다. 김성우 기자

봉서사서 영산대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5월 27일 오전 10시 전북 완주군 용진면 봉서사(주지 월해)에서 호국삼천불 이운, 개금점안과 국가 경제난 극복 기원을 위한 영산대재를 봉행한다.

태고종은 이날 서울 성북동 태고사에 있던 삼천불상을 봉서사로 이운하고, 불상에 금칠을 다시해 안치하는 개금 점안의식과 국가적 경제난 극복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거행한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각 사찰 주지 스님, 신도 등 3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인 이번 행사는 지난 2007년 독도, 지난해 통영에 이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의 국토순례 대장정 세번째 기획으로 마련됐다. 태고종은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활발한 국내외 공연을 펼치고 있다. (063)244-3053 김성우 기자

불승종 창종주 설송 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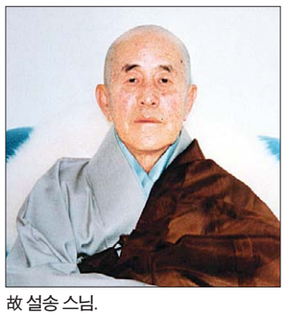
5월 17일 현불사서 다비식… 김대중 前 대통령 등 정치인과 인연

"오고 가는 것은 꿈과 같고(乃往過去只在夢)/ 인생 한 번 오는 것이 꽃 한번 피고 지는 것과 같구나(人生都是如花開)/ 내 본분은 본래 스님이 아니던가(我而本分僧伽焉)/ 돌아갈 곳 어디메뇨, 중생의 마음속 아니더냐(歸去何處衆生裏)."

대한불교불승종 창종주인 설송(雪松) 스님이 5월 9일 오후 6시 30분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현불사 설법전에서 입적하며 이러한 열반송을 남겼다. 향년 91세.

'불승종 장례위원회'는 "5월 17일 오전 8시 현불사 자비전에서 영결식을 봉행하고 오전 9시 발인 후 오전 10시에 다비식을 봉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918년 11월 20일 경치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에서 태어난 설송 스님은 1963년, 설악산에서 입산 수도를 시작했다. 2년 뒤인 1965년 음력 11월 초엿새 수원 일광사에서 <법화경>의 묘법실상(妙法實相)을 깨닫고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얻었다고 불승종은 밝혔다.


故 설송 스님.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이 도(道)의 시작이며/ 얻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도의 끝이니라. 내가 비로소 하늘과 땅 이치의 문을 열었으니/ 나는 마땅히 묘한 진리의 실상을 열어서 보여주겠노라."

이러한 오도(悟道) 체험을 바탕으로 설송 스님은 평소 <법화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당부했다.

"<법화경>에는 세상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금강경>이 불법의 '씨앗'이고, <화엄경>이 김매고 가꾸는 것이라면 <법화경>은 불법을 '추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화경> 28품을 28년 동안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묘(妙)의 변화를 좀 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더 덜어주는 것이 불자의 도리이므로 이 경을 설하는 것입니다."

설송 스님이 평생 <법화경>의 일승(一乘) 묘법을 설하자,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도 늘어나 미국 버지니아주 마아샬 구곡사를 비롯해 국내외에 25개 선원이 생겼다.

이런 가운데 일반인, 특히 정치인들이 스님의 법력(法力)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했다.

현불사가 결정적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김대중 前 대통령의 방문이 계기가 됐다. 김 前 대통령은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기 1년전인 1996년, 태백산 자락의 심심산골에 숨어있는 현불사를 방문했다. 현재 경내에는 그때의 기록을 적은 '김대중 대통령 방문 비석'이 서있는데, 내용은 '김 前 대통령이 방문하던 날, 보탑에 오색 빛이 발했으며 이는 대통령 당선을 예지한 것이었다'는 내용이다. 설송 스님은 이날 방문 이전부터 김 前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현불사를 찾아오기도 했다. 1983년 창건 이후 이곳을 찾은 정치인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前 대통령을 비롯해 이회창, 이한동, 한화갑, 윤길중, 조성준, 추미애, 권정달, 김중권, 장영철, 최명헌씨 등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게다가 이회창씨의 부인 한인옥 여사는 가끔씩 설송 스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태준씨는 총리재임 시절 서울 북아현동 자택에서 설송 스님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962년 창종된 불승종의 본찰인 현불사는 요즘도 기도 영험 도량으로 많은 불자들이 찾고 있다. 불승종 장례위는 "스승님 열반을 맞아 일부 언론매체에서 잘못된 추측성 기사를 보도한 것은 생전 요란함을 멀리하신 종조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며, '대선 예언가' 운운식의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성우 기자

호명 스님 등

태고종 부·국장 인사

태고종 총무원 부장 및 국장급 인사가 단행됐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5월 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선승관 2층 회의실에서 종무조정실장 호명 스님 등 신임 소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종단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종무를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무조정실장 호명 스님(염불사 주지) △재정지원실장 옥산 스님(화엄사 주지) △교류협력실장 혜일 스님(제주 정방사 주지) △교육부장 성오 스님(안성 성은사 주지) △규정부장 정민 스님(전주 승암사 주지) △교무국장 무종 스님 △재무국장 정관 스님 △교육국장 지화 스님 △문화국장 성인 스님 △기획국장 서리 홍창수.

김성우 기자

불교합창단련 곧 결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이하 종단협)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종단협 산하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결성이 임박했다. 종단협 등은 5월 21~22일 공주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전국불교합창단장 · 임원 연수 및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합창단 간담회 및 불교음악 강의도 진행된다. (02)2011-1772

"드디어 기다리시던 하권이 출간되었습니다!!"

백초귀장술

두번째 백초 스님의

찾아온 시간만 가지고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꿰뚫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 • 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 • 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 • 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 • 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 • 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 • 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 • 백초스님
하권/720면/정가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계좌 |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16

마음 그릇을 크게 하라

[원문]
찰진심념가수지
(刹塵心念可數知)
대해중수가음진
(大海中水可飮盡)
허공가량풍가계
(虛空可量風可繫)
무능진설불공덕
(無能盡說佛功德)
–북한산 문수사 대웅전

[번역]
인간의 티끌 같은 마음을 다 헤아리고
저 넓은 바다의 물을 다 마신다고 해도
가히 허공도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으나
한량없는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네.

우주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부처님의 공덕
지혜 키워 무량한 진리에 부합하는 사람이 '부처'

[선해(禪解)]
한 마디로 말해 불교는 마음 하나 잘 짓는 종교이다. 말하자면, 마음관리를 잘 해야 하는 종교이다. 이 마음 하나를 항상 청정하게 잘 유지해야만 나날이 즐거워질 수가 있으며 또한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하나를 잘 짓지 못해 오늘날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럴 때면 안타까운 생각마저 든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마음을 잘 짓는 것일까? 인간이 중생과 다른 이유는 사회적 기능과 직관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직관력을 갖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바로 마음공부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마음이란 원래부터 청정한 것이지만 사회 속으로 들어 올 때부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워진 것도 마음속에 생긴 이 욕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주련 여행의 주제는 '마음'에 있다. 문수사는 명산인 북한산 자락에 있는 천년 고찰이다. 고려 예종(1109년) 때 뛰어난 서예가로 알려진 신품사현(神品四賢) 중의 한 명으로 이름을 드날린 묵암 탄연에 의해 창건됐다. 당시 그는 이곳에 있는 암굴(暗窟)속에서 수도를 하던 중 문수보살을 목격하고 문수암(文殊庵)이라는 암자를 지었다고 한다. 오대산 상원사(上院寺), 고성(固城) 문수사와 함께 한국의 문수보살 3대 성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불자들에게는 오백나한을 모시고 있는 나한도량으로도 유명하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나한전 · 산신각 · 요사채 등이 있는데 대웅전의 문수보살상은 고종의 비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조성한 것이고, 석가모니불은 영친왕 이은(李垠)의 비인 이방자(李方子) 여사가 조성했다. 이곳에 있는 문수봉은 전망이 매우 좋아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특히 묵암 탄연이 수행 한곳으로 알려진 문수천연동굴은 천연의 암반 속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깊이가 30m가 넘는다.

문수봉에서 한눈에 보이는 북한산은 그야말로 비경(秘經)이다. 봄이면, 철쭉과 진달래꽃이 붉게 타오르고, 가을이면 붉은 단풍잎이 온 산을 불태운다. 대남문 옆 깎아지른 절벽아래 아찔하게 서있는 문수사는 한 폭 풍경화처럼 아름답다. 하지만 산불이나 태풍 때문에 몇 번 소실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며 그 명성만큼이나 한국사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4 · 19로 인해 실각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5. 18 군사 쿠데타의 주인공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화가 이곳에 숨어 있다. 이승만의 어머니는 여기 문수동굴에서 백일기도를 드려 아들을 얻었으며 전두환 대통령이 쓴 편액이 문수천연동굴의 입구에 걸려 있다. 이 두 대통령의 어두운 과거사가 아이러니컬하게 녹아있는 것이다. 어떻든 북한산 꼭대기 벼랑 끝에 마치 제비집처럼 걸쳐있는 문수사는 그 유래만큼 명성황후, 이승만,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비운의 역사가 숨겨져 있다.

조선의 국모였던 명성황후에 의해 중건된 대웅전 안의 문수보살상은 중생의 소원을 들어 주는 곳으로 유명하여 많은 불자들이 찾는다. 원래 문수보살은 지혜가 뛰어난 보살로서 석가가 돌아가신 후 인도에 태어나 '반야(般若)'의 도리를 선양하여 지금도 반야 지혜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 또한<반야경(般若經)>을 결집, 편찬한 보살로도 알려져 있는데 <화엄경(華嚴經)>에서는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의 협시보살(脇侍菩薩)로서 보현보살(普賢菩薩)과 더불어 삼존불(三尊佛)의 일원으로 실천적 구도자의 모습을 하고 석가모니불의 교화를 돕는다. 대웅전의 글씨는 몇 번의 소실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른다.

명성황후가 문수사에 문수보살상을 조성한 이유도 나라를 빼앗긴 우둔한 신하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대웅전 주련의 내용들도 부처님의 '지혜의 공덕'을 예지하고 있어 문수보살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찰진심념가수지 대해중수가음진 허공가량풍가계'의 주련 내용은 인간이 티끌 같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또한 저 많은 바다 물을 다 마실 수 있으며, 허공도 잴 수 있고 바람도 잡아 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인간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고, 바닷물을 마실 수 없으며 허공을 재지 못하며 부는 바람을 손으로 붙잡지도 못한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일까? 이는 부처님의 위대함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대구법이다.

인간이 그런 위대한 것을 설령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즉, '무능진설불공덕' 부처님의 다함 없는 공덕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뛰어난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공덕은 그 어떤 어려운 것까지도 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경구(經句)라고 하겠다.

인간의 마음은 그릇으로 따지면 쓰기에 따라 작은 종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저 바다와 같이 넓을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혜도 그 그릇이 커야 제대로 담을 수가 있다. 마음은 인간의 중심(中心)인데 어떤 마음의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인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음 때문에 자꾸만 부처를 멀리서만 찾으려고 한다. 부귀나 명예, 쾌락 그런 것만을 추구하다보면 진정한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으며 또한 자신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남을 위하는 이해심과 온전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다.

일찍이 부처님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모든 선악과 기적은 다만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 경제가 힘들다고 생각되는 것도 어쩌면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우울함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조계종 원로의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16

마음은 안과 밖이 없다

[원문]
旣不辨自白 憑何免生死 若見性卽是佛 不見性卽是衆生 若離衆生性 別有佛性可得者 佛今在何處 卽衆生性 卽是佛性也 性外無佛 佛卽是性 除此性外 無佛可得者 佛外無性可得.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겠느냐.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니라.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니라.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느니라. 부처가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 없느니라.


'달마 혜가 대면도'. 일본 목현(木縣)박물관 소장.

[해설]
'흑백도 가릴 줄 모르면서 무엇에 의지하여 생사를 면하겠느냐.'

이 말씀은 수행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마음자리를 두고 정진하는 것인지를 몰랐을 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정진을 해야 하겠습니까? 본래의 마음자리를 떠난 생각은 모두 번뇌이고,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가 진짜 부처님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부처님임을 믿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화두를 들거나 또는 염불을 하는 것이 바로 성품에 마음을 두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이전의 자리에 의지를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니라.'

본래의 성품을 깨친다는 것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생각하기 이전의 자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고 보면 쉬운 것이지만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한생각(一念) 이전의 자리가 부처였구나! 그 자리가 나의 본래 자리이고 우주의 근본 자리였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견성했다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성을 보는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성을 보면 부처이고 자성을 보지 못하면 중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생의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부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품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성품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면 그것은 외도의 말입니다. 마구니라는 얘깁니다. 부처는 내 본래 마음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을 할 때도 내 본래 마음자리에 두고 절을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들 마음이 부처님자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합장을 할 때도 우주를 상대로 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런 행위가 우주를 상대로 하는 위대한 마음의 세계로 가는 길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일이지만 과거로부터 익혀온 습(習)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알면서도 습을 못 떼는 겁니다.

'중생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니라.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없느니라. 부처가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떠나서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부처를 떠나서는 성품을 얻을 수 없느니라.'

달마 대사께서는 성품을 부처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래 마음'이라 했을 때 여기서 '본래'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금 쓰는 마음도 마음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번뇌입니다. 지금 보고 듣고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번뇌라고 하는 것이고 진짜 마음 자리는 이름을 떠난 자리로서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자리를 이름하여 '부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정진 하시면 바로 업(業)도 맑아지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무가 자랄 때도 똑바로 자라는 나무는 드뭅니다.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져 자랍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느 쪽으로 넘어질까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마음을 두면 언젠가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깁니다. 전생의 습이 금생에 이어진다고 말을 했듯이, 여러분이 금생에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진리의 눈을 금방 뜰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성품자리에 마음을 두고 꾸준히 정진하시다 보면 언젠가 눈을 뜨게 됩니다.

깨닫는 데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셔봐야 물맛도 알 수 있듯이 깨달음의 세계도 직접 깨닫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과거로부터 육체 위주로 살아온 습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혀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애착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 밖에 불성이 따로 없다'는 말씀에 눈을 뜨면 마음은 안과 밖이 없습니다. 대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반야바라밀 수행으로 성품을 깨달으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사찰,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음향설비 렌탈 · 각종 마이크 · 스피커 · 앰프 설치 · 찬불가 반주기 설치(550곡 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TV, 컴퓨터 모니터로 사용하면서 녹화기능까지.. (야간에도 녹화 가능함)
4분할
사찰 CCTV 설치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미디어 방송 · 음향 · 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가열 107호 代表 최유창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환불보장

스님! 빙의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해 주세요
전생,빙의,퇴마,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 교육 기간 : 6주(24시간) ▶ 모집 인원 : 선착순 10명 ▶ 교육 비용 : 100만원
특기사항
1. 10명의 소수 정예 엘리트 교육
2. 6주 24시간의 최단기 집중 현장 교육
3. 상상할 수 없는 최소의 교육 훈련비
4. 개인 교습식의 일대일 교육, 책임 교육
5. 현장에서 바로 활용 할 수 있는 실전 교육
6. 새로 개발된 테크닉 수시로 전수하는 평생 교육
스님이 직접 강의하고 스님들만 교육받는 유일한 곳
6주 24시간, 짧은 수련기간, 최면 시술사 완성이라는 문구에 "정말될까?"라고 반신반의 하면서 공부하셨던 100여분의 스님들이 전국 각처에서 활발하게 최면 시술을 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보람과 자부심도 느끼신다 하셨습니다.
"스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 무초 정락 합장 –
특별상담
⊙불자님들의 요청에 교육없는날 1일 1분씩만 상담을 받습니다.
⊙빙의와 神病으로 고생하시는 분
⊙자녀의 가출, 습관, 성적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우울증, 알코올중독, 게임중독, 마약중독 등...
(사)유마 최면 연구소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번출구 세일빌딩 401호 ☎ 02)763-0661~2
개인 특별지도
시간없으신 스님들을 위하여 2박3일
실습위주로 교육 (hard training), 신분비밀보장

“수행은 나쁜 습관을 바로 고치는 행동”

지리산 황매암 암주 일장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리산 황매암(黃梅庵)으로 일장(日藏) 스님을 만나러 길을 떠났다. 스님은 현대의 고승 동산 스님의 마지막 상좌다. 일장 스님은 석정 · 수안 스님과 함께 한국 선화(禪畵)의 3대 명장으로 불린다.

갈 길은 먼데 월요일 출근길 고속도로의 정체는 풀릴 줄 모르고. “버스전용차선은 누가 만들어 놨는지…. 가다서다 할 것이면 차라리 한참을 서 있다가 한 번에 가던지…” 좀이 쑤셔 뒤틀리는 몸처럼 머릿속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의별 망상을 부린다. 이제는 갈 곳을 미리 넘겨짚었다. 몸은 여전히 서울 인근의 꽉 틀어 막힌 고속도로에 있는데, 마음만 벌써 가있어야 할 황매암을 생각했다.

“황매암, 왜 황매암이라 이름 했을까? 황매화 피는 곳이라 지은 이름이라면 정말 시시할텐데. 그보다 깊은(?) 뜻이라면 황매현에 주석해 황매 스님으로 불리던 육조 혜능 대사의 스승 오조 홍인 대사에게서 유래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뭉게구름처럼 망상이 피어났다.

도로가 뚫리기 시작했다. 그저 핸들만 잡고 있었을 뿐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앞유리창 가득 메우던 차들이 사라지고 아스팔트만 보인다. 차가 달린다.

내게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할 용기도 없었는데, 바람에 구름이 걷히듯 눈앞이 확 트이는게 환희심 가득하다.

“공부나 수행도 이렇겠지. 진척이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기연(機緣)을 만나 줄탁동시(啐啄同時)가 되면 놀라운 향상이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때가 돼서 정체가 풀린 것 뿐일테지”라며 어설프게 시절인연(時節因緣)으로 둘러대는 중생심(衆生心) 또한 여전하다.

서울에서 멀어지고, 지리산에 가까워질수록 계기판의 속도도 올라갔다. 끌려가나보다. 지리산IC를 나오며 달리기도 끝났다. 실상사 못미쳐 있는 중군부락(中軍里)으로 들어서 임도를 올랐다. 이제는 친절하게 갈림길마다 ‘황매암’이라 정갈하게 쓰인 팻말이 나그네를 인도했다.

지리산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흙이 두텁게 덮인 육산(肉山)이기 때문일까? 가파른 길이지만 전혀 험난해 보이지 않는다. 차로 5분여 쯤 올랐을까? 굽이를 도니 팻말 글씨만큼이나 정갈한 암자가 보인다. 황매암이다.

일장 스님을 만나 삼배를 올렸다. 찻물이 끓기도 전 당장 황매암 유래부터 따지듯이 물었다.

“주변에 황매가 많아요. 조선조 말엽까지 근처에 절이 있던 곳입니다. 부도나 주춧돌 흔적도 보이고. 인근에 10여 가구 마을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 빨치산 소탕 때 마을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비웠던 곳이지요.”

노랑꽃인 황매화는 죽도화, 금완, 체당화 등으로 불린다. 4~5월 피는 황매화는 장미목 장미과로 매화나무와는 다르다. 꽃의 모양이 매화를 닮아 노랑매화라 불린다. 황매화의 꽃말은 숭고, 왕성, 고귀와 욕망을 누린다는 뜻이다.

소낙비처럼 휘몰아치는 나그네의 성급한 질문을 스님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장삼에 묻은 빗방울 털듯 털어냈다. 툭툭 질문을 털어낸 스님이 어찌 먼 길을 찾아왔는지 되묻고는 한마디 던진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냥 그렸을 뿐이지 선화가 아니요.”

일장 스님의 그림 솜씨에 대한 나그네의 미련이 계속되자 스님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자연 모두가 선화인데 그릴 필요 있겠어요?”

돌아서면 잊는 신도 포교 위해 붓 잡아

“작은 것 모아 크게 만드는 것이 불도로 회향하는 길”

“선화라면 열심히 수행하던 자가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 낙서해 그린 것이지. 내 그림은 ‘실선’자 선화(線畵)라면 모를까 택도 없지. 게다가 자연 모두가 선화인데 굳이 그걸 그릴 필요가 있겠어요? 스님이 뭐하면 ‘선(禪)’자 붙이고 그림 그렸다고 선화라는데 내 그림을 내가 볼 때는 어릴 적 노트 뒤에 낙서한 것 같아요. 중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이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잖소?”

이어 스님은 요즘 세태에 죽비를 날렸다.

“예전 스님들과는 달리 요즘은 큰스님 돼서 유명해지면 정말 재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큰스님이라면 물질로 떠받들잖아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요. 살아있어야 팔리니까. 스님이 집과 부모 버리고 나와 출가했는데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소? 요즘 세상에서는 유명해지는 것은 불행해요. 천박하거나 못 알아주는 것이 고마운 세상이지요.”

그런 스님이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린 것은 신도들 때문이었다.

“1985~2001년, 17년쯤 제주도에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에 ‘목부원’ 세우고 목부(牧夫)로 지내던 시절이었지요. 토굴살이 하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겠어서 염불이며 법문이며 닥치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법문을 해도 신도들이 돌아서면 잊고, 한두 시간 열심히 이야기한 내용이 오고 간 곳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일장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붓글씨로 적어주면 보고 느낄 수 있겠다 싶어 시작했다. 차츰 신도들이 ‘글만 쓰지 말고 그림도 그려 달라’ 했다. 나중엔 칼라시대에 색깔도 넣어달라고 하더라”며 “어느 순간 그림 그리는 일장 스님이 돼있더라”고 말했다.

울산에서 출생한 일장 스님은 한국전쟁 즈음 절도 불교도 모른 채 부산 영도에서 자랐다. 학창시절 만화책을 주로 보며 딴짓(?)하기를 즐겼던 스님은 춘원 이광수의 <원효대사> <서산대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람은 사람인데 전혀 새롭게 사는 방법을 보고 신기했어요.” 어린 일장 스님은 책가방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불국사를 찾았다. 석주 스님이 첫 주지로 부임하던 즈음, 일장 스님이 13세 때였다.

“막상 절에 가니 소설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행자가 됐는데, 막상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집게 주고 껌을 주우라는 겁니다. 다시 뛰쳐나왔습니다. 5~6년 이곳 저곳 동가식서가숙하다 17세 때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만나 정식으로 출가했습니다.” ‘금정산의 호랑이’라 불리며 참선수행을 강조했던 동산 스님(1988~1965)은 성철 스님의 스승이다. 성철 스님과 일장 스님은 사형사제지간.

“동산 스님은 ‘글공부보다 참선해서 일대사(一大事)를 마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사스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기도하며 선방에만 다녔죠. 동산 스님은 ‘출가자는 본사, 은사, 법사 3사를 떠나야한다’며 얽매이지 않고 공부하라던 분입니다.”

은사 동산 스님은 일장 스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겨울 새벽에도 동산 스님은 아침공양이 끝나면 제일 먼저 빗자루를 들고 나갔다. 큰스님이 솔선하니 대중스님들이라고 가만 있을 수는 없었다.

대중살이에 있어 동산 스님의 원칙은 확실했다. 방바닥이 닳으면 군데군데 땜질해 사신 검소함은 물론이고, 좋은 옷감이 시주 들어오면 대중방에 대중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대중 숫자대로 옷감을 잘라 나눴을 정도였다.

“해제 때마다 허튼소리 하는 도인이 인가 받겠다고 여럿씩 찾아왔어요. 엉터리 도인들을 제접한 동

일장 스님은 1945년 경남 울산 출생. 1958년 13세에 출가했다. 범어사 동산 스님의 막내 상좌다. 해인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선원을 돌며 수선안거한 스님은 1980년 제주 한라산 자락에 목부원을 창건하고 10여 년간 <금강경> 등 경전강독회를 이끌어왔다. 2004년 지리산 황매암을 창건하고 참선정진 중이다. 주요 편역으로 <만선동귀집> <선가귀감>(불광출판사 刊) 등이 있다.



“불교의 제일 덕목은 참회”



산 스님은 ‘그게 아니다’ 3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면 그쳤어야 하는데,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아상(我相)을 세우는 납자들에게는 앉은 자세에서 바로 이단옆차기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엄하던 분이지만 그 순간만 지나면 봄바람처럼 다 잊어 버리는, 자애로운 분이셨습니다.”

맹호부대원으로 월남 파병까지 다녀온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일장 스님은 전역 후 걸망을 지고 선방을 다녔다. 송광사, 봉암사 등 제방의 선원을 돌며 공부하던 스님을 괴롭힌 것은 유난히 약했던 심장이었다. 일장 스님은 “심장이 안좋았던 탓에 참선 중에 상기되며 숨이 가빠지기 일쑤였다. 대중스님들에게 피해주기가 싫어 토굴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토굴살이를 하다 보니 참 자유로웠어요.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방일하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보기 시작한 책이 성철 스님에게 받은 <만선동귀집>이었어요.”

스님은 한 글자씩 옥편을 찾아가며 3년동안 <만선동귀집>만 봤다. 꼼꼼하게 정리한 것을 도반스님들이 책으로 만들어 함께 보자고 권해서 책도 펴냈다.

“작은 것을 모아 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불도(佛道)로 회향하는 길입니다. 자연 삼라만상 모두 불법 아닌 것이 없어요.”

일장 스님은 “업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비롯된 생활습관이다. 습관 들여 익숙해져서 수월해지는 것이 업”이라며 “수행은 나쁜 습관[業]을 바로 ‘고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불자라면 스스로 자신을 고쳐나가는 만큼 돌이켜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교의 제일 덕목은 참회입니다. 매일 본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수행이지요.”

일장 스님은 “절은 자기를 낮춰 남을 높이는 행위”라며 “절에는 불교 전체 교의의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심하면 아무 장애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합리적이고 윤택하고 세련됐다는 지금 세상이 인간을 근원적으로 바꾸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옛날에는 책 구하기가 어려워 일일이 손으로 베꼈잖아요? 쓰다보면 저절로 공부가 됐습니다. 부처님 전생담 가운데 ‘설산동자의 구법’에 보면 ‘제행무상(諸行無常) 시생멸법(是生滅法)’의 다음 구절인 ‘생멸멸이(生滅滅已) 적멸위락(寂滅爲樂)’을 듣기 위해 절벽에서 몸을 던지기도 했잖습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논리나 가르침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동안 가물었을 때 일이다. 산중에 위치한 황매암에서도 물이 부족했다. 단체로 나그네들이 오고가면 물이 똑 떨어졌다. 그래서 붙여진 “실내의 수세식 화장실 대신 실외의 해우소를 이용해 달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결과는 소용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실내 화장실을 써버리고 말지 실천으로 나가질 못하더군요. 백 마디 똑똑한 말들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배우고 아는대로 한 가지씩만 실천하도록 마음을 내면 세상이 바뀝니다.”

일장 스님은 “우리는 위선에 쩌들어 숨는 것을 점잖다고 생각하고 표정 없는 것을 문화인이라 포장하지만 도(道)는 진솔한 것”이라 말했다.

“부처님 앞에 돈만 놓고 108배한다고 소원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실제 행동하는 생활이에요. 오늘 이 순간 자기를 돌아봅시다.”

황매꽃말처럼 숭고하게 도인의 욕망 아닌 욕망을 잔뜩 누리며 사는 스님의 법문이 끝났다.

황매암을 나서는 길, 오던 길 나그네의 머리를 가득 채웠던 도량 주변의 황매꽃과 오조 황매홍인 화상은 어느새 일장 스님과 하나가 돼 있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44. 영산법화사 법화 스님

“‘법화경’ 만이 세상을 구하는 약방문”… 불교포교 선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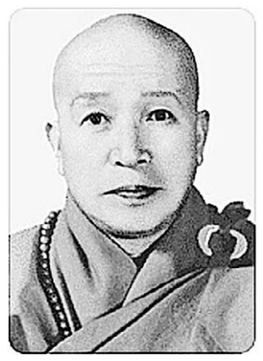
새벽 3시 어디선가 목탁소리가 들려온다. 천천히 진해항 일대를 돌아 묘법사까지 돌아가면 아침 5시가 된다. 한번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를 따랐다. 묘법사에 이르러 아침 정근을 하고, 함께 공양을 하자고 하여 일본식 탁자위에서 공기밥을 먹었다.

“나는 1912년 경기도 시흥서 태어났소. 39세에 불법을 알아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법화경>만이 세상을 구하는 약방문으로 알고 포교행각을 나섰소. 1947년은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52년 창원 성주사 고암 스님께 계를 받고, 1957년 ‘만법만년 색심불이 관심본존(萬法萬年 色心不二 觀心本尊)’의 대만다라(大曼多羅)인 <나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을 기본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차 서울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우이동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구해놓았으니 서울서 만납시다.”

나는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말을 낮추시라 하면 꼬박꼬박 존대말을 써 송구스럽게 생각하였다. 나는 당시 형님께서 해군 군의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갔다가 만나 뵙게 된 것이다. 일본식 장삼에 납자를 두르고 계셨는데, 기상이 매우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라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서울 명륜동에 영산법화사 출판부를 내고 <반야심경 강의> <법화 삼부경> <일연대사 유문집> <묘법법화경> <어린이 동화집>을 내어 포교하였기 때문에 자주 뵙고 법문을 들었다. 우리나라 불교포교에는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다.

서울에 올라와서는 나라를 위해 아침 정근을 경무대를 중심으로 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통행금지시간이라 금지하였는데, 이대통령께서 특별이 풀어주어 3년 동안 하루 아침도 빠지지 않고 도량석을 하였다. 나도 이 스님의 영향으로 <법화 3부경>을 번역하였는데, 학인들이 말하기를 “법화 스님은 일본말을 번역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말 한문투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여 번역했지만 먼저 번역하신 어른께는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법화경>을 번역하고 나니 <법화경 계환소>에 대하여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 인해 <법화경 강의> 본을 내게 된 것이다. 우리들은 통불교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묘법연화경>을 법신의 상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법화 스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진불(眞佛)·진법(眞法)·진승(眞僧)’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제목 봉창을 통해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일연 스님이 ‘화중생연(火中生蓮: 불속에서 연꽃이 핀다)’하여 일본이 사는 길은 오직 <묘법연화경>을 읽고 실천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 많은 앙화(殃禍)를 겪었기 때문이다.

옛날 부처님 당시는 지혜가 본위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정과 계행을 통해 사회윤리를 형성해 갔는데, 장차 상법(像法)이 이루어지면서 중생들이 여러 가지 상에 빠져 혼돈을 일으키므로 차라리 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여 <법화경> 계통에서는 대부분이 제목 봉창을 주로 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독선기신(獨善其身: 남을 돌보지 않고 홀로 그 몸을 닦아 품덕(品德)을 기른다)하고 보살불교가 세계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일인일기(一人一技)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만인공기(萬人公器)를 가지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참회하고 칭찬하며, 사회사업을 더불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이러한 염불 참선법이 조직적으로 발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떻든 한국 불교에 있어서 노천(露天)포교는 원효대사 이후 이 법화 스님의 목탁석이 으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루는 경무대에서 이 대통령께서 이 소리를 듣고 불러오라 하여 물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새벽 같이 예불 하십니까?”

“세계와 중생을 위하되 우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합니다. 찬 공기에 감기 들까 걱정되니 이곳에 오시거든 언제나 따끈한 차 한잔 드시고 가십시오.”

하여 한 때는 경무대에서 차공양을 받기도 하였다.

법화 스님께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일본 일연종 스님이다. 이분은 일생동안 세계평화와 인류구제를 위해서 정진하셨다. 인도에 가서는 영축산에 절이 없는 것을 보고 10년동안 기도하여 간디 수상을 만나 법화사를 지은 유명한 스님이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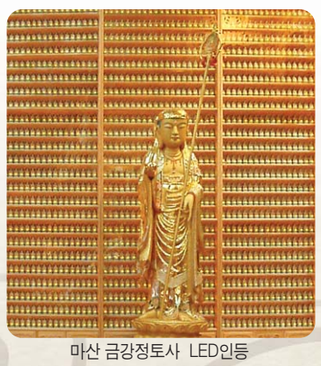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천안 동심사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86>
(修習止觀坐禪法要)

제10장 證果 ⑫

최초 발심과 구경정각은 두 마음 아니다

涅槃經云 發心畢竟二不別 如是二心前心難

범어의 열반은 멸도(滅度)라고 번역한다. 멸도는 커다란 환란이 영원히 소멸하고 생사를 초월하여 건넌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최후의 법이기 때문에 열반이라고 한다.

<화엄경>에서는 부처님이 처음 수행인지의 마음을 발심한 때로부터 구경극과에 이르기까지 따로의 마음으로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때문에 처음 발심하여 법신자체를 증득하면 몸을 나누어 부처가 될 수 있고, 최후에 이르러서도 법신을 증득하는데 불과하며 역시 몸을 나누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는 수행의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처음 발심할 때에 부처가 되는 것은 수행인지의 마음에서 깨달음의 과위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수행한 이후 마음에서 부처가 되는 것도 처음 수행인지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깨달음의 과위가 수행의 인지의 마음에 사무치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인지의 마음과 과위의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발심을 한 인지의 마음을 일으키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지에서 발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인지에서 발심을 했다 해도 원만하고 상주한 올바른 신심을 갖추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다.

옛사람은 "천리 길도 첫 걸음에서 시작한다"라고 하였고, 또 "높은 누각도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가령 땅의 기초가 견고하다면 천층만층이라도 마음먹은 대로 건립할 수 있듯이 보살의 발심도 이와 같다. 최초의 발심이 원만하고 상주한 진심을 얻는다면 오십오위(五十五位) 진실한 깨달음의 길도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 가지 마음가운데서 처음 발심하기가 어렵다고 말하였다.

大品經云 須菩提 有菩薩摩訶薩 從初發心卽坐道場 轉正法輪 當知卽是菩薩爲如佛也 法華經中 龍女所獻珠爲證 如是等經 皆明初心具作一切佛法 卽是大品經中阿字門 卽是法華經中爲令衆生開佛知見 卽是涅槃經中見佛性故住大涅槃 已略說初心菩薩因修止觀證果之相

범어의 마하는 대(大)라고 번역하는데, 이는 보살가운데서 대보살에 해당된다. 이들 보살이 최초에 발심하여 도량에 앉아서 사제법륜을 설명할 때가 부처의 경지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

여기에서 '부처와 같다'는 것은 상사위(相似位)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지 구경각의 부처님은 아니며, 처음 발심주에서 정인, 연인, 요인 등 삼인불성(三因佛性)의 의미가 원만하게 발현했음을 나타낸 것이다.

기초가 견고하면 천층만층 건립할 수 있듯이 발심이 원만하면 오십오위의 깨달음도 성취

또 <법화경>에서 문수보살이 용궁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할 때 한 용녀가 선근이 맹렬하고 날카로웠는데, 그녀는 겨우 나이 일 곱 살에 성불하였다.

그 때 그 모임에 있던 대중들은 모두 의혹심을 일으키고 말하기를 "여인은 많은 장애 때문에 성불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용녀는 겨우 일 곱살에 성불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 때 용녀가 즉시 자기의 목에 걸고 있던 영락을 풀어서 세존께 받치고 사리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이 영락을 세존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통쾌한가"하였더니 사리불은 대답했다.

"매우 통쾌하다."

그 때 용녀는 즉시 남방무구(無垢) 세계에 가서 성불을 하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는데, 이러한 성불은 이와 같이 신속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팔상성도를 나타낸 최초 발심주의 부처님인 것이다.

앞에서 모든 경전을 인용하여 증명했던 것은 초발심에 일체불법을 만족하게 갖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대품반야경> 가운데서 최초의 아자문(阿字文)인데, 바로 사십이위(四十二位)를 비유한 것이다. 바로 이것은 <법화경> 가운데서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 지견을 연 것이며, <열반경>에서 불성을 보았기 때문에 대열반에 안주한 것에 해당된다.

<법화경>에서는 비록 부처님 지견을 연다고 말하기는 했으나 부처님 지견을 보이고 부처님 지견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끝내 깨달아 들어간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열반경>에서는 비록 불성을 본다고 말하였으나 최초로 발심하는 순간이 도를 증득한다고 순간이며 최후마음도 역시 최초 발심하는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처음 발심하면 일체 불법이 만족한다"라고 하였다.

최초로 발심한 보살이 지관을 수행하여 수행분야만큼 과보를 증득하는 모습에 관해서는 대략 설명이 끝났다.

次明後心證果之相 後心所證境界則不可知 今推教所明 終不離止觀二法 所以者何 如法華經云 殷勤稱歎 諸佛智慧則觀義 此卽約觀以明果也

앞에서는 최초 발심한 보살이 수행분야만큼 과보를 증득한 모습에 대해 밝혔으므로 여기에서는 최후에 마음으로 구경과를 증득하는 모습에 대해 밝히려 한다.

최후 했을 때의 '후'는 처음 발심을 대비해서 한 말로 최후의 일심을 말한다. 그러나 서로 번갈아가면서 뒷 마음을 논변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든다면 십주 가운데 제이주를 처음 발심주에 대비한다면 제이주가 후심(後心)이 되며 제삼주를 제이주에 대비하면 삼주가 후심이 된다. 이것은 초지보살이 이지보살의 일을 모르고 등각보살이 묘각의 일을 모르는 것과 같다.

그러나 지금 부처님 가르침에서 밝힌 것을 추론해 본다면 증득한 수행만 지관을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깨달은 과보 역시 지관을 떠나지 않았다.

대승의 수행도 지관이며 대승의 과보도 역시 지관이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추론해서 밝힌다면 오류가 없을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 하는 것은 따져 묻고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법화경>에서 세존이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서 서서히 일어나 말하기를 "제불지혜는 매우 심오하고 한량이 없으며 그 지혜문은 이해하기도 깨달아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하시며 은근히 모든 부처님 수행방편문에 대해 칭찬하였다.

비록 방편법문은 한량이 없으나 귀결점은 하나이다. 이는 방편에는 많은 수행문이 있으나 근원으로 되돌아가면 두 갈래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두 길이 없다고 했으면서도 한량없는 방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관'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문자반야(文字般若)를 따라서 관조반야(觀照般若)를 일으키고 관조반야를 따라서 실상반야(實相般若)에 일치하게 된다. 문자반야는 뗏목과 같고 관조반야는 뗏목을 젓는 것과 같고 실상반야는 피안에 도달한 것과 같다. 이는 관 수행편에서 부처님 극치의 과보에 대해 밝힌 것이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수습지관좌선법요 · 신유식론테이프 제작 보급

동현학림은 지상강의란에 연재중인 <수습지관좌선법요(천태소지관)>와 호법유식의 비판서이자 새로운 유식학의 길잡이인 웅십력의 <신유식론> 테이프를 제작 보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나 메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010-9141-5482 soo532@hanmail.net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사종열반(四種涅槃) 2

인생의 고뇌는 한량이 없기는 하지만 이를 요약하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 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잡아함경(雜阿含經)> 제5권을 살펴보면 사리불(舍利佛) 존자가 나구라(那拘羅) 장자에게 "나는 육신은 고통스러우나 마음만은 괴롭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제자는 선정과 지혜를 닦아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늙고 죽는 일은 육신에 있어서 최대의 고통이건만 그 고통 속에서도 마음만은 태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마음의 고통에서 해탈을 할 수 있다 해도 육신의 고통은 순간에 소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열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여의열반(有餘依涅槃)'입니다. 이는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현세에 일어나는 번뇌는 초월하였으나 육신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유여의열반, 즉 고통이 의지할 육신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마음만은 안락한 열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여의열반(無餘依涅槃)'입니다. 이는 번뇌가 깨끗이 다하여 윤회로부터 이미 해탈하였고 현재의 육신마저도 버림으로써 끝내 청량한 열반의 경지에 은몰하여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의미에서 무여의열반이라고 합니다.

<중아함선인왕경(中阿含善人往經)>에서는 "착한 사람은 현세가 다하면 거듭 생사를 받지 않는데, 이를 무여의열반이라고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열반에는 인간세상에 거듭 찾아와서 생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세를 멀리하므로 현세에 염증을 느끼는 염세적 의미가 있는 듯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보다 못해 출가하셨는데 이도 역시 염세의 뜻이 있는 듯 하지만 도를 성취하신 이후엔 결코 염세심을 일으키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설상에서 하산하여 사십 구년간의 장광설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원력은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는 자비행에 있습니다. 가령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이후 무여의열반에 바로 들었더라면 그것은 중생구제라는 본원의 이치와는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승 법상유식(法相唯識)에선 열반을 다시 사종열반으로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정리=張如舟

부처님의 수행방법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대로,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봉인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본불교에 입각한 교리강좌와 수행지도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미얀마 파욱 센터 우레와따 사야도 초청 집중 수행
수행일정 : 1차 2009년 6월 1일 ~ 6월 7일
2차 2009년 6월 8일 ~ 6월 14일
3차 2009년 6월 15일 ~ 6월 21일
4차 2009년 6월 22일 ~ 6월 28일
입실시간 : 오후 5시 까지, 장기수행 가능
준 비 물 : 편안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개인컵
저녁 법문 무료 (오후 7:00 ~ 8:30)

◉ 외부 특별 법문
일 시 : 6월 20일 (토) 오전 10시 ~ 1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정각원

◉ 사마타 위빠싸나 명상 (진경스님 지도)
일 시 : 2009년 6월 6일(토) 2시 ~ 6시까지
장 소 : 전국 비구니회관 (법룡사) 02-3411-8103
참 가 비 : 1만원 (전철3호선 일원역)

◉ 봉인사 사마타 위빠싸나 명상
일 시 : 2009년 5월 15일 ~ 24일 까지
매월 9박 10일 간의 집중수행이 있음
장기수행도 가능 〈 언제나 수행이 가능합니다. 〉

연 락 처 : 봉 인 사 031)574-5585

양지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 승무북, 모듬북 · 장고 · 징 ·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정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특허청 실용신안 제 28054호
옥외촛불대



불결한 것을 미관이 수려한 규격품으로
■ 미관이 아름답습니다.
■ 청소하기가 간편합니다.
■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 양초판매가 증가합니다.
■ 보시용으로 적합합니다.

크 기	가 로	세 로	높 이	재 질
50개꽂이	90cm	60cm	150cm	스테인레스
100개꽂이	150cm	90cm	150cm	폴리카보네이트
대초기준	※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문제작 가능			

사찰시설물 제작 전문업체
세 영 금 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1가 120-4
TEL 02)2676-0160 / H · P 011-269-3356
E-mail : byoon47@yahoo.co.kr

“공부하는 동안 오직 병신 같이 살겠습니다”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20〉

제5장 선지식 3

그해 가을 가야산 단풍은 일찍 시작됐다. 해인사 입구의 홍류동 단풍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관을 이루었다. 노스님들이 봄날 답청하듯 시자의 부축을 받아 단풍구경을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해인사로 돌아온 혜암은 산철인데도 선방을 벗어나지 않았다. 안거 때처럼 선방에 들어 정진했다. 선방에 남은 한두 명의 수좌들과 자유롭게 참선했다. 선방에는 늘 수좌들의 원력이 충만해 있었다.

혜암이 성철을 만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성철은 큰 삿갓을 쓰고 지팡이에 여섯 개의 둥근 고리가 달린 육환장을 짚고 나타났다. 당당하게 걸어오는 성철의 모습은 막 계를 받은 혜암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대중들도 지대방에서 수군거렸다.

“장좌불와 하는 철 수좌가 왔다.”

성철이 해인사에 온 까닭은 서울의 김병용 거사가 기증한 경판들을 실어가기 위해서였다. 〈신수대장경〉과 〈선종사서〉는 서울에서 바로 봉암사로 보냈고, 대나무 경판들은 청담의 주선으로 해인사 장경각에 임시로 보관해 왔던 것이다.

훗날 혜암은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적이 있다.

“해인총림이 가야총림이었던 시절이었으니까 내가 계를 받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그때 육환장을 짚고 큰 삿갓을 쓰고 다른 스님과는 좀 별다른 모양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 스님이 어떤 스님이냐고 물으니, 철 수좌인데 장좌불와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저런 스님 같으면 나도 따라가야지 하고 며칠을 살펴봤지요. 철 스님이 여기서 언제 떠나느냐고 자꾸 물으니까 한 스님이 장경각에 맡겨두었던 경판들을 모셔갈려고 오셨다 그러더군요.”

당시 장경각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오직 주지스님만 열쇠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었다. 지금이야 누구나 들어가 빨래판처럼 생긴 팔만대장경판을 볼 수 있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해인사 경내까지 화물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스님 몇 분이 장경각으로 올라가 성철이 맡긴 대나무 경판들을 궤짝에 넣고 있었다.

혜암은 인곡에게 달려가 인사를 했다.

“스님, 성철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좌불와를 하는 철 스님이라고 하니까 저하고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곡은 언젠가 혜암에게 선지식을 찾아보라고 당부한 바 있으므로 반대하지 않았다.

“떠나거라. 철 스님에게 의지해 공부하거라.”

경판이 든 궤짝들을 실은 화물차는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해인사를 떠나려고 시동을 걸었다. 성철과 우봉이 운전수 옆자리에 앉았고, 보안은 경판이 든 궤짝들을 감시하려고 화물차 뒤에 올라탔다. 혜암은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

‘아이고, 잘 됐다!’

혜암은 화물차 뒤에 올라 보안 옆에 자리를 잡았다. 보안은 혜암이 성철에게 허락을 받은 줄 알고 제지하지 않았다. 보안은 화물차가 비포장도로에서 요동칠 때마다 궤짝을 붙들었다. 혜암도 보안을 도와 밀려나가려고 하는 궤짝을 잡았다.

해인사에서 고령까지의 산길은 자갈길이나 마찬가지였다. 화물차가 크게 덜컹거리며 달렸다. 서로 얘기를 하려면 소리쳐야 겨우 들렸다. 혜암이 큰소리로 보안에게 말했다.

“스님, 왜 밤에 출발합니까.”

“낸들 알겠소.”

보안은 불만이 많은지 퉁명스럽게 말했다. 화물차 뒤에 쭈그리고 앉아 궤짝들을 감시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들이 정말 귀중한 것이라면 낮에 잘 옮겨야지요.”

“어디로 가져갑니까.”

“아니, 그것도 모르고 차를 탔습니까.”

“모르니까 묻는 겁니다.”

“봉암사로 갑니다.”

“아, 봉암사요. 엊그제 청담 스님께서 수좌들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까지도 보안은 혜암이 성철의 지시를 받아 따라온 줄 알고 있었다.

“성철 스님께서 어디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차를 타라고 했단 말입니까.”

“사실은 화물차를 타라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탔다는 말입니까.”

“저는 성철 스님만 보고 탔습니다. 장좌불와를 하신다는 스님이라고 하니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그제야 보안은 혜암이 화물차에 탄 까닭을 눈치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화물차가 쉴 때를 기다렸다가 성철 스님께 허락을 받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불벼락이 떨어질 것이오.”

“공부에 관한 한,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본이 일이 없습니다. 제가 결심하면 그만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장좌불와를 하고 성철 스님도 장좌불와를 하시니 가는 길이 같은 것 아닙니까.”

“성철 스님께서 봉암사로 가시는 것은 단순히 동안거 한 철을 나고자 함이 아니라 뜻이 맞는 전국의 도반을 모아 결사를 하기 위해섭니다.”

“무엇을 하든 저는 성철 스님을 선지식 삼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해버렸습니다.”

보안은 혜암이 요지부동으로 대답하자 곧 입을 다물어버렸다. 화물차는 캄캄한 밤길을 달렸다. 이윽고 보안은 졸린 듯 혜암이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했다. 차가 심하게 요동을 치는데도 코를 골며 잠을 잤다. 혜암은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궤짝을 붙드느라고 애를 먹었다.

‘궤짝이 밖으로 굴러 떨어진다면 박살이 날 것이다. 얼마나 귀중하고 급했으면 화물차까지 빌려서 밤중에 옮기겠는가.’

훗날에도 장경이나 선종사서에 대한 성철의 정성은 대단했다. 한국전쟁 후 안정사 천제굴에 살 때도 방에 불서들을 가득 쌓아두고 살았는데, 봄가을마다 좀이 슬지 못 하도록 햇볕과 바람을 쏘이곤 했다.

희귀한 불서일수록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다. 책장은 파손을 염려하여 천천히 넘겼고 절대로 침을 바르지 않았다. 불서를 빌려주는 일도 드물었다. 다만 혜암의 사제인 혜적만은 예외였다. 혜적은 머리가 영특하여 〈증도가〉나 〈신심명〉 등 무슨 불서이든 성철에게 빌려가면 하루 이틀 만에 다 외워버렸다. 당시 스님들 사이에서 혜적은 천동(天童)이라 불렸다. 천동이란 하늘의 재주를 받은 사람이란 뜻이었다.



그림 · 최문정

“그런 거 볼 필요 없다. 나도 출가 전에 일본 가서 책도 보고 철학자도 만나 보았지만 실제 도움이 되는 게 없는기라. 그래서 돌아와버렸다.”

“궁금한 것이 있어 책을 읽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소용없는 일이다. 깨닫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된데이.”

점촌역에서 내려 봉암사로 갈 때는 이런 질문도 했다.

“부모님이 출가를 허락하시던가.”

장좌불와 한다는 ‘철 스님’ 보고 따라나서

“부모 죽이고라도 눈 하나 껌벅하지 말아야”

그날도 혜적은 성철에게 일본어로 된 〈한산시〉 책을 빌려갔다가 들고 왔다. 그런데 성철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혜적이 〈한산시〉 책을 구부려서 들고 서 있었던 것이다. 성철은 혜적의 손에 든 책을 낚아채듯 빼앗으면서 나무랐다.

“넌 책 볼 자격이 없다. 책을 구부려서 들고 다니다니, 넌 〈한산시〉를 읽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게 있노. 다시는 내게 책 빌릴 생각 마라.”

성철을 시봉하던 어린 시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큰스님으로 존경받는 분이 책 한 권 가지고 불 같이 화를 내나 싶어서였다. 그러나 훗날 그 시자는 성철이 불서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깊은 선교(禪敎)를 통달한 큰스님으로 존경받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한다.

화물차는 동이 틀 무렵에야 대구역 광장에 도착했다. 경판이 든 궤짝들을 대구역에서 점촌역으로 보냈다가 봉암사로 옮기기 위해서였다. 화물차에서 내리자마자 혜암은 성철에게 다가가 합장했다. 성철도 그제야 혜암이 따라온 줄 알고 물었다.

“여기까지 무슨 일로 왔노.”

“갈 곳이 있습니다.”

혜암은 혹시라도 성철이 거절할까봐 목적지를 얼버무렸다. 퇴설당에서 함께 안거를 난 적이 있고 혜암에게 가끔 바른 말을 해준 우봉에게 사정했다.

“스님, 저도 점촌역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니 함께 기차를 타게 차표를 사주십시오.”

여비가 없는 혜암은 우봉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우봉은 혜암이 왜 사정하는지 알면서도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점심 대용으로 떡까지 사주어 혜암은 요기를 했다. 성철은 기차를 타고 나서야 햇중 혜암에게 관심의 눈길을 돌렸다.

“일본에서 불서를 좀 보았다, 이 말이제.”

“〈선관책진〉이나 〈고승전집〉을 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출가를 여러 방법으로 말리셨지만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잘했어. 공부하는 데는 부모를 죽이고라도 눈 하나 껌벅하지 말아야 돼.”

혜암은 성철의 말이 폐부를 찌르는 듯하여 이를 악물었다.

“은혜도 좋지. 허나 은혜 베푼 사람을 중히 여기면 공부하기 어려워지는기라. 앞서 공부한 조사들도 시인(施人)을 불덩어리같이 무섭게 여기라 했어. 불덩어리같이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제.”

봉암사 입구에서는 이런 당부도 하였다.

“옛날 도인 스님들은 병신 구하려고 했지 똘똘한 사람 구하려고 한 적이 없다. 공부하려면 병신 노릇하라는기야. 숨어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데이. 사람 없는 데 숨어 사는 것은 작게 숨는 법이고, 사람 많은 데서 병신 노릇하는 것은 크게 숨는 법인기라.”

“스님, 저는 공부하는 동안 오직 병신같이 살겠습니다.”

“봉암사에서는 그리 살아보그래이. 그라믄 좋은 일이 있을끼다.”

이때가 1947년 가을의 일이었다. 혜암이 봉암사에 왔을 때 대중은 예닐곱 명밖에 되지 않았다. 우봉, 청안, 보문, 일도, 자운, 보안 등이었다. 청담은 다음해에 해인사에서 올라와 합류했다.

추진력이 강한 청담이 온 뒤로 봉암사 대중은 더욱 불어났다. 율산, 성수, 종수, 응산, 만성, 보경, 법전 등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어느 새 대중의 숫자가 이미 와 있던 비구와 비구니 묘엄까지 합하여 30여 명 규모로 커졌다.

비로소 성철과 청담은 중국 선종의 청규를 참고하여 봉암사 실정에 맞는 규칙, 즉 공주규약(共住規約)을 만들었다. 청규의 내용은 이러했다.

첫째, 삼엄한 부처님 계율과 숭고한 조사의 유훈을 부지런히 닦고 힘써 실행하여 구경(究竟)의 큰 결과를 원만히 빨리 이룰 것을 기약한다.

둘째, 어떠한 사상과 제도를 막론하고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 이외의 각자의 사견은 절대 배척한다.

셋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공급은 자주자치(自主自治)의 표지 아래에서 물 긷고, 땔나무 하고, 밭에서 씨 뿌리며 또 탁발하는 등 어떠한 어려운 일도 사양하지 않는다.

넷째, 소작인의 세조와 신도들의 특별한 보시에 의한 생활은 단연코 청산한다.

다섯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림은 12시를 지나지 않으며 아침은 죽으로 한다.

여섯째, 앉는 차례는 비구계를 받은 순서로 한다.

일곱째, 방 안에서는 늘 면벽 좌선하고 서로 잡담을 엄금한다.

한 마디로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의 청규였다. 보조국사가 〈정혜결사〉를 선언한 이후 실로 칠백 몇 십 년 만의 일이었다.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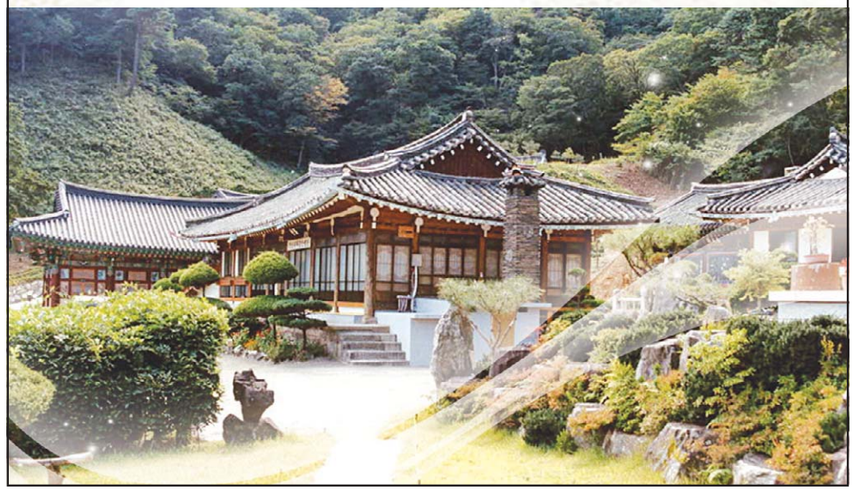
공부하다 죽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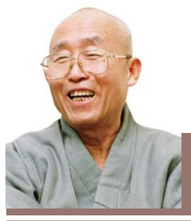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2009년 하안거 결제 5월 9일(음 4.15) ~ 8월 15일(음 6.15)
  ※ 윤5월 관계로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 2009년 하안거 7일 용맹정진 7월 22일(음 6.1) 03시 ~ 29일(음 6.8) 03시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19>

경전에서 부처님 만나고 스승 찾아야

(730호 이어서) 그 호념의 하나가 부처님의 정명(定命)이 백세(百歲)이신데 칠십 구세로 열반에 드시고 나머지 복을 우리들, 유교제자들의 유음(遺蔭=福)으로 남겨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우리들은 상당히 후덕한 보너스를 받은 셈이다. 설산동자(雪山童子)나 살타파륜보살처럼 생명을 건 고행을 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마음으로 일칭나무불(一稱南無佛), 즉 편안한 마음으로 '나무불' 한 마디만 부르면 모든 공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보처존(補處尊)이신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세 가지 덕목은 우리들의 힘든 과제이며 광영스러운 특혜다.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대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들의 온갖 고통을 덜어 주는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부담과 광영을 동시에 물려받았다. 그러나 진실한 신심 하나면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나니, 이것이 불교의 불가사의한 힘이며, 그 힘은 경전을 독송하는 정진에서 생긴다.

우리들 말법유교제자들은 경전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고, 경전을 통해 진리를 알고, 경전을 통해 스승을 찾고 도반을 찾아야 한다. 부처님 생존 시에는 늘 부처님이 계시니 자주 찾아가면 많이 들을 수 있었

편안하게 '나무불' 부르면 모든 공덕 이루어지고
'관세음보살' 한 번만 불러도 모두 해탈할 수 있어

땅의 우리들을 연민히 여기사, '임위급난중(臨危急難中) 칭명실해탈(稱名悉解脫), 아무리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나의 이름 한 번만 부르면 모두가 해탈케 하리라' 고 서원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부처님은 나의 거룩하신 스승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진정한 길이십니다. 부처님의 제자집단은 나의 든든한 길잡이십니다" 이렇게 간절히 외침으로써 불제자의 자격이 갖추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꿈속에서도 염불을 놓지 않게 되면 이미 불퇴전(不退轉)의 지위에 올랐다 하셨으니, 우리들에게 큰 특혜가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남겨 주신 유음을 찾아먹을 자격을 얻었으니, 다음은 그 자격에 걸맞은 임무를 생각해야한다. 임무란 다른 것이 없다. 부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한다. 그 감사하다는 생각을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겨야한다. 첫째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서원이요, 둘째 자기 마음에 때나 그늘이 지지 않도록 선지식을 찾아다니거나 집에서 경전을 독송하며 정진하는 일이요, 셋째 가족과 이웃에게 부처님법의 거룩하심을 알리는 일이다.

지만 오늘날에는 경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한다. 그래서 경전마다 지경공덕(持經功德), 즉 경전을 독송한 공덕을 설하셨으니, 경전이 계신 곳이 곧 부처님이나 존귀하신 불제자가 계시는 곳이라고 금강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다행히 요즘은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대장경을 인터넷에 올렸다. 전부는 아니지만 80%정도는 진행됐으니, 우리 말세유교제자들에게는 반가워해야 할 쾌거다.

열람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열고 포탈사이트 검색창에 '동국역경원' 을 치면 창이 뜬다. 거기서 한글대대장경을 치고, 다시 가나다순에 들어가 경명의 첫 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찍으면 원하는 경이 나온다.

꼭 무슨 경을 보아야할지 짐작이 안 가는 분은 경전의 이름으로 대충 짐작할 수 있으니, 경명 끝에 '○○인연경' 이라 한 것은 주로 인과법문이요, '○○공덕경' 이라 한 것은 주로 공덕법문이요, '○○본생경' 이라 한 것은 역시 인과 인과법문으로서 주로 전생 이야기가 들어 있으니, 이들 쉬운 경부터 읽어가노라면 차츰 독서력(讀書力)이 생겨 무진법장(無盡法藏)을 혼자서 임의 당당(堂堂)한 유교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마음으로 발원하자.

봉선사 조실

업력으로 살긴 쉬워도 원력으로 살기는 어렵다

정락 스님 법문집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 … 행복의 열쇠 찾기 가르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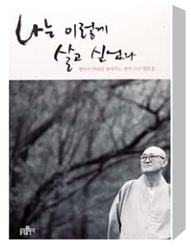
1994년 조계종 개혁 이후 첫 선출직 포교원장을 역임했던 정락 스님(만의사 회주)의 '법문' 은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웅변적이기 보다는 자상하고 쉬운 비유로 법문의 '참맛' 을 보여주는 정락 스님은 수첩이 법문 일정으로 빼곡하다. 안양 한마음선원에서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법문을 하는데, 28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또 서울대 병원에서도 25년째 매주 금요일 법문을 하고 사법연수원이나 기업체 공무원교육 등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맛있게 요리해 전해준다.

"무진장 스님의 법문과 암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두 분의 법문 스타일 중간쯤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정락 스님의 법문은 다양한 비유와 정곡을 찌르는 생활이야기 그리고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이루어진 '명품' 이다. 법회 현장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대중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는 정락 스님의 법문 이력 30년 만에 첫 법문집이 나왔다.


정락 스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다>라는 책의 제목이 좀 모호하게 느껴진다. 도대체 '이렇게' 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책을 잃지 않고는 알 길이 없다. 우선 책 속의 이야기 두 토막을 맛보자.

어떤 신도님이 장갑 한 켤레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겨우내 따뜻하게 잘 썼는데 어느 날 장갑이 한 짝 밖에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짝을 다 잃었으면 주운 사람이 잘 쓸 텐데…' 하는 생각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한 짝을 찾을 생각부터 하였지요. 이렇듯 생각을 선택하는 것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인생관을 가졌다면 그런 판단이 앞설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물어보면 그런 선택을 하리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아까워서 찾으려는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판단은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돼야 합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설거지를 하는 것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며느리 잘 못 얻었다' 고 생각하며 딸네 집에 갔습니다. 딸이 설거지를 하다가 사위에게 같이 하자고 하니까 사위는 '남자가 왜 부엌에 들어가느냐' 며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할머니는 '사위를 잘 못 얻었다' 며 속상해 합니다. 그런데 아들에 집에서는 '부부가 서로 네 일 내 일 없이 사이좋게 같이 하니 참 좋다' 고 생각하고, 딸네 집에서는 '사위가 사나이 대장부답다' 고 생각하면 속상할 일이 아닙니다. 이치로는 잘 아는 일이지만 자기 입장만 생각하니까 여유도 없고 배려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간결하게 정리된 법문을 통해 정락 스님이 한결같이 당부하는 가르침의 핵심은 '업력(業力)으로 살지 말고 원력(願力)으로 살아야 한다' 는 것이다. 보살행에 해당하는 원력의 삶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어느새 중생심에 이끌려 업력의 행동을 하는 게 보통사람들의 삶이다. 장갑을 잃어버리고 처음 하는 생각이 업력과 원력의 차이다. 또 며느리와 사위를 보는 할머니의 마음자리가 업력에 치우친 대표적인 사례다.

"나는 업력보다는 원력으로 살고 싶었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수행자로서의 원력 보다는 중생의 업력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늘 나는 원력으로 살고 싶어요."

정락 스님은 "진정한 수행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려는 마음마저 놓아 버리는 것"이라며 불자들이 업력보다는 원력에 의해 살아가는 길을 다양하게 제시해 준다. 염라대왕 앞의 업경대는 원력보다는 업력에 의한 행위를 더 잘 녹화하므로 원력의 삶에 중독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게 스님의 당부다.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근본불교 수행의 모든 것



37수도장
법수 지음
생각나눔 펴냄
1만5000원

37수도장이란 초기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수행의 총칭이다. 우리가 알고 잇는 근본불교의 교리들이 그 바탕이다. 4념처, 4정단, 4여의족, 5근, 5력, 7각지, 8정도를 합해 37수도장이라 한다. 이 지침은 부처님이 행했던 수행이며 그 각각의 수행에 대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원리와 방법 등을 소개한 것이 <37수도장> 이다.

저자 법수 거사는 중앙승가대학 역경과를 나와 초기불전의 세계에 심취했었다. 37수도장의 수행에 입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근본교리에 대한 설명은 물론 본격적인 수행 과정에서 놓치거나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다.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길



행복한 출근길
법륜 스님 지음
김영사 펴냄
1만800원

30년 전 정토회를 꾸린 이후 지금까지 인권과 통일 평화 운동을 줄기차게 이끌어 온 법륜 스님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내놓았다. 남들은 내일을 위해 오늘 희생하라고 가르치지만 법륜 스님은 다르다. 오늘 이 시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뿐이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잃어버리기 쉬운 '자신' 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만들어 준다. 상생과 조화의 가르침은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고 슬프지 않고 사는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남을 이해하는 삶, 습관을 뜯어 고치고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 주는 삶을 바란다면 '행복한 출근길' 에 동참하라.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3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4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5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6	깊고 깊은 연꽃 가르침	혜국	사유수
7	광명진언기도법	일타, 김현준	효림
8	인과경	현담	선
9	세어본 소만 존재한다	월호	운주사
10	문 안의 수행, 문 밖의 수행	월호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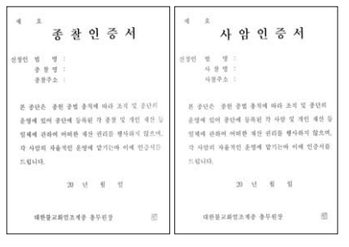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3권
전 30권중 제 13권 출간!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을 결집한 선문염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 보인 선문염송 13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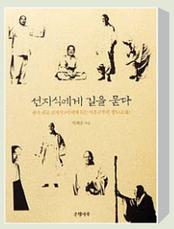
빗살문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 2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한불교 화엄조계종
입 종 안 내
대한불교 화엄조계종에서는 부처님의 정법을 널리 홍포하고 뜻을 함께 하실 종도들을 모십니다. 특히 본 종단은 종도들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종단 운영도 맑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군소 종단들이 난립하여 정통성이 많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종단은 투명한 종단운영과 정통 수행법에 따른 정진으로 일구어 지고 있는 바, 최고의 종단으로서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엄조계종은 귀일심(歸一心)을 목표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심사상과 통불교적(通佛敎的) 귀일사상(歸一思想)인 화쟁사상(和爭思想)과 일체무애인 일도출생사(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바탕으로 이 세상이 진속불이(眞俗不二)평등무애(平等無碍)한 화엄으로 장엄되는 그날까지, 대승불교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종단이 될 것입니다. 입종에 대한 많은 문의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428번지 봉황사
■ 문 의 : 총무원 054)632-2799
총무원장 011-228-7813
대한불교화엄조계종 개인 사찰 보호 특별법 중에서 –
제1조. 개인 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 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 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본종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종 찰 인 증 서
사 암 인 증 서

수행 살림 공개
대표 선지식 8人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
박희승 지음
은행나무 펴냄|1만5000원

한국 대표 선지식 여덟 분이 선방 지대방에서만 회자되던 수행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이 펴낸 <선지식에게 길을 묻다>를 통해서다. 이 책은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이 주관하는 간화선입문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저자가 5년 전 월간 <법회와 설법>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

진제(75) 혜정(76) 고우(72) 우룡(77) 무비(66) 근일(69) 무여(68) 혜국(62) 스님 등 조계종 큰스님들의 깨우친 경지와 수행 방법, 일상생활 등이 진솔하게 정리돼 있다.

책에서 혜정 스님은 "화두를 참구하던 중 벽이 사라지고 몸이 공중에 뜨는 듯한 경계를 체험한 뒤 확실한 발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우 스님은 불경을 읽다가 "<육조단경> '정혜불이품(定慧不二品 통)'에서 '통류(通流)'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불교란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며 "자기를 비우면 지혜와 자비가 드러나 영원한 자유와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우룡 스님은 "<능엄경>을 볼 때 아난이 돼야 하고, <금강경>을 볼 때는 수보리가 돼 부처님과 직접 대화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혜국 스님은 "머리에 발우를 올려놓고 참선하다가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순간, 발우가 와장창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찰나에 내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체험을 소개했다.

김성우 기자

전륜성왕 아쇼까의 숨겨진 이야기
인도철학자 이거룡 교수 아쇼까 왕 일생 연구 결과 담아

유교의 한무제, 기독교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비견되며 불교가 세계종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아쇼까(Ashoka · 阿育王) 왕. 불법을 수호한 전륜성왕(轉輪聖王)으로 불려진 아쇼까 왕을 본격 소개한 단행본이 국내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도철학자인 이거룡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최근 <전륜성왕 아쇼까>를 통해 고대 인도내의 지역종교였던 불교를 아시아 전역으로 전파한 아쇼까 왕의 일생과 당시 마우리아 왕국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저자는 책에서 흔히 깔링가국 정벌에서 10만 명을 학살한 일을 후회해 불교도가 됐다고 알려져 있던 아쇼까 왕이 실제로는 그 전부터 이미 불교도였으며,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참회해 더욱 독실한 불자가 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99명의 이복형제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설화에 대한 규명 등 그간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바로잡고, 남전(南傳)과 북전(北傳)으로 갈린 상반된 서술들을 비교해 아쇼까 왕의 일생 및 당시 인도의 정치, 행정, 영토, 문화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책에 따르면, 아쇼까 왕이 전륜성왕으로 칭송된 것은 그가 정복전쟁을 참회한 후, '다르마(法)의 길'에 따라 자기 백성을 인도했기 때



문. 그는 공공사업을 벌여 병원과 급식소를 세우고 의약품과 식량을 공급했으며, 곳곳에 가로수와 과수를 심고 우물을 파 분수와 휴게소를 세웠다. 심지어 가축병원을 세우고 동물학대를 금지하는 법령을 만들기도 했다. 특히 전법(傳法)에 대한 왕의 공헌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불멸 후 8등분 됐던 불탑은 왕에 의해 나라 전역에 8만4000개의 탑과 사원으로 거듭났으며 붓다의 행적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석주(石柱)를 세워 붓다의 가르침을 기렸다. 왕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스리랑카에 포교사로 보냈을 정도로 해외포교에 열성적이었다.

이거룡 교수는 "불교를 중심에 두고 있으면서도 힌두교, 자이나교 등의 가르침을 포용한 결과 역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화시킬 수 있었던 아쇼까 왕의 삶은 다종교사회인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 크다"고 말했다.

도피안사 펴냄|1만5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일본 종파불교 역사 · 문화 담아



일본불교사
가와사키 쓰네유키 외 · 계환 스님 옮김
우리출판사 펴냄|1만1000원

일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종교와 종파를 창조해 왔다. 저자들은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일본불교사에서 찾는 것은 역사가에게 부여된 책무"라며, 시대 전환기마다 발생한 새로운 종파를 사회 · 정치 · 사상 · 종교적 환경 속에서 유기적으로 파악했다. 책은 △나라 시대의 불교 △헤이안 시대의 불교 △정토교의 성장 △가마쿠라 시대의 불교 △가마쿠라 · 무로마치 시대와 구불교의 동향 △메이지 시대의 불교 등 연대별로 신불교의 성립 배경과 변화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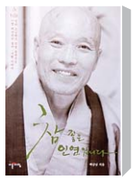
우리 아이에게 읽어줄 불교이야기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고은 지음 · 한태희 그림
지형 펴냄|1만2000원

"옛날에 말이야~."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말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필수.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이름이 오르는 우리나라 대표 시인인 고은 선생이 불경에서 아이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27편의 불교 이야기를 엄선,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썼다. 책은 부처님의 전생과 출가, 수행과 해탈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윤회, 업, 인연 등의 심오한 불교사상을 아이들에게 맞게 재구성해 담아냈다. 우리 전통의 색깔과 문양을 잘 표현해내는 한태희 화가의 그림을 함께 담아내 동심을 사로잡는다.

일가 41명 귀의 일타 스님 이야기



참 좋은 인연입니다
백금남 지음
이른아침 펴냄|1만2000원

친 · 외가를 포함해 41명이나 불법에 귀의한 어느 가문의 실화를, 그곳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일타 스님(1929~1999)을 통해 들려준다. 백금남 소설가가 오른손가락 중 열두 마디를 '연지연향(燃指燃香)'했으며, 말년에는 그것에서 생사리가 나오기도 한 선사이자 율사였던 일타 스님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옮겨놓았다. 책은 불교사상 전무후무하게 41명 대가족이 출가한 불연(佛緣)과 생사를 넘나들며 수행에 전념한 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다. 평생 중생을 위해 연꽃 같은 웃음을 잃지 않은 일타 스님의 법문도 되새기게 된다.

붓다 '입멸' 통해 생사 문제 연구



붓다의 입멸에 관한 연구
안양규 지음
민족사 펴냄|2만원

참선은 생사(生死)로부터의 해탈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붓다의 입멸(入滅)은 깨달음의 본질을 밝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책은 부파불교 시대에 편집된 팔리어 주석서와 아비달마 논서를 활용, 붓다의 입멸에 관한 논의가 불교사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불타관과 열반관의 변천을 자연스럽게 정리했다. 저자는 특히 붓다고사의 주석을 통해 춘다가 부처님께 올린 마지막 공양물이 결코 붓다의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불서광장





무엇이 우리를 불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가|종사르 잠양 캔쎄 지음|이기화 옮김|예지 펴냄|1만800원

영화 제작도 하고 글도 쓰고 예술 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서구에 불교를 알려 온 티베트의 스승 캔쎄. 그는 비불교 국가의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가 가장 주목한 것은 '4법인'이다. 사법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진정한 불자라는 공식이다. 그러면서 불교의 의례의식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고 있다.



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명법 스님 지음|씨아이알 펴냄|2만원

중국역사에 있어 당나라와 송나라의 시대는 '선의 황금시대'다. 이 시대 선의 활발한 기상이 세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는 그동안 선사들의 횡보에 주목하느라 이 질문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송나라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는 찬란한 예술작품들에 알알이 배어 있다. 그 주옥같은 예술들의 기반을 이룬 선의 정신을 연구한 것 자체가 새로운 천착이고 불교학의 영역확장이다.



그대 마음을 가져오라|제운 스님 글 · 그림|청년정신 펴냄|1만5000원

책의 제목은 유명한 달마의 '안심법문'이다. 책의 부제가 '달마와 함께하는 선 여행'이듯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와 화두를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운 스님이 일상사를 통해 건져 올린 지혜의 통찰이 돋보인다. 좌선 대신 선화로 수행을 해 온 제운 스님이 그림에 붙인 화제들은 스님이 '그림 선'을 대하는 마음이고 닦는 마음이다. 화제들의 풀이를 차근차근 읽다보면 달마의 진면목이 눈앞에 나타난다.



즐거운 수행|김정빈 지음|다산초당 펴냄|1만3000원

베스트셀러 작가이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저자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상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해서 만난 위빠사나 수행은 저자에게 삶의 정신적 문제를 뿌리 채 치유하는 매력적인 힘이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 준 수행. 저자는 우선 욕망 줄이기를 강조한다. 마음의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다음에는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체득이다. 명상은 즐거운 삶을 이루어 주는 힘이라는 것이다.



내 몸 희망 보고서|아보 도우루 · 히로사치야 공저|이윤정 옮김|부광 펴냄|1만3000원

<면역혁명> <약을 끊어야 병이 낫는다> 등으로 알려진 아도 도우루 박사가 불교학자 히로사치야 박사와 함께 집필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 지침서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과격한 의학보다 인체에 유익하다는 아보 도우루 박사의 이론과 병을 적대시하지 말고 삶의 일부로 여기고 서서히 치유하자는 히로 사치야 박사의 이론이 결합된 것이다. 두 저자가 번갈아 가며 주제를 설명하고 있어 읽기가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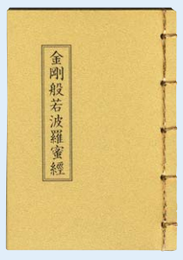


변형|오쇼 지음|이선화 옮김|슈리 크리슈나다스 펴냄|1만원

명상 열풍의 진원지 오쇼의 변형 타로다. 점성술이 아니라 명상을 위한 카드다. 60개의 주제로 이루어진 변형 타로는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다. 웃음이라는 타로를 꺼내고 하루정도 웃음을 묵상하며 살 수도 있다. 소개되는 카드들이 어느 날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세계의 위대한 전통들을 집약한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으로 오세요 www.hyunbul.com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식 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 26×16×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앓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 · 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자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게)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초혼 · 재혼 일본으로 결혼 하실 여성분

해성불원자비회는 봉사단체로서 실비로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라고 노력하는만치 완전 무결함을 우선으로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 담당 : 만해 스님 합장 우.402-202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전등사 내)
주 · 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연락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옆 (아자빌딩 1505호)

결혼정보회원모집

초혼 재혼 (불자 자녀)

불자 자녀 男女 서로가 정보를 몰라서 혼사를 못 이루는 가정에 해성자비회에서는 신뢰있는 정보를 알아내고 나아가서는 사찰 스님들의 자문도 받고 다각적으로 신상 파악하여 본인 소개서 희망사항들을 여러모로 탐색하여 신빙성이 확실할 때 男女의 만남을 주선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방법
1. 본인소개서(상세히 기록)
2. 직장 확인서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자택 유, 무
5. 사진 명함판
6. 다니는 사찰명

※ 통신비로 회비 3만원 동봉

E메일
http://cafe.daum.net/kimsangrok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27 조카의 더덕 1

"더덕은 방망이로 납작납작 두들겨야"

노모네 옆집에 사는 조카 미진이가 더덕을 사들고 왔다. 더덕이 먹고 싶던 중에 마침 지하철 한쪽에서 더덕을 팔고 있는 할머니를 발견해 사왔더란다. 소꼬리를 고는 노모 옆에 앉아 조카는 껍질을 벗긴 더덕을 깔아놓고 신나게 방망이질이다. '더덕'이라는 음식은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여겼는데, 어린 조카가 향수의 음식쯤으로 여기는 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 물었다.

"너는 하고많은 음식 중에 어떻게 더덕이 먹고 싶을 수가 있냐? 요즘 애들 취향은 아닌 것 같은데…."

"더덕이 얼마나 맛있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봐서 그런가. 아빠가 더덕 두들기는 것도 많이 봤구…."



더덕은 방망이로 두들겨 납작하게 만들어야 맛있다.

조카는 그런 이모의 질문이 되레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하기야 도심에서 자란 나에 비해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는 조카에게 더덕은 낯익은 음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미식가인 형부의 예민한 입맛을 닮았으면 그럴 만도 할 것이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집에서 해먹어봤는데 그땐 방망이가 없어 칼등으로 찍었더니 더덕이 걸레가 됐어."

"그러면 당연히 걸레가 되지. 더덕은 방망이로 납작납작하게 두들겨야 하는 거야."

십여 분이 지났을까, "할머니,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라며 적당히 짓이겨진 첫 작품을 들어보이는 조카에게 노모는 흔쾌히 OK사인을 보낸다. 잠시 후, 짓이겨진 더덕 하나를 찢어 맛을 본 노모가 "달다 달어"라며 감탄사를 연발한다. 노모가 건네준 더덕 한쪽을 냉큼 받아먹은 조카도 "음~ 다네"라며 할머니의 바통을 이어 이내 흡족한 표정이다. 그런데 노모가 내게도 더덕을 들이미는 순간, '더덕'이라는 음식과 친숙하지 못한 내 입에서는 "나는 더덕 싫어"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말았다.

"아니 별 입이 다 있네.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몰라서 그렇지, 고기도 마다하고 먹는 게 더덕이야."

"할머니, 이모는 여태껏 진짜 맛있는 건 못 먹어보고 다닌 것 같아. 이 좋은 더덕 맛도 모르는 걸 보면. 그래서 어떻게 먹는 얘길 써."

조카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러게 말이다"라며 장단을 맞추는 노모의 얼굴에는 쌤통이라는 표정이 역력하다. 두 사람은 무심의 경지에라도 이른 듯 각자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과 토닥토닥 쉼 없는 방망이질을 이어간다. 부엌바닥에 다소곳이 앉아 더덕을 두드리는 조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어릴 때 할머니 손에서 자라 동생과도 같은 조카가 부쩍 성숙해진 느낌이다. 새삼 요리에 관심이 많아진 것을 보면 시집갈 날도 멀지않은 듯한데.

"아냐, 그전부터 요리에 관심 많았어.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해. 그런데 문제는 내 입에는 맛있는데 다른 사람들 입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

조카의 다소 의기소침한 말에 노모는 이내 "제 입에 맛있으면 남들 입에도 맛있지, 남들은 뭐 별난 입이여"라며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작년에 조카가 봄맞이 기념으로 새싹비빔밥을 해주었다는 희미한 기억까지 들쳐 내며 노모가 자랑을 하니, 자신감이 회복된 조카가 대번에 "제가 조만간 찜닭 해드릴게요"라며 더욱 신통방통한 소리를 해댄다. 그런데 '찜닭'이라는 음식은, 요리라면 젬병인 내겐 만들어볼 엄두조차 못내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메뉴가 아니던가. 방금 전 했던 "제가 조만간 찜닭 해드릴게요"라는 말이 토시하나 빠지지 않고 귓전을 뱅뱅 맴돌아, 급기야는 입에서 "뭐 찜닭?"이라는 말이 솟구쳐 오르고 말았다.

"한두 번 해보니까 쉽던데. 닭볶음탕도 해보고 백숙도 해보고 닭 가지고 하는 건 다 해봤는데, 닭요리가 가장 만만한 것 같아. 해물탕도 해보고 생선찌개 종류도 얼추 다 해본 것 같아. 여태까지 해본 게 또 뭐가 있었지…."

"아니, 너는 어려운 걸 그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째 이모는 한 번도 뭘 얻어먹어본 기억이 없는 거니?"

조카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오는 요리품목을 듣고 있다 괜스레 심술보가 불러온 나는 무언가로 응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기분에 '먹는' 전공이라도 살려 맞장을 떠본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행복한 삶을 위한, 선과 禪 심신건강 心身健康 33 기대

박지숙 박사 한·양방 의료센터 salm 마인드힐링연구소

'기대'만 하지 말고 표현하고 행동 유도해야

환자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하소연 중에 하나가 바로 '불평불만'이다. 즉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떤 행동이나 표현, 말 등이 상대에게서 나오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이다. 그러면 대부분 하는 말들은 "우리집 남편은 살갑고 정답게 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직장 상사는 무조건 명령조로 얘기해요" "우리 엄마는 너무나 일방적으로 저에게 본인의 의사를 강요해요"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나 무뚝뚝해서 표현을 할 줄 몰라요" "우리 여자 친구는 나를 너무 구속하고 간섭해요" 등등.

이것은 상대에게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이다. 일종의 기대치를 나름 설정해 놓으면 이것에 못미치는 반응이나 표현 양식들이 나오면 우리는 흔히 실망이나 나아가 분개까지 하게 된다.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남편이나, 직장상사에게 당연히 나의 말이나 행동들도 무뚝뚝하고 불만에 가득 찬(제대로 표현도 안하는) 체로 나가게 된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 둘의 관계는 서먹해지거나 서로 불만을 가득 쌓은 채로 으르렁거리거나 서로 포기하는 상태인 신세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대치 0으로 갖기

우리는 살면서 나와 다른 의견과 사고와 느낌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나와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어쩜 니가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싸우거나 상대를 힐난한다. 그러나 단호하게 얘기하는 바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절대 내가 될 수 없기에 '나 같으면 그러지 않는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상대에게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나 말 행동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분개하거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직장일로 심기가 언짢은 그녀에게 그녀가 먼저 표현 안해도 그이가 자상하게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주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는 알 리가 만무하다. 그의 애정이 식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다. 단지 그는 그녀가 아니고 독심술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르고 얼마든지 지나칠 수 있는 문제며, 사실은 그 나름대로 그녀 눈치를 보며 심기를 살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그녀는 그녀가 원하는 말과 행동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급기야는 그에게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한다.

"자기는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해?"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없는거야?" "나 같으면 자기가 그렇게 상심해 있으면 그렇게 태연하게 있지 못할거야!"

당황한 그는 버벅대거나 난처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얼버무리기 바쁠 것이다.

"니가 말을 안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왜 나한테 신경질인데?" "니가 항상 그따위니깐 내가 아무 말을 못하는거다"라는 등 상황은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될 뿐이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러니 상대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이도 이렇게 행동하겠지, 말하겠지" "내가 이만큼 베풀었느니 이만큼 돌아 올 것이다" "내가 사랑하니 저 사람도 날 이만큼 사랑해야 해" "내가 친절하게 했으니 그 사람도 친절하게 대하겠지"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통들이다.

(02)576-7575



정성근 거사의 **천년초 이야기** 7

기능정상화 유지·보전하는 '항상성' 으뜸

이제는 소아나 청소년들도 성인병으로 분류되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저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질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성인병이 과연 맞는 표현일까?

학자들은 성인병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기능이상증세'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혈압의 조절이 정상이면 고혈압과 저혈압이 없듯이 성인병은 우리 신체의 각 신체 기관들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는 증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연재를 이어오면서 먹는 것부터 잘못된 현상을 계속 연결해서 논하고 있다.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에 이르는 시간은 아주 오랜 시간 유지되고 길들어져 온 섭생과 생활 습관이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하려면 망가진 기간만큼의 시간을 들여야 복구된다고 보면 된다. 성인병에 걸린 사람이 본래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망가진 기간의 2배는 걸린다고 보면 된다.

산삼, 인삼, 가시오가피, 천년초, 영지버섯, 상황 등은 기능정상화 및 정상기능의 유지를 보전하는 항상성(恒常性)을 가지고 있다. 이 들 중 천년초는 뛰어난 항상성을 함유한 단연 으뜸인 보양식이다.

구소련은 당시 소련의 우주과학을 연구하던 때 우주라는 혐악한 환경에서 가시오가피가 항상성을 보전하는데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지만 가시오가피는 비싸고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것 외에는 효능 자체가 무의미한 산삼을 다량 구할 수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의 차선책이었다.

물론 산삼은 희귀성과 더불어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연구를 해왔다. 반면에 태삼인 천년초는 멸종의 위기를 겪다가 겨우 종족의 씨마름을 겨우 피한 상태이다 보니 연구가 최근 서서히 시작되는 형편이다.

그럼 무엇을 근거로 천년초가 지니고 있는 기능정상화를 돕는 항상성이 모든 것에 뛰어나다고 믿는가? 천년초를 오래 드셔온 분들을 인터뷰 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 "아프던 곳이 나았다" "암이 나았다, 당뇨가 없어졌다"등의 엄청난 호전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아픈 데가 없어졌어요. 심지어 아이들도 감기가 왔다가 지나가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이 말은 나의 귀를 순간 커지게 했다. 아이들이 감기로 앓아 눕고 병원을 가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바로 항상성 섭취로 인한 것이라 나는 굳게 믿는다.

우리는 감기를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감기는 신체 기능 저하를 나타내는 지표다. 내 아내는 환절기면 특히 겨울 내내 감기에 잘 걸린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천년초를 복용한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들었던 소리를 한다. "감기가 왔는데 심해지지 않고 지나갔다"고…. 집에 얻어놓은 천년초를 말하지 않아도 먹고 있었던 것이다. (02)780-0098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최소 비용으로 천도재를 봉행하여 드립니다



극락사는 중생의 고통을 자비로 섭수하시는 부처님의 교화도량입니다.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최소의 비용(관욕비)로 봉행하오니 사부대중은 두루 동참하시어 조상님의 극락왕생과 소원성취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 불교식 임종, 입관, 발인, 하관
- 49재, 백일재 기도, 영가 천도재, 기제사 외
- 수능기도, 생일기도, 안택기도 접수 봉행 중
- 중생들의 삶에 대한 고민상담 (매주 금. 토 오전 10사-3시까지)

사패산 의정부 극락사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맞은편 동양빌딩 6.7층)
전화 : 031)836-0477 / 010-4111-7523

사찰 종합 보험 전문

사찰내외의 다양한 위험(화재 풍수해 도난 등)에 대한 대비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상해 질병의료비 보험 상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담
은퇴 후 노후 설계 상담

종합자산관리사 (IFP) 이진우 합장 011-766-1001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전통사찰 등록
문 화 재 등록
종교법인 등록
"비법인 설립"
(서류대행)
성산개발
011-9476-9001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예수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역학, 빙의, 퇴마법, 전수
명리학, 주역, 매화역수
성명학, 풍수지리
실제 감정 위주로 속성 개인지도
빙의 퇴마법 속성 개인지도
010-7443-3060
(도통 합장)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대한불교도서관건립 불사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하옵고, 불자님들의 가내에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佛書의 典當 대한불교도서관 건립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선근인연을 기다립니다 현책도 대 환영합니다
대한불교도서관추진위원회
010-2002-6332

각종 불공 범음·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소원성취기도
대학입시, 사업성공, 스트레스 우울증,변비,각종 집안 우환,아들딸 액운소멸
※가정방문기도와 상담도 합니다※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하실 분 노후생활 회향을 잘 하실 분 지장경 테이프를 드립니다. 상담환영
010-7797-4355/016-787-3977
꿈바위 불교교육원
010-6789-5008

불교의식.영가천도
상담. 49재
바라춤, 나비춤,
회심곡, 복고춤
010-8677-3786

빙의,49재,태중영가
알콜중독,우울증,자녀문제
묘터장애,사업부진,장기수양,기도
*SBS 등 TV 다수출현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054)383-8553
011-9585-4908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법당 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부전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 바랍니다
(비구승)
010-6771-54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1-527-0637

조계종 조용한 고찰 산자수려한 곳에 평생 정착하며 살곳을 찾는 원력있고 사원운영관리하며 정진할 본종 비구니 40-50대 구함. 단, 면접 후 결정함.그리고 내집처럼 의지할 오래 있을 40-50대 불심있는 공양주 급히 구함
▷경북 소백산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 불자님께 맞는 기도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숙면을 취하시지 못하시는 분,
- 원인모를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
- 우울증, 공허감,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되시는 분.
- 빙의, 수맥차단, 태아령 천도 무료상담

표심스님 010-7588-4504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포천
010-4015-9494

전통 범패 배우면서
부전 하실 분
모십니다
(4 / 마산)
016-428-666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5세-65세,
보시금은 상담 후 결정)
054)533-5103

비구니 사찰
공양주 모십니다
▷ 경북 하양. 향림사
(40-50대, 숙식 가능한 분)
053)854-217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50대
금호동 관음사
010-6260-33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오래 계실 분, 강원도)
부전비구니,
비구스님모십니다
010-9219-76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189-874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234-2198
011-9721-2198

한옥 / 사찰 (寺) 건축 전문
● 사찰건축 기획, 설계, 시공일체 고(古)건축 전문 기술자, 기능인들이 완벽한 이론과 경험에 기초하여 책임시공.
● 기초, 토목공사 / 골조공사 / 마감공사의 전문성 차별화된 시공 노-하우
031)581-2120 / 010-6405-2060

소생은 거창하지 않지만 비교적 안정된 개인사업(물류유통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성실한 사람으로써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서로 위하고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불심이 돈독한 40대 중, 초반의 어질고 자비심 있는 보살님을 인생의 반려자로 모실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010-9733-5858

동양구운 마늘환
● 강한 면역력 증가
● 수족 냉증에 탁원한 효과
● 스테미너,만성피로 해결
080-365-3654 (동양물산)
www.gk24.co.kr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 다음카페 : 출가생각(http://cafe.daum.net/beamonk)
단기출가학교 모집
● 대상 :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일시 : 7월1일(수) ~ 7월 15일(수) 15일간
● 대구근절,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 = 수행자의 모든 것
● 출초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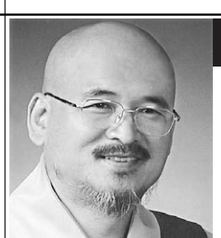
노인행자 두분 모십니다
출가의 시기를 놓치신 남녀.
수행 실천비 月 30만원(3개월후 부터)
오전에 절일, 오후에 농장관리, 아침저녁 예불,
하루2시간 공부.증명사진, 가족사진, 이력서, 초본
문의 041-541-0533(寺)
아침 9시-오후 6시 (조계종 만불교 총무실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유명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풍수지리 전문가 과정 6개월 완성
형기 이기 패철 보는법 명당 잡는 법. 5/21(목)19시 개강
원장 전용원 박사 직강 정원 10명.
◆ 전용원 : 중문학박사로 청오 지창룡박사의 제자.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고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음
◆ 인터넷 동영상강의 : 주역 사주 관상 풍수 육효 수상 사주 전과정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www.kbs.cc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전화 1688-1137
서울 동대문운동장역 4번출구 경동교회 뒤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어떻한 소망도 28숙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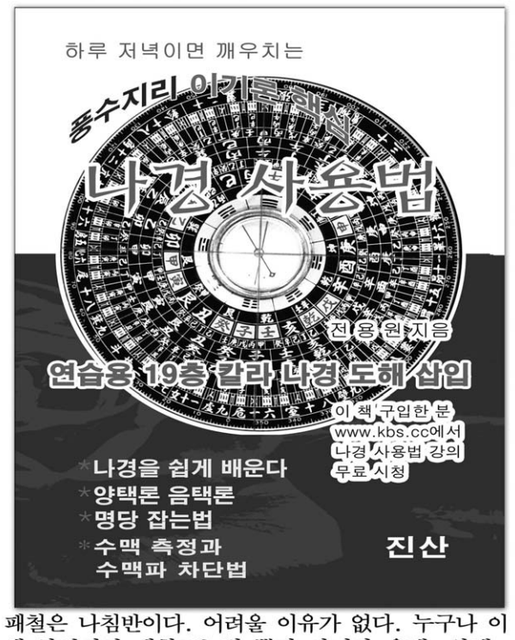
"승인 · 교환 알림"
효사활인천역집 Ⅰ · Ⅱ · Ⅲ에 이어 탄생된 이 시대 최고의 우리 活人天役書 用 CD프로그램 "완결판"입니다.
효사활인천역집 CD 완결판
「육임래정비법」시리즈 (육임래정비법 1권 / 6권 -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2권 · 육임래정비법혁신판수정보완본 12권 · 육임대계전서 60권 · 효사육임복변집 60권)에 이은 "최종판"입니다.
효 사 육 임 산 책
www.taotemple.net 부산 051)908-8683

귀신뽑는 백초귀장술 비법 전수생 모집
찾아 온 시간만으로 왜왔는지, 상대방 마음을 알 수 있는 래컹비법 공개!
매사가 꼬이고, 불행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어느 조상이 탈이 나서 방해하는 것인지, 어느 조상천도재를 지내줘야 하는지 등을 한눈에 짚어낼 수 있는 비법은 백초귀장술로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오후 3시 개강※



1:1강의 저자 백초스님 직강
지방에 계신분들을 위한 1일(8시간) 속성반 인기 교육중 (필히 예약가능)
백초율력학당 02) 3667-444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영등포역앞

패철 보는 법



패철은 나침반이다. 어려울 이유가 없다. 누구나 이 책 한권이면 패철보는법 뿐만 아니라 음택, 양택, 수맥, 명당잡는법까지 하루밤에 확실히 배울 수 있다. 문학박사 전용원저. 표지본문 올칼라 46배판 영구보존 정장본. 정가 2만5천원 할인가 2만2천원. 무료배송 + 월간역학 1개월(8천8백원) 함께 증정. 한번에 2권 이상 구입시 권당 2천원 추가 할인. 우리은행 064-301374-13-001 한국역학협회 주문전화: 1688-1137
명당탐지기 관룡자 있음(할인가 66만원+각종 사은품)
저렴 신속 사주 관상 풍수 동영상 강의 www.kbs.cc

佛 불영TV www.불영.kr
바르고 빠른 뉴스 불영TV!
뉴스,법문,다큐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불영TV!
불영TV는 사찰홍보,행사,불교 관련기업 홍보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으로서 타 매체보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합니다.
※ 불영TV에서 판매 중인 스님 법문 동영상 CD



◇ 원통스님 관세음보살보문품 동영상1셋트 CD30장 20만원
◇ 원순스님 원각경 동영상 1셋트 20장 CD 16만 5천원
◇ 각성스님 능가경

주요사업 안내
1. 홍보영상 제작
불영TV에서의 동영상 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세지 전달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이 빠릅니다.
2. 사업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 법문 등의 동영상을 제작해 드립니다.
3. 프로그램 판매
불영TV 동영상 프로그램 구입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 문의 |
02)2236-7208 / 017-207-7208
김봉환 합장



토종약초 향토이야기



달마스님

KBS, MBC, SBS 방송출연 토종약초 30년간 연구 식약청 약초약품 허가. 팔도명산 바위틈에서 자생하는 각종 야생약초 만병초, 칠선초, 당귀, 용담, 천상무, 오가피 그 외 100가지 보유

*비만, 다이어트, 뱃살제거(한달에 2.3 KG 빠짐)
- 칠선초 ₩100,000
*아토피-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 확실
- ₩100,000
*골다공증, 뼈부러진데
- 토종약초 ₩100,000
*허리 아픈데 - 토종약초 - ₩100,000
*당뇨(합병증), 간경화, 위장병, 고혈압
- 토종약초 (특수비방) ₩100,000
*만성변비- 토종약초 별 방법해도 안되시는 분 ₩100,000
*코골이, 비염 - 토종약초 특수비방 ₩100,000
*각 종 암 - 지리산 비단풀, 만병초, 상황버섯 100가지 토종약초
그 외 필요한 건강무료상담. 성불하십시오

TEL : 051)866-1138, 010-6413-1388
농협 813083-52-062061 정광채
네이버 검색 부산 천황사 방송보기 클릭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iom@hanmail.net
FAX 02)737-0696
※ 접수마감 : 매주 수요일 오후.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위치 : 강원도
● 부지 : 약300평	● 부지 : 470평	● 부지 : 400평
● 법당 : 15평	● 법당 : 35평	● 법당 : 20평
● 요사 : 55평	● 요사 : 95평	● 요사 : 80평
● 가액 : 6억	● 가액 : 11억	● 가액 : 1억 2천

※전통과신뢰로 쌓아온 광진으로 문의하세요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전화 주세요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동해안지역	● 위치 : 양평	● 위치 : 부산
● 법당 : 25평(목조)	● 법당 : 20평	● 법당 : 21평
● 요사 : 60평	● 요사 : 24평	● 요사 : 50평
● 부지 : 270평	● 부지 : 560평	● 부지 : 190평
● 전세 : 4억	● 가액 : 6억	● 가액 : 7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아주 급한 대사찰 안내

● 위치 : 도심에서 가까운 절
● 총대지 : 4,000평
● 법당 : 30평(목조), 지장전 : 30평(목조),
● 삼성각 : 20평(목조)
요사채 : 60평, 공양간 : 약 45평
● 산세수려, 사계절 계곡물 철철
● 12m 도로접, 평지
● 약 30억 불사
● 가액 : 10억
(개인사정으로 급 안내)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기장	● 위치 : 부산	● 위치 : 부산양산
● 법당 25평	● 법당 30평	● 법당 30평
● 요사채 50평	● 요사 50평	● 요사 50평 2동
● 부지 197평	● 부지 200평	● 부지 200평, 600평
● 가액 : 4억5천	● 가액 : 4억5천	● 가액 : 7억

영주불사 010-9798-1091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 소액 및 고액 다량 확보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8-506-4059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 본존불, 지장탱화,
신중탱화, 영가단
● 법당, 주방, 거실, 방 1나씩
● 보증금 300만원, 24만원
시설비 880만원
032)433-3444

포교원 안내

● 위치 : 온양역에서 300m
● 상가주택 3층 35평
법당1개, 방2개
● 거실 주방 화장실 다용도실
옥상전체 사용
● 전세 4,000만원
041)544-8896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법당 : 20평, 요사 : 30평
● 대지 151평
● 가액 : 9천 5백
● 인근 국가 공단과
한방 특구 공단조성
● 교통 편리한 사통오달
011-811-5466

사 찰 안 내 (포 교 당)

● 위치 : 광명시
● 평수 : 35평(시설일체완비)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02)6674-3535
010-3154-3535
한국불사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영동 시내
● 대지 57평, 법당18평(독립채),
요사20평 (심야보일러)
● 시내 중심가 큰 길변
● 가액 : 2억 (절충가. 1억4천5백)
● 스님 사정상(유학) 급 양도
※ 시세 현값 떠나 양도 합니다
010-7325-125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에서 15분거리
● 대지170평, 건물60평,
입지환경 최상, 보일러
(기름 화목 겸용)
● 사정상 급 안내 합니다
● 기도시간에는 전화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 가액 : 1억
011-437-6950

고급 단독주택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새로 시작하는 불자님 가족에게
● 위치 : 전주 시내 중심. 단독빌라,
아파트 밀집지역
● 단독주택 대지 65평
● 건평 35평,큰방2,작은방2,거실,욕실,
화장실2,구조 – 현대식 아파트 형
● 특징 : 집안 잔디 나무 꽃 있음
● 가액 : 1억 4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 평수 : 대지 300평
● 법당 25평, 방5, 욕실, 주방
● 아미타삼존불,법당공양실물품일체
● 시설비 없음, 조용한 기도처
● 전세금 3천만원.즉시법회가능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 등기필 104평,
기타 사용지 있음
● 건물 : 법당 (단청), 요사채,
스님친견실 3동, 주차 20대 가능
● 가액 : 1억 8천만원(응자 4천만원)
019-550-9725
055)232-7151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송파에서 20분거리
대도로변위치 유원지 입구
● 대지133평, 건평70평
(대웅전 및 요사채)
● 동물 삼성각, 무허가 건물 40평
● 사찰 마당 넓고 뒤 야산 접
● 가액 : 9억 8천만원
011-286-510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부지 500평 임법당 30평
● 요사 40평, 산신각
● 좌청룡 우백호 뚜렷한
포란형(남향)
● 가액 : 2억5천만원
011-452-8374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보문동
● 대지 160평, 법당 45평
● 토굴 : 산신기도 40평
● 요사채 : 130평(해우소 별도3개)
● 2층 건물 중 1, 2층 모두사용
● 서울시내에서 개인사찰로 가장 큰 사찰
● 전세 5억(시설비포함)금액조정가능
010-8577-1811

토 굴 안 내

● 대구근교. 전통한옥을 개조하여
임법당으로 사용. 윗채는 법당과
스님방을 비롯해 다용도실로 사용
방4개. 아래채는 산신각과 공양간
등 방 5개, 주차장과 정원이 가꾸
어져 있으며 바로 옆으로 등산로
가 있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
고 아파트와 상가들이 밀집해 있
는 도심 속 아담한 토굴입니다
● 가액 : 융자 6천만원 포함
1억9천 5백만원
010-3693-353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 밭 1,000평, 산 3,000평
대지 90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2.5평
요사채 60평
● 화장실 3평(외부1), 내부 2개
주차장 200평
스님 요사채 25평
● 가액 : 5억 (오셔서 보시고 가액 결정)
010-9219-769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제천시내
● 대지 80평, 법당 15평
● 요사채, 방 4개, 주방 2,
거실1, 욕실1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 전세, 월세 가능함
● 주인직접
011-792-8969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0-2945-7704

도심속 사찰안내

부산시내 도심속 깊은
산속의 정취가 있는 암자
● 전체평수 200평,
주위 1,000평 활용가능
● 노천불, 법당20평
● 방 大 3개, 거실 1,
큰 마루1 현대식 생활환경
● 가액 : 1억 8천 500만원
011-857-3775
051)866-11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시
● 대지 : 80평
● 법당, 공양간, 요사채
● 가액 : 3,500만원
● 즉시법회가능
010-5385-3677

사 찰 안 내

● 위치 : 마산시
● 법당 25평
요사채 50평, 대지 600평
● 삼존불, 신중탱화
● 가액 : 2억 6천 5백만원
(절충불가) 융자가능
010-3996-2035

포교당 안내

● 위치 : 2호선 낙성대입구
(도보 3분)
● 3층 약 40평, 법당, 방 2개,
주방, 다용도실
● 보증금 1천만원, 월85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절충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40-97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 전체 345평,
법당 시설일체 완비
* 주지스님 건강상 급 안내함
● 가액 : 1억 4천만원
* 하실분 만 연락 바람
011-873-4714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 : 경기도 광주
● 대지 : 등기 평수 374평,
사유지 포함 450평 사용
● 임법당12평, 임요사채50평
계곡접, 산세좋음
● 산신, 용궁, 기도 도량
● 가액 : 절충
● 임대가능 : 전세 5천
월세가능
010-9240-13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원대 5거리 부근)
● 사용하지 않은 신축건물
모든 시설 일체 완비
몸만 오시면 됨. 즉시 법회가능
● 1층 30평, 방 2칸 스님이나
무속인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300만원에 월 39만원
011-9591-9562

사 찰 안 내

● 법당 30평
(극락전 단청 예쁘게 되어있음)
● 산신각 3평(단청) 용궁,
조그마한 기도처
● 벽돌집 요사채 2채,
주차장 100평, 차고 1
● 사찰까지 모든 도로 도로포장
● 가액 : 만나서 절충
011-9133-58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현재 임도 삼림욕을 관광지로
공사 중에 있는 곳
● 대지 800평 법당 25평,
요사채 3채, 방4개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 최고 적합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천안역 도보 7분거리
사거리 위치
● 상가 3층 중 2층 45평
● 법당, 방2, 주방, 화장실, 욕실
● 가액 : 보증금 500만원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5154-7019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동로면 석항리
● 부지면적 : 전 600평
(오미자 오갈피 재배 중)
● 농가주택 건축 가능, 농사전기사용 중
● 백두대간 문복대 아래 동남향으로
뒤는 산을 의지하고 앞은 개울물
이 사계절 흐르며 3m 진입로 중
500m정도 비포장도로이며 마을
과 1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곳
● 가액 : 3천만원(평당 5만원)
010-8555-448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2동
511-1번지 3층
● 건물 : 약 35평(철근 시설완비)
● 가액 : 8,000만원 전세
시설비 2,800만원
※지하철 암사역 5분거리
010-3714-3635

사 찰(급)안 내

● 위치 : 부산 수영구
광안 해수욕장 5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법당 60평
방2, 화장실2, 주방
● 삼존불,산신,후불,신중,칠성,소불 200불
● 전세 1억 1천만원(사글세 가능)
시설비 없음, 주인 직접
● 스님 서울 이동 관계로
010-3019-2236

도심(빌딩)속포교원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모든시설 완벽
● 가액 : 1억 8천
010-7188-7723

사찰터(급)안내

● 위치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화창리
(낭성-초정사이/청주서20분)
● 면적 : 1,700평(현재-나대지)
● 특징 : 남향,포장도접,관리지역,
계곡접,경관수려.
● 기타 : 전원택지,기도원부지,
투자,재테크 가능.
● 평당 : 15만원 / 양도 : 2억5천5백
010-2529-393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사천읍
● 평수 : 65평, 완벽한 시설
즉시입주 법회가능
스님사정으로 급 안내
● 보증금 3천 30만원(월세가능)
시설비 : 절충
055)855-5950
018-622-98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내에서
10분거리
● 평수 법당 1, 2층 합 약 45평
요사채 1, 2층 합 약 50평,
단청필, 시설 A급
● 마당까지 차량 진입 가능,
현대식. 대출가능
● 가액 : 2억 2천만원(절충가능)
010-6298-2588

임 법 당 안 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읍 중심가
● 1층 단독주택 약40평
● 법당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 산신 용왕탱,
지장보살 후불108불,큰방2개,
화장실2개,거실,주방,
10여개 주차공간,
불사관계로 양도함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절충가능)
033)661-2915
011-402-1669

토 굴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43번지
● 평수 : 대지82평,건평 약20평
● 내용 : 시골집 – 지붕개량
(칼러함석),현대식 싱크대 및
욕실,아궁이 온돌, 해발 300
고지,마을과 떨어져 있음.
부처님 모셔져 있음–(신도관
리하지 않고 공부만 하실 분이
적합함)
● 가격: 2,500만원(가격절충가능)
011-9235-0720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평수 : 약45평, 삼존불,
칠성, 산신,용신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에
월2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010-3842-3334

● 위치 : 울산 큰 도로변 옆 시내
● 평수 : 50평
● 삼존불,칠성, 산신, 용신
● 가액 : 보증금1천만원에
월2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절충
052)274-1113

포교당(급)안내

● 경남 김해시 어방동 인제대 부근 ● 평수 : 50평
● 주변 : 대형아파트 다수. 경남일대. 포교 최적지 주변 유동인구 최다
● 5층건물에 4층 엘리베이터
● 법당, 방 2, 주방, 종무소, 내부화장실, 전체난방 에어컨설치
● 몸만 오셔도 법회 가능 / 모든 시설 일체(완비)
● 개인 종교법인 등록
● 보증금 2천만원(조정가능) / 월 5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3834-8545

토 굴 안 내

● 위치 : 하동 악양, 지리산자락
● 부지 : 680평
●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특징 : 마을 외곽 경치 좋음
● 가액 : 2억 2천만원
010-4782-211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총평수 : 1700평중 허가면적 550평
● 건물 : 임법당, 요사채,산신포함 약 100평
※현재 공시중인 사찰로써 갑자기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하게 양도하오니 꼭 하실분만 연락주세요
● 현재 총공사비 약 4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 2억(방문 후 가격절충가능)
● 암자 및 조그마한 사찰과 교환 가능합니다
055)572-0405
011-9850-8208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10분거리
도로포장, 주차 10대 가능
● 특징 : 법당10평 요사채14평 총235평
산신각 및 용왕당 약사불등
경치좋고 양지바른곳
● 가액 : 1억 8천만원
010-6782-2916
(주인직거래 원함)

천하절경 명당터

영서북부지방 강원, 포천 경계자락인 화악산 자락에
창건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명당터 고찰을 뜻 있는분께
양도 하고자 합니다
●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강원, 포천-화악산 자락)
● 교통 : 서울에서 1시간 30분거리, 춘천 30분거리, 가평40분
● 사찰연혁 : 300여년
● 전체면적 : 1만여평 부지 중 대지 3000여평
● 전각 : 대웅전, 명부전, 무량수전, 산신각, 용왕각, 종각
● 부대시설 : 주지접견실, 요사채2, 요사채 및 공양실3,
석등6, 석탑1, 미륵석불1, 관음석불1
● 현사찰가액 : 현 싯가 30억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 실제매도가액 : 17억
● 참고 : 현 사찰은 어떤종단에도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개인등기 입니다.
017-373-5998 (주지스님 직)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여주와
양평 경계의 산사
● 부지: 임야(관리지역:1700평)
종교용지(종종명의 362평)
● 총 건축평수: 145평
대웅전. 삼성각. 종각.
종무실(1.2층건물)요사채1동
창고,옥외 화장실등.
● 양도금액 : 5억 3천 만원

도심속(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 옆
● 2층(27평): 법당(아미타3존불.
지장보살,각각5자)
원목단청불단. 후불,지장.
신중,칠성,산신탱화
● 3층(27평): 요사채
(방5,주방,화장실)
● 양도금액: 4천 5백만원
(보증금 1200만원. 월세 70만원)
017-372-8968

사찰 (급) 안내

● 위치 : 경주시내 15분거리 교통 사통팔달
● 주차장 넓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
● 조립식 한옥 법당 15평, 요사채 30평
● 실내 화장실 2 , 창고 2동 비닐 하우스 1동
● 신축 3년 종교부지 300평 + 대지 = 합 650평
● 가액 : 4억 2천 500만원
019-357-7373

'불교평론' 제6차 열린 논단

찾아라 '내 안의 하나님'과 '나의 참된 나'


오강남 교수.

강 사 : 오강남 명예교수 (캐나다 리자이나大)
일 시 : 2009년 5월 8일
주 제 : <도마복음>과 동양 철학
장 소 : 서울 <불교평론> 세미나실
주 최 : 계간 <불교평론>

<예수는 없다>등의 저서를 통해 불교와 개신교, 개신교와 불교의 사상적 공통분모를 강조해 온 오강남 명예교수(캐나다 리자이나大).

최근 오 교수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도마복음>을 불교와 도교 경전 등을 인용해 해석한 <또 다른 예수>를 출간해 눈길을 끌었다.

오 교수는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사무실에서 격주로 열리는 '열린 논단' 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도마복음>과 동양철학을 비교하는 강연을 펼쳤다. 개신교 신자인 오 교수는 "<도마복음>은 한마디로 '내 마음 안에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구원이다'고 말한다"며 "이는 불교의 '내 안의 부처를 찾아라'와 일맥상통함은 물론 동양의 불교, 노장, 양명학과 통한다"고 주장했다.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를 저술하기도 한 그는 이 강의를 통해 "이 책이 한국에서 그리스도교인들과 불교인들을 이어주는 가교(架橋)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오 교수는 도마복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풀이와 이해를 넘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동양사상과 비교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강의의 요지다.

<도마복음> 발견 원자폭탄 위력에 맞먹어

1945년 이집트 낙 하마디(Nag Hammadi) 지방에서 농부들이 땅을 파다가 항아리를 발견한다. 이 항아리 안에는 열세 뭉치의 파피루스 책이 나왔다. 하지만 농부들은 이 책의 용도를 몰라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일부 남은 문서가 떠돌다 학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불소시개로 쓰였던 책이 금보다 수천 배는 귀한 가치를 지닌 복음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복음서가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가 예수의 어록을 기록한 <도마복음(The Gospel of Thomas)>으로 1세기경에 필사된 복음서다. 옥스퍼드大의 한 학자는 이 사건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맞 먹는다"라고 말했다. 개신교의 일반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도마복음>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도마복음>은 고대이집트어인 콥트어로 쓰였다. <요한복음>과 같은 시기에 필사됐고 내용도 50%정도 비슷한데, 깨달음을 강조한 점이 다르다. 이는 마태 · 마가 · 누가 · 요한복음 등 기존 <공관(共觀)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기적 · 예언의 성취 · 재림 · 종말 · 최후 심판 · 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고, 그 대신 자기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gnōsis)'을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동양의 노장사상, 불교철학, 양명학과 유사한 논리다. 이처럼 <도마복음>은 예수의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는 표현대신 "깨우쳐라, 깨달으라"로 일관하고 있다.

1600년 간 단절된 개신교 '비의' 드러내

세계종교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모든 종교는 현교적(exoteric · 표준적) 종교와 밀교적(esoteric · 심층적) 종교로 나뉜다. 현교는 관심이 주로 기복적인 것, 즉 잘 믿으면 복을 쌓고, 천당을 가는 등의 가르침을 이야기한 반면, 밀교는 보편적으로 '참 나, 진짜 나, 나의 정체성'에 대해 가르쳤다.

공관복음은 주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성을 강조한 반면 <도마복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동일성을 강조했다. 1~3세기에 개신교의 밀교와 현교적 가르침이 공존하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로마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키고 로마제국의 안정을 위해 하나의 교리만을 채택했다. 이때 공관복음 등 복음서 27권을 제외한 <도마복음>과 같은 밀교적 가르침을 포함한 나머지 책들은 폐기돼 1600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서야 발견된다.

불교에도 현교와 밀교가 있고, 힌두에도 <우파니샤드>와 같은 밀의적인 가르침이 있듯 개신교에도 밀의적 단계가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도마복음>은 1600년간 땅속에 묻혀 있었다. 개신교가 그동안 현교적 종교로 만 내려오며 개신교내에서 신비주의적 전통이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마복음>의 발견은 '신은 나와 다른 존재'로 여기지 않고 '신은 내안에 있다. 신은 곧 나다'와 같이 높은 단계의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평가를 받는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보다는 의미 파악해야

기본적으로 종교는 △문자주의 △심리주의 △영적인 것 △신비주의의 네 가지 요소를 공통으로 한다. 문자주의와 심리주의는 현교적이며 영적인 것과 신비주의는 밀교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어떠한 종교이든지 간에 현교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가르침을 뜻하고, 밀교적인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그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털어갈 수 있겠습니까?'"

-<도마복음서> 제35절

<도마복음>의 전체적인 기본 정신을 내면적인 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값진 것을 되찾아 올 수 있으려면 지금 우리의 삶을 소유하고 있는 힘센 자를 결박해야 한다.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그 힘센 자란 결국 우리를 손아귀에 넣고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이기적인 우리의 자아(ego)와 거기에 따르는 욕심, 정욕, 무지, 자기중심주의 등일 것이다. 개신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 자아(ego)'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無我)나 유교의 무사(無私)라는 것도 이런 이기적 자아를 없애라는 가르침이다. 예수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마태복음>)"라고 했다. 나의 작은 목숨, 작은 자아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큰 목숨, 큰 자아와 하나가 돼 그것을 찾게 된다. 내 안의 의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를 쫓아냄, <장자>에서 말하는 '오상아(吾喪我:내가 나를 여읨)'하는 체험과도 그 뜻이 같다.

불성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는 신적 요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것 위에 있는 빛입니다. 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통나무를 쪼개십시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돌을 드십시오. 거기서 나를 볼 것입니다.'"

-<도마복음서> 제77절

'나는 빛'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가 무엇일까. <도마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 개인으로서의 역사적 예수님 한 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요8:58)' 있었던 '우주적 나(Cosmic I)', 곧 모든 사람들 속에 내재한 신성, 하느님, 참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하늘 위와 아래에 나밖에 존귀한 것이 없다(天上天下唯我獨尊)"와도 뜻을 같이 한다. 이때의 나(我)도 한 개인으로서의 아기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속에 있는 '초개인적인 자아' '참된 자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한 이런 신적 요소를 '불성(佛性)'이라 부른다.

천도교 2대 교주 최시형이 제사를 지낼 때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향한 제사임을 강조한 향아설위(向我設位)의 개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시천주(侍天主)'와 '인내천(人乃天)' 즉, '한울님을 모신 내가 곧 한울님이니, 제사를 지내도 그것이 곧 자신에 대한 제사'라는 뜻이다.

내 안의 '하느님'은 참된 '나'

한 미국인 스님은 "내가 <도마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태여 불자가 돼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일본 스즈키 순류 선사 밑에서 선 수행을 한 리처드 베이커 주지 스님(샌프란시스코 선원)이다. 또한 20세기 가톨릭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도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신비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종교적 신비주의의 민주화 즉, 신비주의의 대중화 · 일상화 · 생활화가 요구돼야 만이 모두가 깨칠 수 있다. 원래부터 개신교에는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있었고 이는 텍스트 그대로 해석하는 현교적인 개신교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종교든 간에 문자 그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라는 것이 점차 의미 없는 단계로 들어가므로 '나를 믿고 따르라, 나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는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참 의미를 새겨야 <도마복음>이 강조한 대로 '내 안의 하나님, 나의 참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종교의식이 한 단계 상승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떳떳함, 늠름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자각이 성경에서 말한 자유와 사랑을 줄 것이라 믿는다.

정리=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종교적 신비주의 대중화 · 일상화 · 생활화 돼야 모두 깨쳐
'도마복음'의 '힘센 자를 결박하라' 불교 무아사상과 비슷


세계적인 비교종교학자의 강연인 만큼 이날 포럼에는 저명한 신학 · 목회자들과 불교계 지식인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불자정보 732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평수 : 임야 1928평 중 600평 허가필. 토목공사완료
● 가액 : 2억
● 세계최대 와불산이 있고 소원바위가 있는 곳
010-2554-0347
011-822-0347 주인직접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와룡산 자락
● 면적 답 300평, 임야 200평
● 임시주거지 70평(콘테이너)
● 계곡물이 좋고 산세 수려한곳 바다가보이고 저수지 옆
● 가액 : 평당 10만원
055)855-5950
018-622-9865

사찰 (급)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 시내에서 15분 신행정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472평, 법당 10평
● 요사채 26평, 종각 3평
● 건물 : 흑벽돌
● 기도도량, 경치가 아주좋음
● 가액 : 2억
011-9402-9306

포교당 안내
● 위치: 충북 청주 봉명초등학교
● 2층 32평. 법당1, 방2 주방, 샤워실, 화장실
● 삼존불,탱화,영단 갖추어져있음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스님 건강 관계로 급 양도 즉시법회가능.역학 보살님도 가능
043)266-7451

사찰 안내
자리중에 자리 · 최고의 위치
● 평수 : 약 20평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 방1 , 법당1
● 시설비 : 1,000만원 (절대로 후회없는 장소)
010-3725-2137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정4거리 전철역 옆 인근 재래시장
● 2층 약 30평
● 주방 화장실 목욕탕 방 2, 모든 시설완비
● 보증금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0-7572-1265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 – 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은행동 부근 갤러리아 백화점 부근 정종환약국 옆 건물 2층
● 2층 50평 법당, 방2개, 주방 별도
● 삼존불 신중, 후불, 약사여래 탱화. 시설 일체
● 보증금 200만원에 월 32만원 시설비 일체 : 2,000만원
011-862-8275
010-7100-0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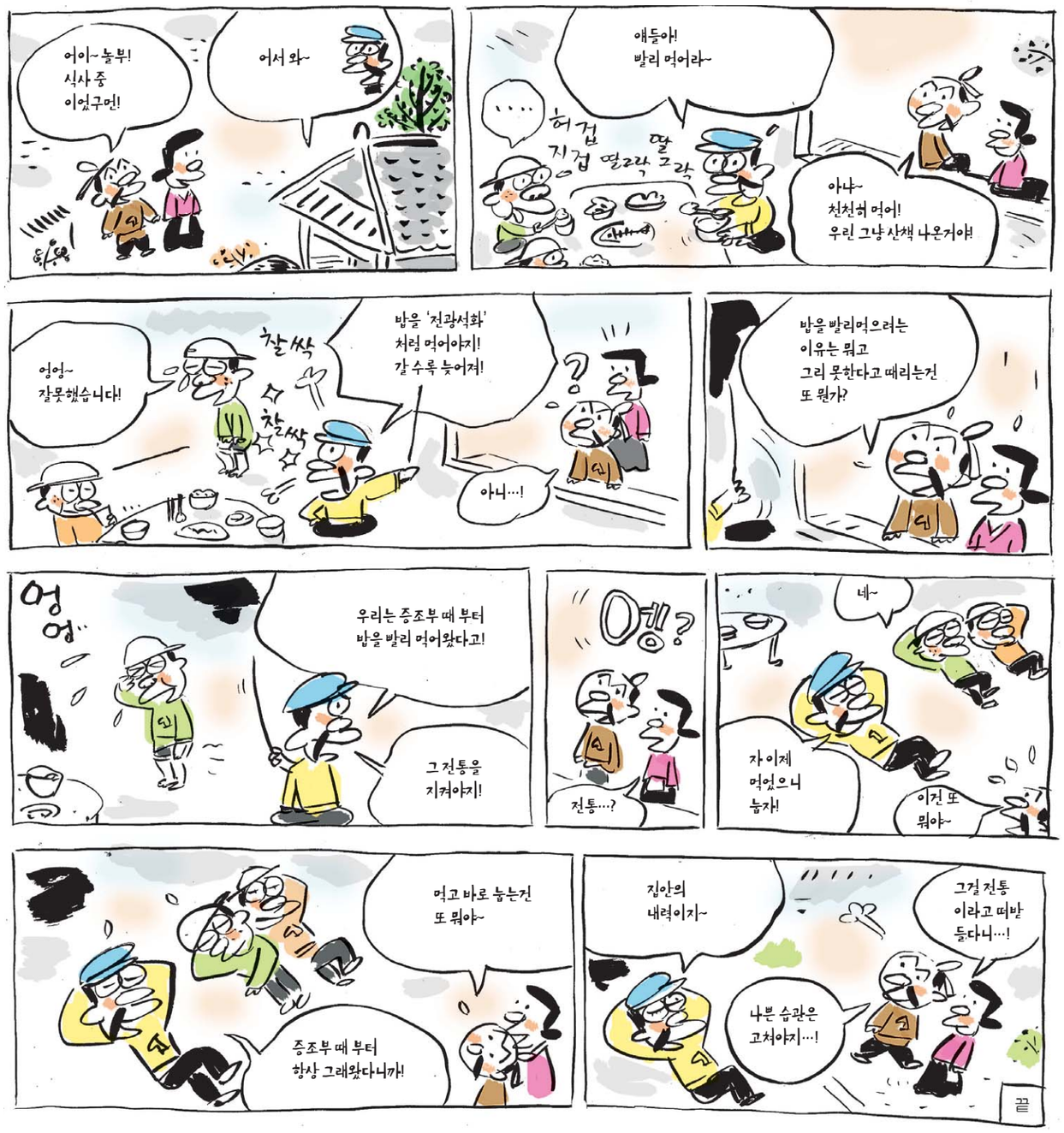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불교 관련 전문 대출 기관
• 사찰 불사대출
• 사찰매매잔금대출
• 기타대출
• 문의전화 053)428-1133
전문상담 徐一永전무
휴대폰 011-527-1037
재무부인가 제9-205호
보 현 사 신 협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665
삼정그린코아상가 1층 101호

기름값의 1/8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울퉁보살 불퉁거사 〈44〉

구성 : 김흥인



음식을 급히 먹는 남편

〈백유경(百喩經)〉



옛날 어떤 사람이 북인도에서 남인도로 가 결혼을 했다. 어느 날 아내가 음식을 차리자 남편은 급히 먹었다. 아내는 이상히 여겨 그 남편에게 말했다. "여기는 도적도 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처럼 바쁘게 드십니까?" 남편은 대답했다. "비밀이라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소." 아내가 간절히 묻자 남편은 "우리 조부 때부터 항상 음식을 빨리 먹는 법을 지켜 왔소. 나도 지금 그것을 본받기 위해 빨리 먹는 것이오"라고 답했다. 세상의 범부들도 그와 같다. 바른 이치를 통달하지 못해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온갖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끝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빨리 먹는 습관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일행 스님이 달력을 만들다
일행조력(一行造曆)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일행조력(一行造曆)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cm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스님인 일행 선사가 국청사에서 산가지로 산법(筭法)을 전수 받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일행 스님은 어려서부터 총명해 경사(經史)와 역상(歷象), 음양오행의 학문에 정통했다. 출가해 보적 선사(普寂禪師)에게 <선요(禪要)>를 배웠고, 선무외로부터 밀교를 전수받고 그를 도와 <대일경(大日經)>을 번역했으며, 선무외의 지도를 받으면서 <대일경소(大日經疏)>(20권)를 완성시켰다. 721년에는 이순풍(李淳風)이 만든 인덕력(麟德曆)에 의한 일식의 예보가 자주 틀리게 나오자 당나라 현종은 일행에게 신력(新曆)을 편찬하도록 명했다. 일행은 먼저 양령찬(梁令瓚)과 협력해 황도유의(黃道遊儀)를 만들어 태양·달·5행성의 운행 및 항성의 위치를 측정했으며, 수력으로 움직이는 천구의(天球儀)도 제작했다. 723년부터는 남궁설(南宮說)과 더불어 대규모의 자오선 측정을 실시해 1도가 당나라의 척도로 351리 80보(123.7㎞)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724년에 역법(曆法) 개편작업을 시작해 역법에 역(易)의 형이상학을 결부시킨 <대연력(大衍曆)>(52권)을 완성시켰다. 이 역법에 의해 계산된 태음력은 그의 사후인 729년부터 전국에 배포됐다. 일행은 일대의 영재로서 존경을 받았으나 45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다. 일행은 위대한 밀교 고승이지만 현대 중국에서는 오히려 천문역법의 과학자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시호는 대혜 선사(大慧禪師)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현종이 일행의 명성을 듣고 조서를 내려 내전에 들어오게 해 그의 재앙과 복덕을 점치게 했더니 그는 손바닥 안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듯 말해 나라에 보익됨이 많았다. 형화박(邢和璞)이 윤암에게 말했다. "일행 스님은 진실로 성인이다. 한나라 때 낙양성 아래에서 굉(閎)씨가 달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르기를 '800년 후가 되면 아마도 하루의 차이가 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한 성인이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 결정해 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올해로 그때 기약한 해가 끝난다. 일행 스님이 그해에 대연력을 만들어 그 차이나고 틀리는 곳을 바로잡았으니 그때 낙양성 아래 굉씨의 말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말이었다."' 일행 스님과 같이 조사들 중에는 학문이나, 과학 등에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이 많음을 새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백결선생

옥상의 방수액이 날아가 버렸는가
천장에서 느닷없이 물방울이 떨어지네
나 어이 계면쩍게도 옛 백결이 되는 건가

양은 냄비 놓은 곳엔 현악기의 딩동 소리
신문지를 깔은 데엔 타악기의 퍽퍽 소리
마음을 비우지 못한 나더러 들으란다

–구중서/시조집 〈불면의 좋은 시간〉

미래를 열어가는 불(火)의 불멸조(不滅鳥)



의장등록번호 제 2008-0052952호
크기 : 높이 22cm×폭 26cm

불멸조는 미륵불의 신장불로서 태양속에 사는 삼족오(三足烏)의 원력과 삼신일체사상(三神一體思想)인 천(天), 지(地), 인(人)의 원력이 함께하여 위에는 세 방위의 날카로운 칼날이 액운액살을 일시로 소멸함으로서 복(福)이 저절로 따라오는 기운이 있는 아주 영험(靈驗)한 길조(吉鳥)입니다.

이 불멸조는 가정, 사업장, 자동차 등 육해공을 움직이며 다니는 모든 곳에 두시면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요즘 많이 떠다니는 영혼들의 액운, 액살, 잡귀 등 등의 조화 부림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는 행복, 건강, 부부금슬(夫婦琴瑟)이 좋아지고 사업장에는 사업번창이 자동차나 움직이는 곳에는 안전과 사고예방을 하는 힘과 원력으로 지켜주는 미래(지금)의 꼭 필요한 불멸조입니다.

(현재 많은 불자들이 영험하다고 스스로 몸으로 느끼고 있으며 신기하다고 함)

미륵부처님의 인중에 들어가는 보석을 안착하여 가정의 앞길을 밝혀주는 두배의 영험력으로 최고의 행운을 열어주는 길상으로 알려진 천연 백수정[石英, Quartz :신의 얼음]을 안착하였으며 순금으로 도금하여 순금의 생체활성파장(生體活成波長)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최고의 호신불(護身佛)입니다.보시금: 700,000만원 보시금은 미륵전에 전액 보시되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 핸드폰 010-8674-5351 031-898-5666
계좌번호 : 우체국 100941-02-294031 (예금주 : 엄 홍수)

말법시대와 나누는
화두이야기

옛부터 조사(祖師)들은 '삶이란 억만겁의 향상로를 가는 것'이며
향상의 여정에서 자기완성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했다.
– 머리글 중에서 –

말법시대의 「지식」과 「과학」은
온통 중생의 탐진치와 천도망상으로 가득 차 있다.
말법의 온갖 허물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으로 진리로운 삶을 구현해 갈 것인가?



고 목 지음
도서출판 미르아이
신국판 464쪽
₩ 16,000

도서구입처 : 전국 주요서점
연락처 총판 | 운주사 02-3672-7181
저자 | 055-353-6142 010-2356-6142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부산지역은 부산농협 각지점 "신토불이 매장"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대행 스님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 불들고 사세요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참 기뻐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진리는 어느 사람이든 다,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한 진리예요. '어머님의 은혜'라는 노래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마음속으로 진짜 부를 수 있는 노래랍니다. 젊은 사람들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는 불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요,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서나 서로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敎)예요. 일체가 혼자, 독불장군은 없죠? 마음의 인연줄이라는 줄은 보이지 않아요.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못 보지만 불이 들어오는 거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그와 같이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인연줄도 역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우주 법계라고 하죠. 그거는 이따 이어 가고요.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불바퀴의 근본이, 우리가 수십억 겁을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한다면, 지수풍(地水風) 세 가지가 서로 암흑에서 휘적거리고 서로 만나서 뭉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바로 온기가 생겨서 광(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광력으로 인해서 생명이 생겼죠. 그래서 지수화풍 그게 원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흙과 물을 개서 바람에 말려서 불에다 구워서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등장을 한 거죠.

불교라는 것이 너무 엄청납니다. 서로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가 전체의 진리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떨어졌어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차원에 따라서 이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고 저 모습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먹는 대로 모두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은 세상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도 서로 교류를 하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교류를 하고, 핀 꽃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나무들도 무정물도 생물도 식물도 다 서로 대화를 하고 돌아갑니다. 대화를 하고 돌아가는 게 즉 교(敎)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을 말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풀포기 하나도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외국에 가니까 블랙홀이라고 합디다.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불바퀴라 이겁니다. 지구가 쉬지 않고 돌아가듯이 우리 인간도 삶에 의해서 생활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잔다 깬다, 일한다 앉는다 선다, 변소에 간다 먹는다 하는 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이 고정됨이 있습니까?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만남도 고정됨이 없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그렇게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는 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주의 근본도 우리 마음에 직결이 돼 있고 세상살이 만사가 다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습니다.

새삼스러워하거나 거짓으로 알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만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말을 잊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아홉 살에 남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엄마 없는 두 살이 된 아이가 있고 재혼한 부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그 나이가 된 아이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아이는 내가 맡고, 한 아이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 가지고 있는데 밤이면 울고 그러니까 항상 등에다 업고 잠을 재웠어요. 어린애가 울면 같이 울고 그랬죠.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그때 일제시대 때는 물 한 지게에 고련씩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 전에 두 지게씩이죠. 그때는 먹을 것도 귀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 빠지면 먹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남의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신발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게다가 다 닳아 빠져서 반쪽 남은 거를 신고 물을 길러 가니까 이게 미끄러워서 툭 하면 넘어지죠. 그래서 거기다가 새끼를 질끈 매 가지고 아홉 살 먹은 소녀는 그렇게 지냈더래요. 물지게를 지는데 하루 아홉 지게씩을 져 와야 그 집에서 먹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모의 탓도 할 수 없고 남의 탓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을 잘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지 않았다면 바로 상대가 없을 거예요. 가정도 없고 상대도 없고 이런 둥지도 없고 잘하고 잘못하고도 없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부딪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타개를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했든 못했든 내가 이 세상에 난 탓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생긴 탓이죠. 남을 나무라기 이전에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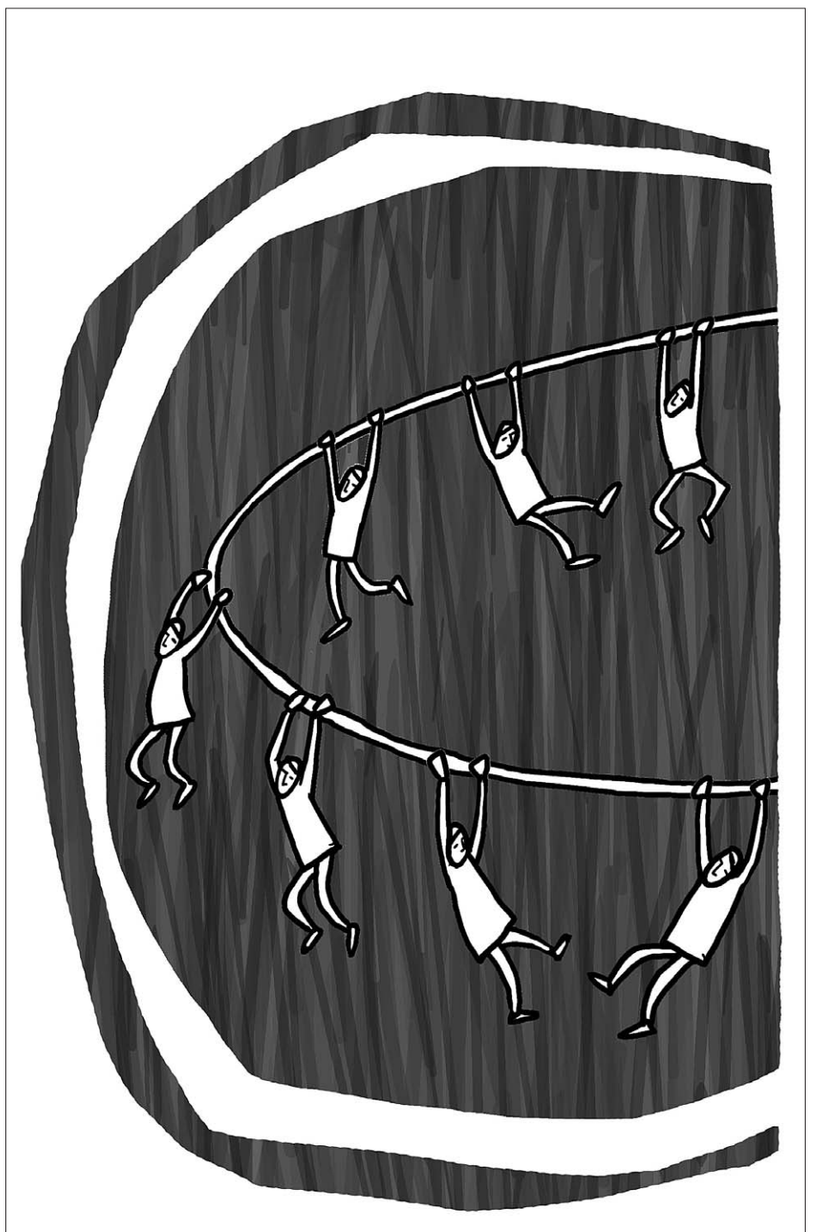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의 몸뚱이 속에 수십억의 생명들, 모습들,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그렇게 인연이 된 줄 아십니까. 그 의식들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다.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게는 몸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자 난자와 나의 영혼이, 즉 삼합이 한데 합쳐져야만 인생으로 화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과거에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안 지었든지 그 인연에 따라서 업식이 자기의 영혼에 부착이 돼서, 모두 한데 합쳐서 이렇게 인간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 과거의 업은 지나갔으니까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몸뚱이 속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몸뚱이 속에 생명과 의식,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그 자체의 의식들은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그 여러 의식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여러분의 숙명통에서, 즉 컴퓨터에 입력이 됐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과거로부터 가지고 나온 업식이, 그 의식들이 그만 여러분을 충동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하나가 '이럭하라' 하면 이럭하고 '저럭하라' 하면 저럭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화가 안 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꾸 충동질합니다. 수십억이 들어 있으면서 차례차례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렇게 나올 때 누가 될 일이라면 '야! 이렇게 해서 돼? 내 영원한 친구여,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 되잖아.' 하고 거기다 맡기고 '잘 이끌어 가봐. 좀 더 삶에 보람이 있고 자유스럽고, 광력으로써 창조력을 갖게끔 해 줘 봐.'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세요. 또 안되는 거라면 되게끔 거기다 맡겨 놓고 거기서만이,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잘 이끌어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이 낫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니까요.

☞26면으로 계속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수시모집」
2. 교육내용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범패 - 거불, 복청게, 헌좌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 등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게, 다게 등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423-중-5041호

統合佛教儀式大典 出刊

총1,2권 2,100 페이지
가격 : 전권 200,000원
크기 : 4×6배판(19×26cm)
본문법화의식대전 / 총1권 2,745 페이지
가격 : 100,000원
사십구제편
1.입재 불공의식 ○화엄시식
2.삼우제 불공의식 ○삼우제시식
3.초재 불공의식 ○지장시식
4.이재 불공의식 ○보현시식
5.삼재 불공의식 ○문수시식
6.사재 불공의식 ○미륵시식
7.오재 불공의식 ○보문시식
8.육재 불공의식 ○묘음시식
9.칠재 불공의식 ○관음시식
고사편
1.가정안택의식
2.사무실고사의식
3.자동차고사의식
4.선박고사의식
기타편
삼재살 해소의식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추천인
韓國佛教 太古宗 宗正
中央僧伽大學校 德長 宗梵
太古叢林 仙巖寺 方丈 釋慧草
統合佛教儀式大典
문의전화 : 055)747-8350,017-552-7350
계좌번호 : 농 협 803-02-752331 예금주 : 김묘경
우체국 612713-02-021600 예금주 : 김묘경

buddhanews.com

한 철 나는 동안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놓아야

☞25면에서 계속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못 봤죠? 운전수는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죠. 그렇듯이 그 운전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만이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다.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라는 거죠. 안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또는 잘되게끔, 싱그럽고 내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아주 좋게 될 때는 감사하게 거기 맡기고요.

자기 마음의 주인밖에 없어요.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또는 스님이나 신부, 목사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 근본, 한마음 주인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이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찾는 것은 기복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까 나부터 알아야죠.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할 수가 있죠. 내 집에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식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과거에 살던 그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서 '주인공!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길을 잘 인도해서 빛나게 살게 해.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남자 여자, 늙고 젊고 그것을 막론해 놓고 영령입니다. 그대로 영령이 돼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애쓰는 것이니 더욱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죠. 마음은 체가 없는 반면에 차원이 높게 어디든지 창살을 벗어나서, 이건 '이 방통 안을 벗어나서' 이 소립니다. 어디든지 마음은 갈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가고 올 수가 있는 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업식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즉 시쳇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카세트에 여러분이 살던 노래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카세트에다가 지금 현재의 노래를 다시 넣었을 때는 앞서의 노래는 다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업 선업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으세요.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집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끌고 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과거도 끌고 가고 지금 현재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악과 선이 두루마리로 돼서 입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순종이 현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세트에 담긴 것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새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 너밖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영원한 친구!'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영원한 친구니까요. '영원한 친구!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너밖에 나를 돌봐줄 수 없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빛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에 난 거하고 뭐, 똥 누는 거니 자고 깨는 거니 모든 거를 거기다 맡기고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가 자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지, 바깥으로 부처님이니 하나님이니 온통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이끌어 주는 주인입니다. 진짜로 자기 내면세계에서 찾으세요. 내면세계를 믿으세요! 그리고 내면세계에서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훌떡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마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뚱이로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는 소인이요 중생이요,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이나 봇장이나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바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을 뒤죽박죽 하는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의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밖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허허허…. 우리가 '자비 자비' 하고 '사랑 사랑' 하지만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사랑입니까? 꼭 조건이 있는 사랑을 모두 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 보세요. 대가 없는 사랑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건 없이 해 보세요.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 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여기 스님이 그 세 구절을 여러분한테 다 써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주인공! 자기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그 도리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몸뚱이의 자유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권을 얻을 때 몸뚱이는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안팎이 다 잘될 것입니다. 마음도 바꿔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도리를 배우는 데는 질문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진리를 불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 근본이 불이요, 바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말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죠. 불교의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데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고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의 주인공 그 자체가, 바로 무심과 유심이 서로 작용을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와 전자가 서로 만남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이건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인연의 법칙이고요.

여러분한테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의 한마음 주인공만을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주인공, 당신이 잘 이끌어 줘!' 하고 바꿔서 거기 놓으면 그대로 천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팩시밀리라는 건 신족통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또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천안통, 즉 말하자면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해도 되죠. 숙명통, 이것은 바로 컴퓨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은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한마음 주인공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누진통, 이것은 레이더망이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책정을 다 하고 결정을 지어서 연락을 합니다.

그렇듯이 한마음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하면 맡겨 놓은 자체의 음파가 누진으로 올라갑니다. 누진으로 인해서 사대로 다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모든 작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모습, 즉 말하자면 의식들이 전부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면서 바깥으로도 출중하게 일들을 하고 안에서도 작용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새 마음으로써 용기 있는 남자, 즉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 수 있다.' 창조력을 길러서 창조해 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빛나는 일꾼들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캠핑 온 거나 같습니다. 걸망 하나 짊어지고 나왔다가 한 철 나고 또 걸망 하나 짊어지고 나옵니다. '걸망을 또 짊어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산 것대로 이 모두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한 철 났다가 가는 그 한 철 동안에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 놓는다면 길러 놓은 대로 주어질 거고 길러 놓지 못했다면 길러 놓지 못한 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주어진 차원대로 살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요다음 생이 되고 역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하여튼 인연이 있으면 요다음에 또 만나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체험을 해 본 뒤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나가더라도 가정도 다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듣는 귀도 달라질 것이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한 생각에 모든 창조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이룩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학생에게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무슨 까닭에 쫓겼는지 쫓기다가 다급하니까 후미진 데 있는 우물에 들어갔더래요. 옛날에는 돌로다가 쌓았죠. 우물로 들어가서 몸을 감추고서 다 지나간 뒤에 나오려니까 당최 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마음 친구야! 나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두레박을 얻어 가지고 부지런히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도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부지런히 와서 물을 뜨려고 보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레박 줄을 잡고 나오게끔 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친구가 '야, 내가 나가서 빨리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꼭 붙들고 있어.' 이러고선 그 몸뚱인 거기다 두고 자기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가 나가서 사람을 불러 오더래요. 그래서 살았대요.

(다음 호에 계속)

길을 가다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8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28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덕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고원 명정 스님께 듣는
신심명 대강좌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3개월 과정의 '신심명 대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신심명은 승찬대사가 쓴 불교 지침서로써 불서의 금자탑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고원 명정 스님의 신심명 재출간을 계기로 강좌를 개설하게 된 원오사 신심명 대강좌에 오셔서 귀한 법을 인연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 오 사
주지 정관 합장
강의주제 : 신심명(信心銘)
강의기간 : 2009년 5월 26일 ~ 8월 25일 (3개월 과정)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 업 료 : 10만원
문 의 : 원오사 051)542-794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극락암분원 원 오 사
612-8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buddhanews.com

한 철 나는 동안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놓아야

☞25면에서 계속

운전수가 차를 끌고 다니지 차가 운전수 끌고 다니는 거 못 봤죠? 운전수는 위로는 기름을 넣고 아래로는 차를 끌고 다니죠. 그렇듯이 그 운전수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있으니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다가 맡기고 거기서만이 잘 이끌고 갈 수 있다고 믿으라는 겁니다. '안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다. 그러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라는 거죠. 안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또는 잘되게끔, 싱그럽고 내 마음이 참 잠잠해지고 아주 좋게 될 때는 감사하게 거기 맡기고요.

자기 마음의 주인밖에 없어요. 어디 믿을 데가 없어요. 허공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또는 스님이나 신부, 목사님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고깃덩어리를 믿는 게 아니라 근본을 믿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그 근본, 한마음 주인공!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 자기 주인공만이 자기를 이끌어 준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의 주인만이 이익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깥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찾는 것은 기복이고 미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이전에, 바깥으로 찾는 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름일 뿐이니까요.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졌으니까 나부터 알아야죠. 내 집부터 전화를 놔야 남의 집에서 전화도 오고 전화도 할 수가 있죠. 내 집에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전화 올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인생의 진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업식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자기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일을 했든 과거에 살던 그 차원대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현실에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충동질한다고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서 '주인공!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길을 잘 인도해서 빛나게 살게 해.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하고서 거기다 맡겨 놓는 겁니다.

공동묘지에 가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남자 여자, 늙고 젊고 그것을 막론해 놓고 영령입니다. 그대로 영령이 돼서 수만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을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애쓰는 것이니 더욱 이 마음의 도리를 알아야죠. 마음은 체가 없는 반면에 차원이 높게 어디든지 창살을 벗어나서, 이건 '이 방통 안을 벗어나서' 이 소립니다. 어디든지 마음은 갈 수가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말입니다. 가고 올 수가 있는 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오신통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그 업식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입력된, 즉 시쳇말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카세트에 여러분이 살던 노래를 하나 가득 넣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카세트에다가 지금 현재의 노래를 다시 넣었을 때는 앞서의 노래는 다 없어졌죠. 없어지죠?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업 선업은 다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한테 모든 거를 맡겨 놓으세요. 끌고 다니는 이 몸뚱이는 집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영원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끌고 가는 그 자체, 그것이 과거도 끌고 가고 지금 현재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못 냈기 때문에 악과 선이 두루마리로 돼서 입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우리들의 만남이 있는 것도 거기에서 순종이 현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카세트에 담긴 것처럼 돼 있으니까 거기다 지금 새 마음으로, 즉 말하자면 '마음의 주인! 너밖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영원한 친구!' 하고 모든 것을 맡겨 놓으란 말입니다. 영원한 친구라고 해도 돼요. 주인공이 영원한 친구니까요. '영원한 친구! 너밖에 나를 이끌어 갈 수 없어. 너밖에 나를 돌봐줄 수 없어. 내가 새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빛나게 자유스럽게 살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모든 거를 다, 이 세상에 난 거하고 뭐, 똥 누는 거니 자고 깨는 거니 모든 거를 거기다 맡기고 다 거기서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자기가 자길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을 믿어야지, 바깥으로 부처님이니 하나님이니 온통 이름을 불러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의 주인은 영원히 이끌어 주는 주인입니다. 진짜로 자기 내면세계에서 찾으세요. 내면세계를 믿으세요! 그리고 내면세계에서만이 여러분의 앞날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과 같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훌떡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지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마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몸뚱이로 문을 통해서 다니는 자는 소인이요 중생이요, 문을 통하지 않고 벽이나 봇장이나 아무 데로나, 마음대로 다니는 자는 바로 부처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말을 뒤죽박죽 하는데, 여러분을 보는 순간 너무 안타까워서 말할 의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밖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허허허…. 우리가 '자비 자비' 하고 '사랑 사랑' 하지만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은 게 사랑입니까? 꼭 조건이 있는 사랑을 모두 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한번 해 보세요. 대가 없는 사랑 말입니다. 모두가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 것도 조건 없이 해 보세요.

어떠한 부딪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내 탓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탓이다.' 그러고 '한마음 주인공! 당신만이 얽히고설킨 이것을 다 풀어 줄 수 있어.' 하고, 울더라도 거기를 붙들고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끌어다가 하면 오히려 더 산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로지 자기 주인공만 붙들고 사세요.

여기 스님이 그 세 구절을 여러분한테 다 써 주셨을 겁니다. 거기에도 있지만, 주인공! 자기 영원한 친구! 여러분이 그 도리만 찾는다면 여러분의 앞날이 참 밝아질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자기 친구를 찾아서 몸뚱이의 자유권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권을 얻을 때 몸뚱이는 스스로 자유권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안팎이 다 잘될 것입니다. 마음도 바꿔질 수 있고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 이런 도리를 배우는 데는 질문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라는 단어는 어느 한 군데에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진리를 불교라고 했던 것입니다. 생명 근본이 불이요, 바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말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죠. 불교의 진리는 우리들의 마음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주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데 정신계의 50%, 물질계의 50%가 서로 상응하고 작용을 해야만이 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의 주인공 그 자체가, 바로 무심과 유심이 서로 작용을 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자와 전자가 서로 만남이 있어야 불이 들어오듯이 말입니다. 이건 상대성의 원리입니다. 인연의 법칙이고요.

여러분한테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나의 한마음 주인공만을 믿고, 오로지 거기서만이 나를 이끌어 준다는 믿음, 물러서지 않는 마음! 잘못된 일들을 하게 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주인공, 당신이 잘 이끌어 줘!' 하고 바꿔서 거기 놓으면 그대로 천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팩시밀리라는 건 신족통이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 또 천이통, 이것은 무전통신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천안통, 즉 말하자면 천체망원경이라고 비유해도 되죠. 숙명통, 이것은 바로 컴퓨터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그리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은 탐지기라고 해도 됩니다. 이 다섯 가지를 다 한마음 주인공에서 관여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누진통, 이것은 레이더망이라고 비유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에서는 들어오고 나가는 책정을 다 하고 결정을 지어서 연락을 합니다.

그렇듯이 한마음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하면 맡겨 놓은 자체의 음파가 누진으로 올라갑니다. 누진으로 인해서 사대로 다 통신이 됩니다. 통신이 돼서 모든 작용을 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모습, 즉 말하자면 의식들이 전부 화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마음대로 하면서 바깥으로도 출중하게 일들을 하고 안에서도 작용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그 체험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한마음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나를 새 마음으로써 용기 있는 남자, 즉 남자다운 남자로 만들 수 있다.' 창조력을 길러서 창조해 내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진짜 빛나는 일꾼들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캠핑 온 거나 같습니다. 걸망 하나 짊어지고 나왔다가 한 철 나고 또 걸망 하나 짊어지고 나옵니다. '걸망을 또 짊어진다.'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산 것대로 이 모두가 반영돼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한 철 났다가 가는 그 한 철 동안에 영원한 내 마음의 차원을 길러 놓는다면 길러 놓은 대로 주어질 거고 길러 놓지 못했다면 길러 놓지 못한 대로 주어질 것입니다. 요다음 생에 또 나와서 주어진 차원대로 살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요다음 생이 되고 역구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주인공을 믿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 하면서 맡겨 놓고 관찰하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참선! 하여튼 인연이 있으면 요다음에 또 만나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체험을 해 본 뒤에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나가게 됩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나가더라도 가정도 다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듣는 귀도 달라질 것이고, 모두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으로서 한 생각에 모든 창조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이룩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느 학생에게 이런 도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는데 무슨 까닭에 쫓겼는지 쫓기다가 다급하니까 후미진 데 있는 우물에 들어갔더래요. 옛날에는 돌로다가 쌓았죠. 우물로 들어가서 몸을 감추고서 다 지나간 뒤에 나오려니까 당최 나올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마음 친구야! 나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서 두레박을 얻어 가지고 부지런히 왔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도 후미진 곳에 있었는데 부지런히 와서 물을 뜨려고 보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레박 줄을 잡고 나오게끔 해서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자기 친구가 '야, 내가 나가서 빨리 사람을 데리고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꼭 붙들고 있어.' 이러고선 그 몸뚱인 거기다 두고 자기 마음의 주인, 영원한 친구가 나가서 사람을 불러 오더래요. 그래서 살았대요.

(다음 호에 계속)

길을 가다 엎드러졌으면
그 자리에서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리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5월 20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명 통변을 위주로 공부한다!!
8기생 모집을 위한
무료 공개 강의
5월 28일 오전 11시
구궁성명학 사주명리
■ 이런분은 꼭 들으세요
· 여기저기 다니다가 지친분 :
성명학 5개월 후 부터는 수입이 생기는 방법이 있다.
· 역학관 개업을 앞두고 계신분 :
사주보다 나은 통변술이 여기 있다.
· 돈을 벌면서 역학공부를 하실분
· 출가를 앞두고 계신 모든분들
· 역학을 5~10년을 해도 통변이 않되는 분
※수료와 동시에 성명학 감정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개업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구궁성명학으로써 사주보다 정확한 통변으로 고객층을 두텁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 기문둔갑, 육임육효, 관상, 내정법 등에 정통하신 교수님이 사주명리 강의를 하십니다.
좋은이름연구원 원장 송학 남상규
(3,6호선 연신내역 7번출구 도보 1분거리)
02)383-8860 / 017-711-2248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고원 명정 스님께 듣는
신심명 대강좌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오사에서는 오는 5월 26일부터 3개월 과정의 '신심명 대강좌'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신심명은 승찬대사가 쓴 불교 지침서로써 불서의 금자탑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고원 명정 스님의 신심명 재출간을 계기로 강좌를 개설하게 된 원오사 신심명 대강좌에 오셔서 귀한 법을 인연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도사 극락암 분원 원 오 사
주지 정관 합장
강의주제 : 신심명(信心銘)
강의기간 : 2009년 5월 26일 ~ 8월 25일 (3개월 과정)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수 업 료 : 10만원
문 의 : 원오사 051)542-7949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극락암분원 원 오 사
612-80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2동 5-28번지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STT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통증 및 마비 종합 치료편 탄생!!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이외에 600여종으로 병원에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종목 수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75,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불자 세상보기

김 의 석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감염내과

신종인플루엔자의 진실

신종인플루엔자로 세계가 떠들썩하다. 인플루엔자(독감)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이다. 흔한 증상은 인두통, 콧물, 기침 등으로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하지만 38℃ 이상의 높은 열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유행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겨울과 봄철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이미 노출돼 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매년 가을에 예방주사를 맞으면 인체가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어능력(면역)을 갖게 된다. 인플루엔자에 면역이 있는 사람의 경우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해 계속 퍼지려면 매년 조금씩 그 형태를 바꿈으로서 사람의 면역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를 '항원소변이'라 한다. 항원소변이가 계속 발생해서 인플루엔자가 매년 유행하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갖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10~40년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로 탈바꿈을 하는 것인데 이를 '항원대변이'라고 한다. 항원대변이가 나타나면 인류가 이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플루엔자의 대유행(판데믹)이 발생하게 된다.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대유행을 살펴보면 세계적으로 최소한 2000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1918년의 스페인독감이 가장 악명이 높다. 그밖에도 1957년에 아시아독감이, 1968년에 홍콩독감이 대유행 사례이다.

1968년의 대유행이후에 4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새로운 대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해왔다. 근래에 동남아시아지역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한 인체감염사례가 발생했을 때에 많은 감염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다. 그러나 최근 북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신종인플루엔자는 최근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와는 달리 사람사이에 매우 빠르게 전파돼서 불과 3주 만에 공식적인 감염자가 5000여 명이 발생했고 주로 해외여행자들을 통해 유럽, 아시아, 남미, 오세아니아 등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현 단계를 세계적인 대유행의 직전단계를 의미하는 5단계로 전염병경고수준을 올렸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돼지, 조류, 사람에게 유행하는 3~4종의 인플루엔자바이러스들이 동물 또는 사람의 몸속에서 만나서 유전자재조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바이러스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면서도 사람들 사이에 전파가 잘 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1918년의 스페인독감과 같이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치명적인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일반인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으려면 외출을 다녀온 후에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www.cdc.go.kr)나 매스컴에서 발표되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국내외 현황에 관심을 기울이고 유행지역에 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인두통, 기침,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 신고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선재마을의료회 10년의 의미

부처님을 대의왕(大醫王)이라 별칭하는 것은 삼독심에 물든 중생들의 미혹을 고쳐주는 진리의 의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비유에서 기인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명번뇌를 벗어나는 묘약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진리의 묘약을 처방하여 중생의 마음을 고친 것처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자비의 의술을 10년 동안 꾸준히 펼쳐 온 신행단체가 화제다. 1999년 경제위기로 온 나라가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이웃을 위해 자신들의 '주특기'를 살려 이웃을 위해 거리로 나섰던 선재마을의료회가 무료진료 10년을 맞았다는 소식이다. 의사 간호사 약사 자원봉사자에 학생들까지 뜻을 모아 소외계층에게 자비의술을 펼친 그들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봉사까지 나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니 큰 박수로 격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선재마을의료회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 간의 신심다지기에도 소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웃을 위한 자비의 실천과 자신의 지혜 닦기를 함께 해오며 정혜쌍수의 자세를 견지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매우 이상적인 신행단체라 할 수 있다. 누가 뭐래도 불교는 지혜를 닦으며 자비를 베푸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불교계에는 선재마을의료회 말고도 '반갑다 연우야', 동국대학교 의료봉사팀 등 굵직한 사업을 전개하는 의료봉사단체가 있다. 몸의 병을 돌봐 주고 마음의 병까지 고쳐 주는 의료봉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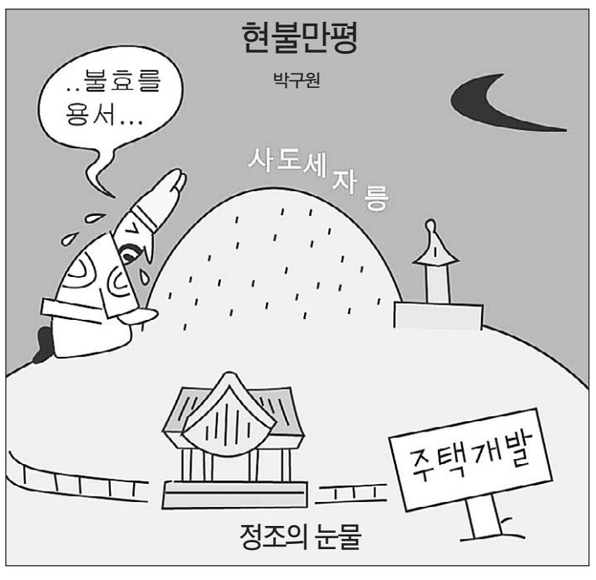
한일 불교교류의 새 방향 연구를

한일불교교류대회가 올해로 30년을 맞았다. 그 기념으로 여주 신륵사에 '인류화합공생기념비'를 세우고 이천에서 '인류화합의 실성을 지향하다'는 주제의 학술대회도 개최했다. 일본불교계 참가자들은 나눔의집을 방문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일본불교계 참가자들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참회의 마음을 여러 번 비쳤다. 신륵사에 제막한 '인류화합공생기념비'에는 '반성과 참회의 염'을 새겨 넣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불교계가 지난 30년간 해마다 교류대회를 개최하면서 줄기차게 유지해온 정신이 바로 참회와 화합 그리고 공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30차 대회는 그간 견지해온 정신을 확연한 역사적 징표로 남겼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제 한일불교교류대회는 참회와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는 진일보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양국불교가 손잡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 공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관습적으로 30년을 한 세대의 단위로 본다. 한일불교교류대회는 꼭 한 세대를 지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새로운 의제를 개발하고 새로운 활동패턴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불교를 발전시켜 왔다. 이는 양국 불교의 차이점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발전의 동력이기도 할 것이다. 모쪼록 관계자들이 보다 새로운 한일불교교류대회를 위해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길 당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5월의 테마-가정

"감사와 칭찬 긍정 에너지 샘솟게 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날(18일) 등 전통적으로 가정사와 관련한 날에 최근 제정된 입양의날(11일), 부부의날(21일) 등 가족과 관련한 날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5월에 이런 저런 선물을 위해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세계 최고 수준의 이혼율,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등 우리 사회의 아픈 단면을 생각한다면 가정의 달을 제정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반세기 동안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 부흥을 이룬 이면에 우리가 얻은 또 다른 상처가 가족의 해체와 가정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전통의 대가족제도는 해체되고 이제 핵가족 사회가 되었다. 부모와 자녀를 합해 3~4명에 불과한 이 가족은 대화가 단절될 경우 갈등과 불화, 학대와 방임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족들이 이런 위기에 봉착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화의 단절은 소통의 부재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불평과 갈등이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만들게 된다. 문제는 이런 부정적 에너지가 가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로 계속 파급돼 나간다는 데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특정종교가 주가 된 모 정당이 들고 나왔던 슬로건이긴 하지만 '가정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슬로건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에서는 기도의 가피를 입은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간절한 기도에는 불보살이 반드시 감응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바로 이것이 긍정 에너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는 되는 일이 없어'라고 되뇌이는 사람은 정말로 되는 일이 없다. 그런 말이나 생각이 에너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갤럽조사에 의하면 회사 내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생산성에 미치는 손해가 미국에서만 매년 2천5백억~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 긍정의 에너지를 만드는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감사'이다. 어느 지인의 집에서는 남편의 월급날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남편에게 이번 달도 수고하셨다고 절을 한다고 한다. 돈을 얼마 못 벌어 왔다, 생활비가 적다고 불평하는 것 보다 남편이 힘써 벌어온 것에 감사하고, 남편이 건강히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훨씬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나를 깨우는 108배'에는 감사에 대한 언급이 1/3 가까이 된다. 감사는 불평이라는 부정적 에너지를 차단하고 긍정의 에너지를 샘솟게 한다. 감사는 칭찬으로 이어지고 이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샘솟게 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행복을 일구어가는 첫걸음은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음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퍼져갈 때 바로 연기에 입각한 감은(感恩)의 마음에 도달할 것이다.

김관태
경영컨설팅 '살림' 대표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웅장했던 도량 텅 빈 공간으로 '무상' 설하다

⑫ 회암사(상), 번성이 아픔이 된 도량


회암사지발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발굴이 완료된 지역의 석축들이 과거 찬란했던 도량을 가늠케 한다.

나옹 스님 의해 '동방에서 첫째'의 도량으로 중창
고려말 조선초 왕족 귀의로 번성…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 핍박으로 쇄락
홀로 사지 지키는 부도 조각 화려해도 균형미 떨어져

불같이 타오르던 꽃은 어느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수줍은 입술을 뾰족이 내민 잎들이 한창 기세 좋게 푸른 하늘을 찔러대며 교향곡을 연주하는 봄날입니다. 이런 날 회암사를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너른 공간에 펼쳐진 폐사의 잔해가 역사의 비애를 말해주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소생(蘇生)의 시간에 폐허의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교만한 인간 세상의 단편을 관조하는 기회도 될 것이란 생각에 차를 달려 천보산의 품으로 향합니다.

의정부를 벗어나면서 하늘에 구름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두터운 먹장구름입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웬 구름? 쿠르릉 쾅 하고 천둥도 칩니다. 회암사지 근방에 도착하니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시답지 않은 놈이 성역을 찾아가는 것이 못마땅해 이렇게 겁을 주는가 하는 생각에 오금이 저립니다.

회암사지에 도착해 전망대에서 발굴현장을 내려다봅니다. 3만3000여㎡(1만여 평)에 이르는 너른 절터를 조각 맞추기 하듯 발굴한 현장이 경외롭습니다. 오늘도 카메라를 메고 동행한 이승현 시인은 '이런 광경을 보게 되다니' 하는 표정이지만 말이 없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 줍니다. 땅을 파헤쳐 옛 절터를 가늠하고 유물을 들추어 가람의 배치를 읽어내는 발굴현장은 먹장구름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수 백 년 묵혀 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푸릇푸릇 돋아난 잡초들도 조심조심 줄기를 밀어 올리는데 속살 드러낸 절터를 망연히 바라보는 나그네의 눈길은 아득하기만 합니다.

기어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굵은 빗줄기가 한 바탕 지나갑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한 바탕 세차게 뿌리던 비가 그치고 햇살이 부챗살처럼 비칩니다. 갑작스런 소나기는 사지와 부도 그리고 탑비들을 찬찬히 잘 보라고 하늘이 청소해준 것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국가사적 제128호 회암사지. 목은 이색은 '회암사 주조기'에서 회암사를 동방에서 첫째가는 도량이라 소개했습니다. 회암사는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이르는 동안 대륙과 반도의 왕에서 민초들에 이르기까지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던 큰스님들이 깊은 인연을 지었고 왕실이 원찰로 삼았던 도량이었습니다. 비록 사지로 남아 아직 발굴 작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회암사는 인도의 승려 지공화상이 건립했다고 전하지만 그가 고려에 오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절입니다. 지공은 인도의 나란난타 대학과 같은 구조의 대규모 절로 회암사를 지으려는 원력을 세웠고 그의 뜻은 제자인 나옹 선사가 이루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고승이었던 나옹 선사는 왕조의 막강한 후원에 힘입어 회암사 중창불사를 완성하지만 그 이름이 너무 높아 '백성들의 생업에 지장을 준다'는 탄원까지 왕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로인해 나옹 선사는 불사회향을 앞두고 밀양으로 향하다가 중도에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합니다. 이후 무학 대사가 조선 태조의 후원으로 절의 명맥을 잇고 태조와 효령대군 정희왕후 문정왕후로 이어지는 왕실의 귀의를 바탕으로 '왕실사찰'의 큰 격을 유지합니다.

왕실사찰의 면모는 지금 발굴현장에서도 생생히 보이는데 궁중에서나 쓰는 태극문양이 돌계단의 귀꽃으로 쓰였습니다. 거대한 기름틀과 소맷돌(경기유형문화재 제1호) 사방6자의 안반, 기름틀 등도 당시의 모습 그대로 묻혔다가 세상 빛을 보고 있습니다.

문정왕후의 귀의를 받고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허응당 보우 대사가 다소 쇄락한 회암사를 다시 중창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번성이 화근이었을까요? 숭유억불의 국시를 버티기에 왕실의 힘도 모자람이 있었나 봅니다. 1565년(명종20) 중창불사를 마치며 대설무차대회를 열려고 했으나 갑작스럽게 문정왕후가 이승의 인연을 마치는 바람에 보우 선사마저 제주도로 유배를 가게 됐고 그곳에서 피살당합니다.

그 뒤 내리막길을 치달은 회암사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됐을 것이고 3000명의 수행자들이 구도의 향화를 태웠다는 큰 도량은 역사의 눈길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학계는 회암사가 문정왕후의 사망 이후 유생들에 의해 고의적인 방화로 소실됐을 것으로 보고 있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르는 권세도 무상합니다. 그 권세의 귀의를 받아 번창했던 도량도 무상합니다. 천지만물이 무상한데 큰절이라고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주괴멸의 사이클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이 유위의 이치입니다. 다만, 더 지켜질 수 있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석양무렵의 시장기처럼 속을 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암사지는 그 웅장했을 몸을 버리고 텅 빈 공간을 통해 일체의 무상을 법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 없는 법문을 들으며 사지를 더듬어 봅니다.

지금도 전국의 사찰에서 숭앙해 마지않는 삼화상(三和尙), 지공(指空) 나옹(懶翁 1320~1376) 무학(無學 1327~1405) 대사의 부도와 탑비는 회암사지 위쪽에 위치한 회암사 오른쪽 능선에 모셔져 있습니다. 회암사지를 거쳐 회암사에 이르고 회암사에서 오른쪽 언덕에 삼화상의 부도와 탑비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나옹 선사의 탑비는 왼쪽 능선에 우뚝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친 폐사지의 갓길을 따라 구석으로 갑니다. 키 큰 부도 하나가 멀리서도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암사지는 모두 8단계의 단지로 구성돼 있는데 천보산에 잇닿은 쪽이 8단지로 대장전, 방장, 정청, 방장, 나한전 등의 건물이 나란히 서 있던 곳입니다. 정면에서 볼 때는 가장 후미진 곳이지만 도량의 중심에서 본다면 가장 권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8단지의 오른쪽 후미 도량의 북쪽 모서리가 부도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단 한기의 부도가 탑비도 석등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키가 훤칠합니다.

여기에 함께 있었을 삼화상의 부도는 1821년(순조 21)에 지방의 토호인 이응준에 의해 파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당시 지역의 토호들은 숭유억불의 국시에 맞춰 불교를 이중삼중으로 핍박했는데, 실은 절터를 허물어 조상의 묘역을 삼고자 하는 욕심이 컸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셔 후대의 안위를 튼튼하게 하자는 욕심이 앞서 신성한 도량을 파헤치는 업보의 무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술사(術士)의 말을 듣고 삼화상의 부도를 파괴한 이응준은 7년 후에 그 일이 알려져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깨진 부도와 탑은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습니다. 경기지역의 스님들이 의논 끝에 도량에서 위쪽에 위치한 언덕에 다시 삼화상의 부도와 탑비를 조성해 모십니다. 그러나 비의 몸돌만은 끝내 복구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수난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우뚝하게 회암사의 흥망을 지켜 본 이 부도는 주인이 누구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회암사지부도탑'이란 이름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라는 입석 표식이 비에 젖은 채 탑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탑은 팔각원당형의 기본을 취하고 있지만 몸돌은 원형이로 다듬어져 있고 지붕돌의 경사가 급해 뭔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성스럽게 놓아진 지대석과 기단석들이 주는 안정감이 위로 올라갈수록 흐트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탑의 부재들을 꿰어 맞춰 쌓은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탑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간 공력을 들인 작품이 아닙니다. 여덟 쪽의 널돌을 지대석으로 받치고 네 개의 돌로 다음은 하대석을 얹었는데, 하대석부터 용과 천마의 정교한 문양이 주는 생동감은 매우 깊은 진동으로 눈을 사로잡습니다. 중대석과 상대석의 연과 당초문 등 조각도 매우 세심한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의 목조각에서 흔히 그렇게 하듯 따로 조각을 해 정교하게 붙여 둔 것처럼 보일만큼 조각이 깊고 섬세합니다.

상대석에 이어지는 몸돌은 둥근 화강암인데 복련과 앙련의 받침위에 놓였습니다. 키가 맞지 않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글자나 문양의 흔적이 없어 보입니다. 몸돌 위를 덮은 지붕돌은 매우 폭이 좁고 지붕마루의 경사가 심해 머리통 큰 사람이 작은 모자를 쓴 것 같은 부조화를 보입니다. 거기서 탑의 균형미가 심하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회암사의 역사를 두고 본다면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홀로 남아 고난의 세월을 견뎌온 것이 장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도의 주인으로는 허응당 보우 선사와 1472년 절을 중창한 처안(處安) 대사일 것이라는 추측은 있어도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길을 위로 향합니다. 회암사 오른쪽 능선의 삼화상 부도와 왼쪽 능선의 나옹선사 탑비를 향합니다. 비가 그친 뒤로 나뭇잎의 푸르름이 더욱 선명한데 주변의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이 진행되는지 총소리가 귀를 아프게 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돌베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제원. 〈잊혀진 가람탐험〉 장지현, 여시아문. 등.

부처님 일천팔십분의 이름 회전으로 사찰경제 중흥발원
"업장소멸 법륜대 탄생"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
너무나 큰 관심과 성원을 주셨습니다.
지면으로 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달마사 청오 합장 –



이름명패
실용신안특허의기술
□ 제품명: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게 25kg

지금 탁자 앞으로 길게 줄을 잇는 법당이 늘어 주목이 되고 있다. 촛대 좌우 법륜대에 천불이 봉안되어 가족과 자신의 이름을 달고 소망을 발원 하느라 눈을 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돌릴때마다 한권의 경을 읽는 공덕은 물론 업장이 소멸되는 법륜대가 법당탁자에 봉안 되고 있다. 한바퀴, 또 한바퀴에 느껴지는 감동이 이어져 사찰 경제지킴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달마사 전시장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는 분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1. 양쪽 1,080명 이름패 셋트 (162만원 상당)는 상담 후 일부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2. 권선문 (120명×10권)을 드립니다.
3. 숲의 향기 그대로 묻어나는 청다향 코끼리 셋트(21만원 상당)를 드립니다.
4. 년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 375,000원씩 분납으로 수월하고 편안한 지불이 불사를 도웁니다.

■ 한 분 한 분 수작업으로 접수순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한탄하지 마시고 화주승의 마음으로 중생구제와 중생불사의 서원을 이루소서

불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도록 업장소멸 법륜대를 소개해 드립니다.
최소비용으로 중생불사 동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탁발 하듯 한분 한분 5,000원이 일년 6,000만원으로 사찰경제 기반이 되는 법륜대 입니다.

덕유산 우리 숲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